

국립국어원 2011-01-11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34-0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 ▣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순자(제주대학교)
- ▣ 조사 주제: 해초류
- ▣ 조사 지역: 제주도 동부(우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정희

공동연구원: 김순자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6
2.1. 현장 조사 지침_7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10	
2.3. 올림말 선정 지침_12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7
2.1. 제보자_17	
2.1.1. 주제보자	2.1.2. 보조 제보자
2.2. 조사 기간과 방법_19	
2.3. 조사 장소_19	
2.4. 조사 내용_19	

2.5. 조사 결과물_20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제주 동부 우도 해초 관련어 구술 발화	23
1. 김춘산 구술 발화	23
1.1. 인적 사항_23	
1.2. 물질 생활_24	
1.2.1. 모자반(뫼) 이야기	1.2.2. 미역(메역) 이야기
1.2.3. 듬북 이야기	1.2.4. 우뭇가사리(우미) 이야기
1.2.5. 기타 바다풀	1.2.6. 무레질
1.2.7. 툫(툭) 이야기	
1.3. 해녀노래와 노젓는노래_63	
1.3.1. 해녀노래	1.3.2. 노젓는노래
2. 정금주 구술 발화	67
2.1. 인적사항_67	
2.2. 물질 생활_67	
2.2.1. 해녀노래	2.2.2. 미역(메역) 이야기
2.2.3. 무레질 이야기	2.2.4. 모자반(뫼) 이야기
2.2.5. 툫(툭) 이야기	2.2.6. 우뭇가사리(우미) 이야기
2.2.7. 바룻잡이	2.2.8. 기타 바다풀
2.3. 바닷고기(바당궤기)_102	
2.4. 물때 이야기_105	
2.5. 바람 이야기_106	
제4장 조사된 어휘	111
1. 미역(메역)	111
1.1. 종류_111	
1.1.1. 메역	1.1.2. 돌메역
1.1.3. 념메역	1.1.4. 춤메역
1.1.5. 물메역	1.1.6. 육지메역, 줄메역
1.1.7. 조각메역	
1.2. 부문명칭_113	

1.2.1. 귀, 귀다리, 메역귀	
1.2.2. 툇가리	1.2.3. 덩치기
1.2.4. 메역 이파리	1.2.5. 메역 팡
1.2.6. 메역 꼰렁이	
1.3. 도구__114	
1.3.1. 풍선	1.3.2. 발동기
1.3.3. 갈콩이, 갈구리	1.3.4. 기
1.3.5. 곁동	1.3.6. 바작
1.3.7. 중계호미	1.3.8. 망사리, 흥아리
1.3.9. 테왁, 꺾테왁	1.3.10. 물속곳
1.3.11. 물적삼	1.3.12. 물수건
1.3.13. 뚜데기	1.3.14. 고무웃
1.3.15. 눈	
1.4. 단위__118	
1.4.1. 낭, 남	1.4.2. 단
1.4.3. 꿰미	1.4.4. 단 치다
1.5. 행위와 방법__119	
1.5.1. 즈물다	
1.5.2. 무레질, 시간무레질, 무레질허다	
1.5.3. 허채허다, 즈문허다	1.5.4. 툇다
1.5.5. 나다	1.5.6. 마중, 마중질, 마중질허다
1.5.7. 저 올리다	1.5.8. 멩기다
1.5.9. 건지다	1.5.10. 꺾다
1.5.11. 부찌다, 널다	1.5.12. 불추다
1.6. 상태__122	
1.6.1. 근피다	1.6.2. 민지락허다
1.6.3. 빠드락허다	1.6.4. 녁작허다
1.6.5. 멩텅멍텅허다	1.6.6. 쫄력쫄력허다
1.6.7. 갈탁허다	
1.7. 음식__123	
1.7.1. 메역체	1.7.2. 메역국
2. 모자반	124
2.1. 종류__125	
2.1.1. 톱	2.1.2. 춤뭉
2.1.3. 쥐뭉, 주뭉	2.1.4. 노랑쟁이
2.2. 부분명칭__126	

2.2.1. 부끌레기, 왕부끌레기	
2.3. 도구_126	
2.4. 행위와 방법_126	
2.4.1. 물류다	2.4.2. 빨다
2.4.3. 솟다	2.4.4. 데우치다
2.4.5. 무치다	2.4.6. 끌이다
2.5. 상태, 색깔, 맛_127	
2.5.1. 먼지락허다	2.5.2. 줌진줌진허다, 줌질다
2.5.3. 검시릉	2.5.4. 노랑허다
2.5.5. बे지근허다	2.5.6. 맛시다
2.6. 음식_129	
2.6.1. 뭍국, 뭍국, 뭍국물, 출렛국	2.6.2. 뭍즈밤
2.7. 기타_129	
2.7.1. 불턱	2.7.2. 갓, ㄹ, ㄹ뒤
3. 듬북 130	
3.1. 종류_131	
3.1.1. 쥐듬북	3.1.2. 갑실듬북
3.2. 도구_131	
3.2.1 고에기	3.2.2. 공쟁잇대
3.2.3. 줄아시	
3.3. 단위_132	
3.3.1. 폐기	
3.4. 행위와 방법_132	
3.4.1. 히다	3.4.2. 밀려 오다
3.4.3. 즈물다	
3.5. 상태_133	
3.5.1. 미끌미끌허다, 밍끄럽다, 밍끌밍끌허다	
3.5.2. 사끌사끌허다	3.5.3. 멘지락허다
3.6. 기타_134	
3.6.1. 듬북놀	3.6.2. 듬북몰레
4. 툷 134	
4.1. 종류_135	
4.1.1. 봉당톨	
4.2. 부분 명칭_135	
4.2.1. 물푸글레기, 물이슬	

4.3. 도구_135	
4.3.1. 바작	4.3.2. 지게
4.3.3. 호미	4.3.4. 마다리
4.3.5. 찰리	
4.4. 행위와 방법_136	
4.4.1. 지어내다	4.4.2. 비다
4.4.3. 담다	4.4.4. 툴리다
4.5. 상태와 색깔_137	
4.5.1. 몽클몽클허다	4.5.2. 희뜩희뜩허다
4.5.3. 몽갈몽갈허다	
4.6. 음식_138	
4.6.1. 툴냉국	4.6.2. 툴늑물
4.6.3. 툴밥	4.6.4. 툴프레밥
5. 우뭇가사리	139
5.1. 종류_139	
5.1.1. 우미, 천초, 천추	5.1.2. 꺾우미
5.1.3. 청우미	5.1.3. 돌우미
5.1.4. 섭우미	5.1.5. 광추우미, 강추
5.1.6. 종지우미	5.1.7. 조각우미
5.1.8. 만괵우미	5.1.9. 일번추
5.1.10. 이반추, 이번추, 두불우미	5.1.11, 삼반추, 세불우미
5.1.12. 적	
5.2. 도구_142	
5.2.1. 방멩이, 마께	5.2.2. 망사리, 조락
5.3. 행위_143	
5.3.1. 즈물다, 즈문허다	5.3.2. 우미 뜯다, 우미 메다
5.3.3. 널다, 툴리다	5.3.4. 빨다
5.3.5. 발레다	5.3.6. 걸르다
5.3.7. 얼루다	
5.4. 상태와 색깔_144	
5.4.1. 까실까실허다	5.4.2. 비스듬허다
5.4.3. 멘지락허다	5.4.4. 존존허다
5.4.5. 튼튼허다	5.4.6. 푸리다
5.4.7. 발강허다	
5.5. 음식_146	
5.5.1. 우미, 우미묵	

6. 기타 해초류	146
6.1. 감태, 감태왓_	146
6.2. 푼레, 개푼레, 춤푼레_	147
6.2.1. 푼레국, 푼레밥, 개푼레밥	
6.3. 폐, 넙폐_	147
6.3.1. 폐밥	6.3.2. 넙폐국
6.4. 막작폐_	148
6.5. 고장풀_	148
6.6. 곤포_	148
6.7. 도박_	149
6.7.1. 멩지도박	6.7.2. 도박풀
6.8. 독고달_	149
6.9. 밀대, 보릿대_	149
6.10. 서슬, 서실_	150
6.11. 지꺼리, 찌끄리_	150
6.11.1. 지꺼리풀	
6.12. 지층_	150
6.13. 진도밭이_	150
6.14. 가시리_	151
6.14.1. 주네가시리	6.14.2. 마카시리
6.14.3. 불통가시리	6.14.4. 가시리풀
6.14.5. 가시리국	
6.15. 험녕이_	152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55
참고 문헌	158
부 록	159
찾 아 보 기	181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에 제1차 단계로 실시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에 이어 2011년도에 실시하는 제2차 단계의 조사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를 생활환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안 지역에는 다양한 어촌 생활문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다. 이

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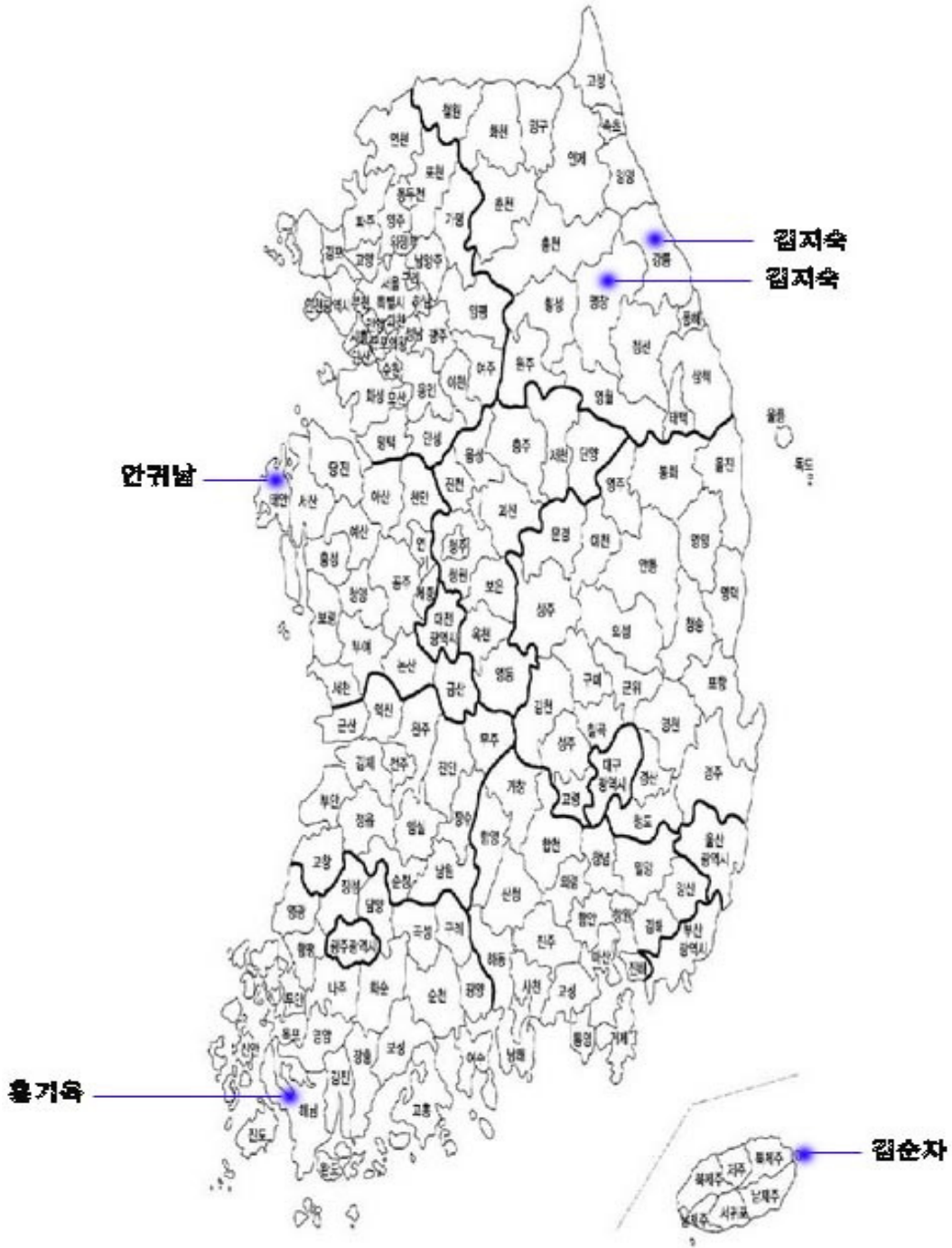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서해안 중부, 남해안 서남부, 동해안 북부, 제주도 동부로 어촌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점 간의 거리차를 두어 조사 지역을 선정한다.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2010년에 실시한 제1차 조사 지역을 제외하되, 동일한 해안 지역 중에서 미조사 지역을 다시 재조정하여 선정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1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 를 위하여 선정된 지역이다.

● 2011년도 조사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기’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기’가 [-]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키’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혜성 → 혜성
- ⑨ 단모음 ‘-키’나 ‘-히’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키’이면 ‘-키’, ‘-히’이면 ‘-히’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기’나 ‘-키’가 [ɕ]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기’이면 ‘-기’, ‘-키’이면 ‘-키’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시’가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샤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ㅊ, ㅈ’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시’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준다.
 예) 바시 → 바(시)
 저시 → 저(시)
 꼬시 → 꼬(시)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익고, 묵꼬 → 묵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홍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ㄱ’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썩나물(쓴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ㅗ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ㄱ>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一’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ㅛ’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풀(팔), 뽕다(뵙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ㅑ’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ㅕ’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불(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깁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흙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배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벵이다(배우다)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ㅞ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췌(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ㅓ>ㅑ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괴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ㅞ>ㅓ : 괴기>게기, 괴비>게비(식물), 외우다>에우다, 뽕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ㅑ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뚝>귓뚝,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ㅞ>ㅓ : 팽이>핑이, 왜홀태>외홀태, 산토팡이>산토펡이, 께>뀌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ㅁ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첩(버집)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꽁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꽁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곰>아흙, 돛>뿔,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았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기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플~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펥퐁(병퐁), 팍나(밤낫), 풀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옷(옷), 빛(빛)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굶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사진 1] 우도 바당

유네스코는 2010년 12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하였다. 이는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어휘도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증거다. 조사자가 어촌 생활어 가운데 섬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나마 바다를 생업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어촌 생활어가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본

조사자가 지난해 제주 서부 비양도의 어촌 생활어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섬 지역에서도 어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주옥같은 어촌 생활어가 빠르게 소멸 또는 소멸 위기에 놓였음을 확인하였다. 국립국어원이 어촌 생활어 조사에 관심 보이는 것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채록하여 전승하기 위함이다.

어촌 생활어는 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 생성된 문화, 즉 신앙·풍속·전승문화 등에서 배태된 언어를 말한다. 그러한 기층문화와 관련한 언어들이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멸 또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화급한 조사가 필요하다.

언어도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나고 죽는 과정을 거친다. 아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죽는다. 그러나 인류가 만들어낸 언어는 영원히 죽을 수도 있지만 인류의 노력으로 영원히 부활하고, 보존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언어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멸하기 전에 언어 자료(문자, 음성, 영상 등)를 기록하여 구축해 놓으면 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언어는 기록하기 전에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대대로 이어온 민족 생활어는 기록되기 전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인류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언어유산으로 기록되고 보존된다.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어촌 생활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제주의 문화의 고갱이는 바다와 관련한 어촌 생

활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 동부 우도(牛島)에서 이루어진다. 우도는 제주도 연안에 산재한 부속 도서 가운데서 최대의 면적을 갖고 있는 섬으로써,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떨어져 있다.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우도에 목장을 개설하는 1843년 이후의 일이다. 우도는 현재 천진리, 서광리, 오봉리, 조일리 등 4개 행정리에 1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1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다양한 삶의 문화와 생활어를 배태해 왔다.

우도는 반농반어 지역이다. 어로 활동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고기잡이와 잠녀들의 바다밭을 무대로 하는 어로 작업으로 대별되는데, 다른 섬과 달리 우도는 잠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즉 우도의 어로 작업은 주로 잠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도의 잠녀들은 물의 밭과 바다 밭을 넘나들며 생계를 꾸리는데, 바다밭에서는 주로 해초 채취와 ‘헛무레’가 이루어진다. 우도의 주요 소득원은 밭 농사도 있지만 해초 채취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해초 채취와 관련한 어촌 생활어가 발달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해초 채취와 관련한 어휘를 조사하는 것도 섬 지역이어서 전래적인 해초 채취 관련 어휘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게다가 아직까지 우도에서 어촌 생활어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것도 조사 주제로 삼은 이유의 하나다.

우도에서의 해초 작업은 1~2월에 모자반(몸) 채취,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툫 채취, 4월 중순에서 7월초까지 우뭇가사리 채취, 5월 넓미역 채취, 7월말에 ‘고장풀’과 ‘갈래곰보’ 채취, 그리고 우뭇가사리 2번초 채취가 주종을 이룬다. 예전에는 음력 3~5월에 미역을 채취했지만 지금은 판로가 없어 미역은 채취하지 않고 있다. 해초를 채취하지 않을 때 잠녀들은 ‘헛무레’라고 해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소라나 전복, 문어 따위의 해산물을 탄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도 지역의 해초 작업과 관련한 생활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해초 관련 어휘를 목록화할 예정이다. 채취에서 건조까지의 과정은 물론, 해초를 가지고 만들어 먹는 음식과 관련한 어휘도 조사한다. 지금은 판로가 없어서 채취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주요 소득원이었던 미역 채취와 관련한 어휘도 조사한다. 특히 우도에서는 넓미역도 생산되어 넓미역과 관련한 고갱이 같은 어휘도 목록화할 것이다.

제보자는 섬을 오래 떠나지 않은 70대 이상의 토박이 잠녀를 선정하여 구술채록 방식으로 일대일 면담으로, 한편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여러 명의 제보자에게 조사를 할 계획이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우도 해초 관련 어휘 조사 제보자는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김춘산, 정금주는 주 제

보자로, 윤춘옥, 강영수를 보조 제보자로 선정하여 우도 해초 관련 어휘 조사와 정리에 도움을 받았다. 보조 제보자인 강영수는 기초 자료 확보와 제보자 선정,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었다. 제보자들은 우도 출신으로서 이 섬을 오래 떠나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2.1.1. 주제보자

① 김춘산(74·여)/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 우도면 천진리 출신이며 현재까지 고향을 떠나보지 않음.
- 열두 살 때 물질 배워 현재도 물질작업을 하고 있으나 건강 문제로 잠시 쉬고 있음.
- 잠녀들이 육지 물질 갈 때 불렀던 「네 젓는 소리」와 일제강점기에 작곡된 「해녀노래」를 잘 알고 있음. 육지 물질 다녀옴.
- 잠수회장을 오래 했고, 노래를 잘 불러 언론 취재가 잦다 보니 가끔 표준어를 섞어 쓰는 것이 아쉬웠지만, 기억력이 뛰어나 우도의 해초류 관련 어휘와 해초류 제보자로 손색이 없음.

② 정금주(83·여)/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비양동

- 현재도 물질을 하고 있는 현업 잠녀임.
- 김춘산·윤춘옥과 비교해서 오래 전에 우도에서 사용했던 어촌 생활어를 기억하고 있음. 우도에서는 소리를 ‘고동’이라 부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구쟁이’로 불렀고, 성계도 ‘성기’가 아닌 ‘귀’로 불렀음을 상기시켜 주어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해줌.

2.1.2. 보조 제보자

① 윤춘옥(78·여)/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 우도면 천진리 출신으로 현재도 물질을 하고 있는 현업 잠녀임.
- 육지 물질 다녀옴.
- 기억력이 뛰어나 물질과 관련한 어촌 생활어와 해초류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들려줌.

② 강영수(61·남)/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 성산 수협 어촌계 근무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부인이 잠수여서 물때에는 ‘마중꾼’으로 부인의 일을 도움. 우도 해초류 조사의 개요를 설명해 주는 한편 제보자 정금주를 섭외하는 데 도움을 줌.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해초류 관련 어휘	김춘산	여	74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2		정금주	여	83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		윤춘옥	여	78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4		강영수	남	61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개요 조사, 제보자 섭외

2.2. 조사 기간과 방법

우도 어촌 생활어 해초 관련 어휘 조사는 2011년 4월 4일, 7월 12일, 8월 2일, 8월 15일, 10월 3일 등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제보자를 만나 1대1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도 지역의 1년 동안의 바다 생활을 계절별로 조사하였다. 구술 채록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후에는 구술 자료에서 어휘와 용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일정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정	조사 내용	장소	도구
4·6월	문헌 조사		
4. 4.	툃 채취 현장 조사 해초 관련 사진 촬영 등 조사	우도 비양동 툃 채취 현장	필기도구 카메라
7. 12.	1차 해초 관련 어휘 조사	천진동 포구, 제보자의 집	녹음기 카메라
8. 2.	2차 해초 관련 어휘 조사	제보자의 집	녹음기 카메라
8. 15.	3차 해초 관련 어휘 조사	제보자의 집	녹음기 캠코더
10. 3.	4차 해초 관련 어휘 조사 -보충 조사	제보자의 집	녹음기

2.3. 조사 장소

조사는 제보자의 집과 천진동 포구, 비양도 바닷가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구술자료와 어휘 조사는 천진동 포구와 제보자의 집(김춘산, 윤춘옥, 정금주, 강안근)에서, 사진 자료는 비양동 바닷가 툃 현장에서 채집하였다.

2.4. 조사 내용

조사는 우도 바닷가에서 자라는 해초류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도 사람들의 주

소득원이었던 미역과 툫, 우뭇가사리는 물론 주요 부식 거리이자 거름용으로 채취했던 모자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 우도 바다는 물론 해안가에서 자라는 해초와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조사는 크게 해초류 종류, 도구, 채취 행위, 상태, 음식 관련 어휘, 기타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른 구술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용례 확보에도 신중을 기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세부 항목 조사
종류	메역, 춤메역, 물메역, 조각메역, 만괭메역, 넙메역, 메역귀, 툫거리, 춤뭍, 쥐뭍, 노랑쟁이, 듬북, 쥐듬북, 갑실듬북, 부끌레기, 왕부끌레기, 툫, 봉당툫, 우미, 굿우미, 청우미, 돌우미, 섭우미, 조각우미, 만괭우미, 광추우미, 종지우미, 천초, 일변초, 이번초, 두불우미, 세불우미, 춤우미, 청우미, 물이슬, 맹지도박, 서슬, 지꺼리 등
도구	풍선, 발동기, 갈퀴, 고동, 바작, 호미, 증계호미, 굴각지, 꼭테악, 망사리, 뚜데기, 눈도갑, 고에기, 공쟁잇대, 줄아시 등
행위	무레질, 시간무레질, 허채허다, 즈문허다, 툫다, 마중질허다, 비다, 즈물다, 물리다, 근피다, 빨다, 데우치다, 메다, 발래다, 솟다, 얼루다 등
상태, 맛, 색깔	민지락허다, 빠드락허다, 멩텅멩텅허다, 쫄럭쫄럭허다, 갈탁허다, 민지락허다, 밍글밍글허다, 사팔사팔허다, 멩클멩클허다, 멩갈멩갈허다, 툫툫허다, 베지근허다, 맛시다, 검시룽 등
음식	메역국, 메역채, 뭍국, 뭍죽밤, 돛국물, 출렛국, 뭍죽밤, 툫늑물, 툫냉국, 툫밥, 툫푼레밥, 우미묵, 폐밥, 개푼레밥, 넙폐국 등
기타	냥, 남, 단, 단 치다, 꺾미, 듬북물레, 도박풀, 가시리풀, 지꺼리풀 등

2.5. 조사 결과물

우도 해초 관련 조사 결과물은 한글 조사 보고서와 음성파일, 사진 파일, 엑셀파일로 이루어졌다. 조사 보고서는 어휘에 따른 대응표준어와 뜻풀이, 용례, 사진 자료 등을 곁들여 작성되었다. 엑셀파일도 뜻풀이와 용례 등을 담아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우도 해초 관련 조사 어휘는 205개다. 이 가운데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은 제주도방언 어휘는 167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영상 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해초 관련 어휘	205	167	5		33	

※ 미등재 어휘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를 말한다. 여기에서 미등재 어휘는 기초 어휘에서 중복된 미등재 어휘가 포함된 숫자다.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제주 동부 우도 해초 관련 구술 발화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제주 동부 우도 해초 관련어 구술 발화

우도 해초 관련 구술 자료는 김춘산(74세, 여, 우도면 천진리)과 정금주(83세·여·우도면 조일리)의 이야기다.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물질을 하여 지금도 우도에서 해초 작업을 하고 있는 현업 잠수다. 기억력이 뛰어나 우도에서 해초 작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다. 해초 작업 외에도 우도 바다에서 채취하던 소라와 전복 등 해산물과 물때, 바람 이름 등에 대해서도 구술 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김춘산에게서는 일제강점기 잠녀 항일항쟁 때 제주 동부 지역에서 많이 불렀던 『해녀노래』(전4절)와 잠녀들이 육지 물질을 떠날 때 불렀던 『노젓는노래』도 조사할 수 있었다. 또 정금주 역시 『잠녀노래』와 『노젓는노래』를 기억하여 두 명의 제보자의 노래를 비교할 수 있었다. 두 제보자는 서로 다른 지역이어서 구술 자료는 두 지역의 어촌 생활어 어휘를 비교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김춘산 구술 발화

1.1. 인적 사항

@ 삼촌 이름이 뭐렌 헛수과 아까?

김춘산

@ 김춘산예, 저기 몇 년생?

38년생

@ 삼심팔년생. 삼촌 사는 디 주소 폼 곱아줍서?

천진리.

@ 몇 번지?

1680번지 다시 3

1.2. 물질 생활

@ 삼촌, 우도에서 물질해난 거 이제 물어볼 거라예. 계영 여기에서 이제 일월부터 십이월말까지 쪽 허는 거를 곶아줍서예. 일월에는 어떤 물질을 헛덴?

이것이 원래는 우리 커오고 한 씨집 올 때꺼지는 바다 금허는 것이 없었어. 그덕에 는 뭐 여름 겨울 없이 쪽 소라를 잡았어. 근때는.

@ 이 동네 말로 곶아예?

어, 이제 소라를 잡았거든. 그때는. 계영 요즘은 나서 어촌계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는 이제 그 알 싸는 기간. 소라이. 이제 알 싸는 기간이여. 이제 점복이던 소라던 고기 든 알 쌀 덕에는 이 갖으로 들어와. 갖에부터 갖에 와서 알을 싸서 다 나가거든. 원래 이제 고기도 다 이 갖에 들어. 이 알 쌀 덕에는 들어와. 이제도 소라도 알 싸는 기간이 기 때문에 금허거든. 옛날에는 이런 거 엇엇거든. 옛날은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거 다 알 싸는 거 고기 뭐 허는 거 다 연구가 뉘니까 아 이거는 알 싸는 기간에는 금지허겄 다 헤가지고 금허니까 소라가 만허여지는 거고. 전에 옛날에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 람이 엇기 때문에 그자 무조건 그자 여름 겨울 없이 소라를 잡았거든. 잡았기 때문에 소라가 그때는 귀헛어. 워 귀헛느냐 허면 이제 잠수복 나고 오리발 이시면은 소라가 없을 줄 알았거든. 더 기픈디 들어가고. 그때는 옷 벗어서 무레질헛 때에는 겨울에는 잘 허민 한 삼십 분. 그만큼 못 살아놓니까 그렇게 헛는데 잠수복 나시면 너다섯 시간 썩 살아서 소라를 잡아불민 소라를 씨 멸족해서 이제 소라가 없을 거다 생각헛는디 소 라가 점점 만헤지거든. 워 만허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연구를 헤가지고 알 싸는 기간에는 그 소라를 안 잡아서 알을 싸게 뉘니까 소라를 더 번성해서 더 많헤진 거여. 옛날 그 멍청허던 시절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잡아 만 먹어부니까 소라가 이 잠수복 안 입어서 물에 한 시간도 못 살앙 나올 덕에는 소라 라 얼만이 많을 거 같아도 소라가 없엇거든. 왜냐면은 알 싸는 기간에 소라를 잡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그 알 싸는 그 소라가 없기 때문에 소라가 없어지고. 이제는 잠 수복 입어가지고 뭐 너다섯 시간씩 이제 살아도 소라가 이렇게 많이 잇는 것은 알 싸 는 기간에 소라를 안 잡아서 알이 싸기 때문에 이거 만헤진 거. 그래서 만헤지고. 그러 든 오분작은 다 점복. 저 유월 1일부터 금지 기간이거든. 금지허면은 오분작은 9월 1일 부터 허채허여. 그때는이. 알 다 썩으니까. 그때부터 잡게 뉘고. 소라는 시월 일일부터

이. 소라는 왜냐하면 잘아. 시월 일일 돼기 전에는 싸거든. 크지 못해서 소라가 잘기 때문에 시월 일일부터 그걸 이제 잡기 시작해서 잡는 거야. 시월 일일부터 이제 십이월 십이월 일월들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이월들이. 삼월들부터는 천초 캐기 시작해여. 우리 동네는 천추가 많지 아녀서 소라만 잡고 잊지마는 저 동네는 막 천추를 주로 허거든. 막 그 동네는 막. 멧 봉다리씩 허는 사람은 막 천초에 멧 개월씩 막 시달리기 때문에 그 동네는 막 농스도 아녀고, 전홀동 7튼 사름덜은 농사도 안 지고 천초 물에 만 들거든게. 그디선. 우리 동네는 천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많이 헤 봐야 다섯 봉다리 세 봉다리 허지만 저기는 백 봉다리 팔십 개 구십 개씩 허기 때문에 그거 아주 힘들거든. 여기는 이 우리 동네는 우도 전체에서 젤 빈곤현 동네여. 여기가 살기가 좀 편안해.

1.2.1. 모자반(뫼) 이야기

@ 게른 옛날에 삼춘, 그 뫼 혈 때는 언제 헤났수가?

뫼은 혈 덕에는 이제 음력으로 선들이니까 일월들이지. 양력으로. 일월들 돼지. 그 덕에 뫼 허여. 이제도 그때 허여.

@ 게난 그 뫼 헛던 얘기를 어떤 식으로?

뫼을 허게 돼민 옛날에는. 뫼 옛날에는 돈을 안 줘서.

@ 게난 먹을 때?

먹을 때 그자 캐여근에 기자 끌려근에 출레 출레 허거든. 젓국이 그때는 옛날은 우리 촌말로 출렛국. 뭇젓이나 자리젓 국물이나 냥. “야 뫼국 출렛국 끌령 먹어사키여게. 출렛국 먹어사키여.” 출렛국이 바로 젓국이거거든. 젓갈 국 국물 놔서 끌힌 뫼국이 출렛국. 돼지 근때는 이제는 다 잡아다 주고 이제 잔치도 혈 덕에 허지만. 그때는 다 집에서 잡으면서 혈 덕에는 뫼국물. 뫼국. 야, 뫼국. 도새기 헤가민 “야 뫼국 끌령 먹켜게. 뫼국.” 그것만 사용헛지. 돈은 주어서 팔고 사고는 아녜거든. 허민 이제는 다 돈 주고 파는 때문에 이제 일월들 돼면은 양력으로 일월 들 돼면은 음력으로 선들 돼민 다 캐여가지고 다 상인덜 와서 다 팔고 잊거든.

@ 게른 그 뫼은 이 바당에는 무신 뫼 무신 뫼 납니까?

옛날은 쥐뫼이란 것은 갖에 나 가지지고 건 많이 안 나. 거는 반찬 헤 먹는 거고. 춤뫼은 그자 바당에 막 많이 나던 것이 쥐뫼, 갑실뫼, 헤가지고 옛날엔 뫼뫼덜 죽

물아가지고 비료 없을 때니까 보리밭데 그거 듬북 안 들이든 보리가 안 뉘거든. 그계 막 이제 줌수털은 캐면은 배로 가서 막 건져가지고 막 그런 듬북이 이제 하나토 안 나. 몸도 안 나고. 옛날에는 막 몸이 여기 쳐 나가지고 텅어리지던 몸이 안 나. 그것이 어떻게 다 없어지는가 몰라. 건디 이것이 내 이치 상으로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밧디 농사허는디 농약을 안 씨엿거든. 농약을 안 씨여서 이제는 바다에도 이 약이 오염이 뉘는 거여. 왜냐허민 밧디 농약을 이제 제주제 ㄱ튼 거 검질 죽이는 약을 쳐 놓면 그 거 비가 오면은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내리거든. 바다로 흘러내리민 그 여냥이 잇는 거 같아. 왜 그 듬북 몸이 안 날까 지금. 이 든믄을코에 옛날에는 막 몸이 막 텅어리져 가지고 막 말도 못허게 나던 그 몸이 그 한나 안 나는 것 보민 이상해.

@ 게믄 삼춘, 그 쥐믄은 어떤 거우과?

쥐믄허고 몸허곡 뉘나. 쥐믄은 흐쉴 줌진줌진허곡 부끌레기가 잇는디 그거는 데우 쳐서 반찬 헤 먹는 거. 그건 갓에 나는 딴 나고 안 나는 딴 안 나. 그건 바다 몸이 아 니고 물 싸면은 물 싸는 디 그거 나는 몸. 쥐믄이라고 헤가지고이. 몸 이름이 쥐믄.

@ 춤믄은?

춤믄이 그 그자 몸이고이.

@ 아 건 그냥 몸이고. 갑썰믄은 어떤 생긴 거우과?

갑썰믄은 없고 갑실듬북이 잇지. 갑실듬북, 쥐듬북.

@ 응 그건 어떤 거우과?

그 듬북이 그 종류가 뉘나지. 노랑쟁이 뉘나고 갑썰듬북 뉘나고 쥐듬북 뉘나고. 그 듬북이 그 이름이 그계 옛날 할망털이 우린 모르니까 옛날 할망털이 그 잠녀털이 즈물 아서 거 걸름 우리 헤을 댁에는 이건 갑썰듬북, 요거는 쥐듬북, 요건 노랑쟁이 요건 몸. 그렇게 허면서 헤왔지.

@ 노랑쟁이는 어떤 거우과?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헤가지고 노랑헨 이제 건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밍끄러와. 막 밍끌밍끌허고. 갑썰듬북은 줌 사끌사끌허고이, 쥐듬북은 멘지락허고. 그 물건 자체가 뉘나. 우리 마른 디서 풀입새 이게 각각 이거 뉘나 듯이 바다에도 그래여.

@ 게은 노랑쟁이는 듬북종류우파? 뚝 종류우파?

듬북 종류.

@ 것도 듬북 종류. 게은 뚝은 두 종류구나.

으, 뚝은 듬북 종류가 아니지. 거는 먹는 거기 때문에.

@ 게은 아까 쥐뚝 아니 쥐뚝.

쥐뚝.

@ 쥐뚝북도 있고 쥐뚝도 있고예. 게은 쥐뚝으로는 뭐 허영 먹었수과?

건 반찬해 먹는 거.

@ 어떤 식으로?

확 데우천에근에 무쳐 먹는 거.

@ 확 데우청 무청만 먹어? 거는 응. 게은 찰뚝은?

찰뚝은 내나 것도 무쳐도 먹긴 허지만은 그 끌여먹고 그건. 돛국물에도 끌여먹고 젓국에도 끌여먹고.

@ 게은 젓국에 끌여먹는예 옛날허던 음식? 그 허는 방법을 한번 알아줍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뽕젓이나 자리젓이나 허면은 이제 그 뚝 뽕아근에. 뽕아근에 그 툴류왓당 뽕아먹는 것도 있고. 늘차 쏘아근에 삶양. 삶아근에 먹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젓국에 무치민 뚝이 더 맞셔.

@ 아 경험니까?

뽕젓에. 뽕젓에 무쳐야. 툴도 그거. 이제는 웬장이나 오복간장이나 무치지마는 맛이 옛날은 뽕젓을 뽕젓을 젓국을 헤가지고 김장을 많이 담았거든. 김치 많일 헛거든. 게은 그 젓국에 툴도 무치민 더 맛있고, 뚝도 무침이 무침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그 옛날에는 이제는 고기도 맛 없어. 옛날에는 왜 젓국에[저꾸게] 뚝 끌이민 고기국거찌 베지근

허게 맛이 있는지. 옛날에는. 이제는 떡도 다 버리잖아. 제사떡도 잘 안 먹잖아. 옛날에는 그 보리쌀을 밥을 붓게 해 먹을라고. 사람이 멍청허민 그자. 거 돌궤로 곶앗잖아. 돌궤로 곶면은 그 영허영 체로 처난 그 ㄹ르. 이제는 뉘지도 줘도 안 먹는 ㄹ를 말이지. 걸 옛날은 수제비라고 아녀고 즈베기하고 헛어. 손으로 이렇게 즈베기. 즈베기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잇었어. 옛날은 모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거든이. 그 즈베기헤영 먹어근에 그 ㄹ르로 먹고. 거 왜 돌궤로 곶앗느냐 허믄 통채 밥허면은 붓지 아냐고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헌 거야. 곶앙 힘이나 통차 힘이나 내냥 그 쓸이 그 쓸인디이 웨 그렇게 더운 디 그거 밧데 가서 검질멩 오란 그 이여레 ㄹ레 허면서 ㄹ렐 곶앗는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멍청허여. 그래서 그 이제 돌궤 곶앙 붓게 해 먹는다고. ㄹ르엔 허영 그 보리쌀 곶아다가 돌궤에 그거 곶앙 검평 그 밥 헤영 먹젠허민. 에이고, 세상이 춤 어둑은 세상이주. 옛날 사람덜 멍청허연.

@ 게믄 아까 그 ㄹ 낱 ㅈ국에 그 ㄹ 낱 ㅎ 음식 이름은 무신 거마씨?

ㄹ렛국.

@ 거 ㄹ렛국?

ㄹ렛국.

@ ㄹ렛국. ㄹ렛국 아녕 그냥 ㄹ렛국?

“야, ㄹ에 ㄹ렛국 ㄹ이라. 맛싯다야. ㄹ렛국 ㄹ이민 막 맛 셔.” 옛날 할망덜 ㄹ레엔 허주게. 반찬. 이제난 반찬. ㄹ ㅈ국 경험주. 옛날은 야 ㅈ ㄹ렛국 자리국물 ㅈ ㅈ국물 경 이제 ㄹ치 무신 ㅈ국 무신 거 어 귀긋찬 허기나 허고. 경 알기나 허고. 이젠 아이덜이 다 ㅈ준말 쓰잖아게. 게 옛날은 어디 ㅈ준말 씨는 사름 잇었나게. 헤수강 말아수 광 경?

@ 게믄에 그거는 ㄹ렛국이잖아. 게믄 ㄹ국물에 ㄹ인 국은 무슨 국?

그건 ㄹ국물엔 허주게.

@ ㄹ국물, ㄹ국.

ㄹ국 “야, ㄹ국 ㄹ리라게.” ㄹ국물. 뉘지 잡아 가민 “아이고야, ㄹ국. ㄹ국 ㄹ리켜게. ㄹ국물에 ㄹ국 ㄹ리게. ㄹ국 먹으레 가게. 잔치집의 ㄹ국 먹자게. ㄹ국 먹으레 가자.” 이젠 ㄹ국 ㄹ리는 데가 없잖아게. 아니 ㄹ이 잇어도 이젠 다 저기서 다 ㄹ아오잖아게.

집의서 안 씹으니까. 그거는 집의서 옛날 장작불로 씹아가지고 고기 씹양 건져뒀 수에 담양 수에 그 국물에 씹아난 국물에 몸 낳 끌리민 그렇게 맛이 있었어. 켄디 이제는 수에도 집에서 안 담고이. 저기서 삶양. 이젠 여기서 뚝국물털 안 먹영 다 던져불잖아 게. 이제 먹나 그런 것덜.

@ 그러니까 이제 몸허는 철은 아까 정월에예?

으, 정월에.

1.2.2. 미역(메역) 이야기

@ 게문 이제 그 다음에 허는 거 메역 헤 나지 아녜수과?

메역.

@ 이 우도 바당에는 무신 메역 낫수과?

이던 옛날에는 저 넙메역도 우리 많이 즈물앗어. 넙메역 안 먹어봐실 거여.

@ 예예.

넙메역이 그렇게 넓이가 이만해. 기럭기[기럭끼]가 두 발씩 현 거. 옛날은 그거 막 여수 가서 늘 팔아오고. 그렇게 허민 우리가 넙메역을 그거 즈물앗거든. 게 그거 즈물 어나민 그거 여름에 썸 먹기가 그렇게 맛이 있어. 메역이 빨아서 늘차 썸 싸먹으민 코 소헌 냄새가 나이. 메역이. 그렇게 맛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즈물고. 옛날에는 농사를 딱 끝나면은 갈퀴이 헤가지고 풍선이나 발동기나 막 넙메역 건진다고 막 야단이 대 터지지. 넙메역 바당에 바당에 베가 희영허여. 메역 건진다고. 잠녀로 잠녀는 가서 즈물지, 베론 막 그 갈퀴리로 가지고 건지지. 그거 갈퀴리 꺾어 가민 거 갈퀴에 감아정 올라오거든게. 게문 그렇게 건졌어. 이제는 그런 거 없거든.

@ 넙메역 아예 안 나?

나긴 나도 이젠 팔 유래가 어시니까 안 사거든. 옛날에는 춤메역이. 메역도 상인이 있어가지고 여수 가서 많이 팔아 와가지고. 이제는 사는 사람도 엇고 무신 자기 반찬이나 즈물아 먹지 안 즈물아서 바다에 썸영 내불잖아.

@ 게문 삼촌, 여긴 메역 종륜 몇 종류라?

메역 종륜 다시마, 메역 두 가지야.

@ 으 넙메역이 다시마우꽈?

넙메역허고 다시마허고 뜬나. 넙메역허고 넙메역, 다시마, 춤 메역 세 가지가. 메역 종류도 세 가지야.

@ 여기도 다시마 나?

여기 다시마 나. 하영은 안 나도 가끔 나메.

@ 그 다시마를 이 동네선 뭐렌 불러냈수과?

그 다시마엔 곶아 다시마.

@ 아, 다시마엔 곶아마씨? 아 넙메역 허고 틀린 거?

넙메역 뜬나고 다시마 뜬나고 그자 메역 뜬나고. 다시마렌 그 짱이 없어.

@ 게른 이 우도에서는 메역을 주로 즈물앗던 게 넙메역허고 춤메역?

으, 춤메역.

@ 춤메역은 언제 허는 거우과?

음력 이월에.

@ 옛날 음력 삼월 십오일 허면은 그 메역 해경헌 덴 허영 그런 말?

삼월 십오일 날 뉘여가민 그때 메역도 허주마는 그땐 늦주게. 늦어. 이제 메역 먹기가 좋을 때가 이월이야. 이월.

@ 옛날은 메역 즈물양은에 돈 하영 벌엇잡아예?

아이고, 하영 벌엇지.

@ 그때 얘기 한번 곶아봅서?

그땡엔 우리가 메역을 춤메역 즈물민 시간 당 무레질을 헛지. 시간무레질. 웨 시간

무레질을 헷냐 허믄 바다에 풀을 캐여야만 그 메역이 낫어. 풀 안 캐민 풀이 막 많이 나불민 메역 날 테가 없거든. 그러믄 감태나 무시 거나 막 이 동네 사람들 다 캐여. 그 거 안 캐는 사람은 쫄 내고. 무레질도 못해. 켜디 이제 그거 끈딱 캐어 나면 그 자리에 메역을 나면은 메역을 허채허게 뉘민 날짜를 잡으면서 일기 일기 좋아가지고 그 메역을 말릴 정도 뉘민 그 메역을 캐게 뉘거든. 캐게 뉘면은 풀 안 캐 사람은 메역 캐도 못허여. 캐지도 못허고. 잘허는 사람 못허는 사람 잇기 때문에 시간 안 내놓면은 그뎨 잠수복이 없을 때라.

@ 예예.

없으면은 그때 정이월 물이 차아 가지고 얼어 가지고 시간을 못 살거든. 그러믄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메역을 많이 뜯게 뉘고 나 만허고 어린 사람덜은 메역을 못 뜯으니까 시간을 딱 둔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 분 시간을 딱 뉘서 그 시간 뉘민 고동을 싹 부는 거야. 기를 들르면서 나라 허민 그때 나오지. 그때 그러면서 그 메역을 해서 다 즈물아서 부찌민 상인이 나와. 그 상인은 어디로 가느냐 허민 여수로 가. 여수로. 여수로 풀레 가. 한 낭에 얼마씩이. 한 낭에 얼마씩 해서 가지고 상인에게 팔아. 게믄 그 돈을 그걸로 용돈을 써고 나갔지. 용돈 여기 근때는 이제는 흠 살기가 좋지만 그때는 돈이 날 곳이 없거든. 농사허민 자기 입벧긔 먹을 거 없고. 이제는 마늘 거뜬 거도 해도 돈을 벌고 그때는 제우 해봐야 보리 갈아가지고 자기 입생활. 유채 갈아근에 해봐야 자기 무신 거가. 생활력이 그렇게 에러왔어. 메역 근때는 받으니까 메역 즈물아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용돈 써서 나갔지. 그때 생활력이 없잖아. 이제는 막 전부 다 이젠 다 바당에가 다 돈이 다 뉘 가지고 이제는 살기가 좋지마느는 그때는 살기가 곤란했지 그때는.

@ 게난 삼춘 그것 7라 시간 무레질엔 예?

으 시간무레질.

@ 게믄 여기서 들라헤 갖고.

다 물덕에 다 가서 앉아놓으면 호르레기 싹 불거든. “이젠 빠지라.” “물에 들어가라.” 허민 물에 탁 빠지거든. 게연 막 이제 죽으나 사나 그 이제 많이 헐랴고 지금 막 즈물거든. 그러믄 그 감시원이 있어. 감시원이.

@ 그 사람 감시원엔 험니까?

감시원이라. 감시원이라 허면은 이제 어떻게 허느냐면 물싸민 누게 가서 갖으로 메

역을 이제 캐는 거 보고 툇는 거엔 헛어. 옛날엔이. 이제는 메역 캐카부덴 험쭈마는 에이그 옛날은 메역 툇아 물싸른 메역 툇아벼. 메역 툇아벼. 경허카부덴 감시를 두거든. 게민 물쌀 딱에 감시덜 다 돌아보고. 못허게 허고. 우리 동네 총각놈이 밤에 밤중에 물에 든 거 걸러 가지고이 메역 도둑질허레 가서이. 밤에 가서 경행 도둑질허명 다 경헛지마는 그뎐 그렇게 엄중헛어. 메역이. 그 메역이 중요헛어. 그래서 메역 해놔서 그걸로 용돈을 씨고 나갓지. 팔아가지고.

@ 게민 하루 물질을 몇번 해마씨?

한 번.

@ 게영 딱 이제 즈물아오면? 그거 이제 혼자 못 가정 오잖아?

그게 마중덜 다 가지. 남편 이신 사름덜이고 뭐 없는. 문딱 가서 허민 다 땡기고 바작으로 저 올리고 다 허지. 저 올려놔다가 헤 저물어 가민 널기 시작허믄 아침 세백이 널민 손이 칭칭 다 끊어져. 손 실좌가지고. 막 손 실좌가지고 막 불추면서 메역을 널어.

@ 아아. 경 하난예.

으 하니까. 그렇게 널어가지고. 게연 남으로 부찌가지고. 남 수정으로 세어가지고.

@ 으음. 게민 하나씩 하나씩 저기 부찌마씨?

이 남에 이 남에 멧 개씩 잇으면서 부찌지. 이 정도 부찌지. 게민 한 남에 멧 가닥 들어가주게. 그렇게.

@ 그렇게 부찢 하나씩을 뭐렌 곶아마씨?

흔 낭.

@ 흔 낭이렌 해? 흔 낭에 메역 하나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예?

아니. 흔 너댓 개도 들어가는 거 잇고 서너 개도 들어가는 거.

@ 아 그거를 흔 낭이렌 해?

흔 낭.

@ 게은 몇 개씩 무릅니까? 그거는.

그게 혼 단은 서른 개가 혼 단이거든. 서른 나무 낱 부찌는 게 한 단이라. 그런데 멧 단 허민 혼 단 두 단 헛거든. 이 나무가 서른 냥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댁에는 딱딱 백 냥씩 제여놔. 백 냥씩 세여근에 무꺼근에 딱 사 낱단 상인 오면은 한 꾸미에 한 꿩미에 백 냥씩 딱딱 세 주민 천 냥이민 열 개민 천 냥. 백 개씩 세 놓은 거 열 개민 천냥 그렇게.

@ 게은 백 개를 한 꿩미렌 헤? 여기서. 게은 이 길이에 맞게 헤갓고 이제 부찌는 거라예? 그거 보통 어느 정도헤마씨? 길이가?

이 정도 길이가 말른 거 이 정도 길이가 돼지. 경허면은 좀 질게 부찌민 말르민 줄어들거든. 줄어 들고. 메역이 굵은 것은 혼 세 개 네 개민 혼 냥에 들어가고. 작은 것은 너댓 개 들어가고 경허여.

@ 아아 따로 하나씩 하나씩 부찌진 아녀마씨?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 그런 건 안 하고. 메역 부칠 때는 게민 어디에 부쳤수과? 보통은?

옛날 저 나왔디.

@ 아아 나왔디. 그냥 나왔디 강 그냥 허는 거 뭐 안 낄앙.

에이고 이제는 구물도 낄안 낄지마는 옛날은 구물도 아니 낄곡이. 경 멍청헌 것덜. 경 그자 나왔디 낄어근에이 그 띠 부뜨잖아이. 겨은 그거 다 털구. 아이고 경 멍청. 구물 이제는 구물 다 낄아서 낄고. 갯물가에 다 세멘 허니까 다 구물 낄안 너는디 옛날은 어디 세멘 바닥이 이시냐게?

@2 게은 미역귀는 혼나 쉼 거 아니우과? 혼 냥에.

@ 메역귀?

메역귀예. 메역귀 이시민 여기 잘 안 돌르거든. 근으로 뜨는 거 ㄱ트민 근 나가라고 헤가지고 메역귀를 즈물지마는 빨리 물류기 때문에 메역귀가 잘 안 돌르거든 흐루에. 메역귀 안 즈물아. 메역귀 우로 즈물아.

@ 아아 경행 글로 똑똑?

메역권 전부 바당에 놔두고. 메역 요거 요거 귀다리민 이거 목으로 즈물아.

@2 우리는 메역귀 혜근에?

저기는 왜냐 허면은 거기 근으로 풀잖아요. 저기 이 성산포 그똥 디도 이제 근으로 팔기 때문에 메역귀 혜가지고 거긴 혼 낭으로 막 널어부러. 혼 낭으로 널어가지고 물러가지고 근으로 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안 거든. 틀려. 또 메역도 성산포 메역은 맛 없어. 감태 모양으로 빠드락해가지고. 메역은 온평리 메역이 취고야.

@ 온평?

온평리 메역이 취고 맛있어.

@ 그러면은 삼촌 메역 옛날에 즈물레 가젠 허면 뭐뭐 가정 강 즈뭍니까?

호미.

@ 호미. 그 메역호미를 무슨 호미렌 허여?

중계호미.

@ 중계호미, 으.

중계호미허고 그자 망사리 혜근에 테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 가민 메역은 즈무는 거야.

@ 아아. 그 다음에 이 뒤꾼들이 강 정 날르는 거고.

땡기곡. 마중질허고.

@ 마중질허고예. 게문 이제 그 즈수들은 강은에 거 즈물만 허민 뉘여?

즈물아근에 갓에 오면은 막 땡기곡 퍼근에 집의 저 올리는 것은 남자들이 허잖아.

@ 부찌는 건 그찌허고.

부찌는 건 여자털 허고.

@ 게른 메역도 이렇게 이제 바당에 이렇게 하잖아예. 아까 맨 밑에 부분은 뭐렌 곶아마씨?

메역귀.

@ 메역귀.

덩치.

@ 그 다음에 덩치이.

메역 밑에 덩치기. 덩치기엔 허주 메역귀 밑에가 덩치기.

@ 아 메역귀 밑에가 덩치기.

덩치기.

@ 그 우에는 뭐렌 곶아?

거 메역귀이. 덩치기 덩치기 우의로 즈물라. 덩치기 우의로 즈물라 그거 경허곡. 메역귀 우의로 즈물라. 메역 덩치기 우의로 즈물라. 너무 곱으로 즈물지 말라. 곱으로 허면은 망사리만 어지럽고. 여긴 근으로 안 뜨니까. 건 필요없어. 여기 다 찢라부러. 왜냐 하면 하루에 안 말르면 그게 갈탁해가지고 굶어. 게니까 그거 다 널면서도 메역귀 이시민 다 끊영 데껴부러. 그렇게 조물 택에랑 우의로 즈물아근에 덩체기 우의로 즈물라. 메역귀 우의로 즈물라. 그게 옛날 말.

@ 게민 우에 줄기 같은 것도 이름 따로 불른 거 잇수과?

짱. 메역짱.

@ 메역짱? 그 다음 이파리는?

이파린 그자 메역 이파리엔 허곡. 메역짱. 게연 먼 꼴랭이. 꼴랭이는 그 즘 끊어뵙 널어야 뵙지. 그거는 노랑허영 색자가 희영헤정 안 좋거든. 처음에 자란 거. 커 가며은 그 꼬리가 노랑해져 안 뵙. 거 꼬리는 딱딱 끊어뵙 널어야지 꼬리 부찌민 메역이 허영 헤져벼.

@ 아 게른 만약에 메역이 이런 식으로 뵙면 여기가 메역귀라예. 여기가 덩체기 이거는 메역짱 이렇게 영 허영 뵙 거 아니예?

꼬리 부분을 끊어뒹 널어야 뒹여.

@ 아 이거를 꼬리엔 헤?

으, 꼬리. 메역꼴랭이. 야 메역꼴랭이 끈지 아너부난 메역 희영헤변 메역 못 씨켜게.

@ 메역꼴랭이?

으 메역꼴랭이. 메역꼴랭이 끊어불라게. 메역꼴랭이 끊어뒹 널라게. 그계. 겐디 여기 도 메역귀 영 들민 불턱에서 막 구윙 먹주게. 겐디 여기는 남으로 널기 때문에 메역귀 들면 안 좋주게.

@ 그것도 다 지역에 특색이 있는 거라예.

저기는 메역귀를 부쳐야 근이 나가기 때문에. 근으로 뜨지. 여기는 남으로 메역 한 남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는 근으로 허기 때문에 메역귀를 부쳐야 근이 나가고. 게 그거 귀역마다 뜨나거든.

@ 우도는 그런 식이 없어예.

없어.

@ 그 메역 즈물양은에 그 아까 녁메역도 그런 식으로?

녁메역은 귀가 없거든.

@ 아아 녁메역은 귀가 없수과?

가운데 팡만 잇어. 팡이 잇는 거 잇고. 이 늙은 것은 가운데 팡이 잇고. 경 아년 것은 팡이 없어 전부 다 메역만 멘지락허여. 게여 그것은 널기 좋아. 탁탁탁탁 널어서 그 건 그자 근으로도 떠서 나간 사람도 잇고. 남으로 세서. 옛날에는 막 녁메역 춤메역 막 춤 시가가 잘 그땐 그.

@ 그게 돈이라야.

그걸 행 살앗지게.

@ 아, 게은 춤메역으로 헤영 먹는 음식은 무슨 거 어떤 음식이 있어마씨?

춤메역으로.

@ 으.

으 해서 무쳐 먹고. 꿏여 먹고.

@ 춤메역으로 허는 음식? 만약에 메역 저기 무친 거는 여기선 뭤렌 허여. 반찬 일름.

메역무침.

@ 메역무침. 끌린 거는?

끌린 거 내낭 끌린 거엔. 메역국 끌린 거.

@ 메역국 끌린 거. 녁메역은 뭤형 먹어?

녁메역은 싹 싸 먹지.

@ 아 거는 싹만 싸 먹는 거. 국 끌려 먹거나 이려진 앓고.

아, 국도 끌려 먹어.

@ 아 경해도 이제 그렇게 저 뭤허진 안 현다는 거구나.

춤미역만인 안 먹주게. 국은 춤메역만이 끌령 안 먹지게. 여름에 싹 싹, 밥 싹 먹기 가. 이제는 싹 싸 먹는 거엔 허지이. 옛날은 밥 싸 먹엄쩌게. 밥 싸 먹으면 맛 셔라게. 밥 싹 먹게. 밥 싹 먹으라게. 경 허쥬. 싹 싸 먹으라 허는 말은 건 이제야 나는 말이고.

@ 맞수다. 맞수다.

옛날 할망덜이야 어디 싹 싸 먹으라 허는 말이 있어. 밥 싸 먹으라 허지. 출렛국. 경행 이제 젓국 놈근에 끌령 먹으라 허지. 출렛국엔 허는 사름이 어디 셔. 출렛국. 옛날은 “야, 출렛국. 출렛국 끌리난 맛 셔라.” 경허쥬.

@ 게문예, 아까 삼춘. 메역국 할 때는 주로 뭤 놋은에 끌령 먹습니까?

뭤나 뭤. 메리치도 놋근에 놋 먹곡 뭤. 웬장국엔 메레치도 놋 먹곡. 출렛국엔 그냥

출례 젓국만 낡 그자 끌여먹고 경허주.

@ 메역도 출렛국 헤여 먹어?

어 젓국 낡 끌이민 맛싯지. 옛날은 메역에 자리젓국물이나 멜젓국물 놔놓민 궤기국
꺾치 경 맛싯어. 무수보고 늣삐엔 헛거든이. 메역에 늣삐 서터놔근에 출렛국 끌리민 경
맛싯텐 잘 먹엇저. 두 사발씩.(웃음.)

@ 게난 제주도도 널러마씨?

널르주게. 성게는 이제난 성기국을 먹엄쥬 옛날에 어디 성기국은 잇엇수가게?

@ 허지도 안 햐?

성기국 잘 허지도 아년. 허민 그자 영 지정이나 흐썰 먹곡 뉘헛 헛주. 메역에 경 주
로 허게 끌령 먹어서게.

@ 아 성기도 지정 먹어?

어, 다마네기 농곡 허영.

@ 성기를?

반찬 허영은에.

@ 아아 경 헤낫수가?

으. 어 옛날에 다마네기 농곡 허영 지정은에. 밥 부병 먹곡 지정도 먹곡.

@ 게믄 다마네기는 요즘에 나온 거 아니우과?

에 다마네긴 옛날부터 나와서.

@ 얼마나 고급을 그냥 지정 먹어부러?

옛날은 돈을 안 샷잖아게.

@ 그러니까 그건예?

사가는 사름이 엇이니까 먹음벧긔 더 허나게.

@ 맞수다.

이제나 이제난 돈 주주. 옛날은 고동도 돈 쥘 안 사불민 잡아다근에 젓담아근에 막 집의 식구덜 먹곡. 헛국도 해근에 냉국 해근에 좃국도 해영 먹고.

@ 고동으로?

으. 소라죽도 썩도 먹고 헛주.

@ 옛날부터 경 고동죽 해난?

아이고 고동죽이 얼마나 맛 시냐게. 죽도 썩 먹곡게.

@ 돈주는 건 아니니까. 옛날은예.

돈 안 주니까 다 잡아다 먹엇잖아. 그때 옛날에는게. 돈 주는 사름이 먹음벧긔 더허 나게.

@ 게문 그 아까?

젓갈. 젓 벨쳐 젓 담아근에.

@ 고동으로?

젓 담양.

@ 그 무슨 젓 헤?

고동젓.

@ 고동젓. 그 다음은 고동으로 좃국 행 먹으민 좃국.

으 좃국.

@ 그냥 고동좃국헵니까 그냥 좃국헵니까?

그자 고동좃국.

@ 어 고동춧국.

냉국.

@ 냉국예?

냉국 헤영 먹고 죽도 썰 먹고.

@ 게른 거는 무슨 음식?

소라죽. 고동죽.

@ 고동죽.

구쟁이. 고동엔도 허곡 구쟁이엔도 허곡.

@ 여기도 구쟁이엔 헤낫수과? 옛날.

응, 여기도 구쟁이엔도 헤나서.

@ 건디 요즘은 구쟁이 말 안 해서 다 고동이엔?

게 이젠 다 표준말로 씨잖아게. 옛날은 고동 구쟁이엔 헛지게. 옛날 할망말이 옛날 할망 말이 구쟁이라.

@ 고동보단도예?

으, 구쟁이 구쟁이가 그거라. 고동이. 이젠 소라 소라 허거든. 이제 옛날 할망덜이 소라 허민 저승 가서 소라엔 허민 소라가 뵈인지 몰라. 옛날 할망덜 소라엔 현 이름도 못 들어봤잖아.

@ 그렇지예?

고동, 구쟁이.

@ 그러니까 삼춘도 소라허민 안 뵈주게.

구쟁이허곡. 구쟁이허곡 고동. 그것이 바로 제주도 사투리 옛날 사투리.

@ 그런 게 필요해 나는.

그러니까 고동, 구쟁이.

@ 계난에 삼춘 아까 메역은 이월부터 즈물안. 언제까지?

근때 삼월꺼지 이삼월에 메역은 즈물거든게.

@ 아, 이삼월에 즈물고.

이삼월에 두 달 정도 즈물고.

@ 그 다음에 녁메역은 언제 즈무는 거?

녁메역은 오월 뒤편사.

@ 아 건 또 계절이 틀려예?

계절에 따라서이 오월 뒤편사.

@ 오월 뒤편은예. 게근 오월에서 언제까지 그거는?

오월 뒤편서 흔 얼마 지레 안 가.

@ 아 그렇게 해서.

흔 보름간.

@ 그거 녁메역은 플랫폼도 빨양은예 밥 쌍먹는 거?

밥 싸 먹는 거.

1.2.3. 등북 이야기

@ 아 그러면예 오월까지 온 거라. 그 사이에 아까 그 춤뭉하고 쥐뭉 말고 등북들 즈무는 계절은 언제우과?

등북 계절에 오른 메역허기 전에 이삼월에 삼 이 삼월에.

@ 이삼월에? 게문 그때 그 듬북 즈물양 밧디에 저기 행 그거를 혼번 곶아쥐 뽕써?

그거 듬북 즈물양 놀어놔. 놀어놔다근에 구시월에 구월에 보리 갈 댁엔 밧 갈양 그 고랑에 이렇게 깔아. 막 날루면서. 그걸 막 듬북 혼 폐기민 밧로 뽕으면서 고랑에 깔젠 허민 막 일거리가 생겨. 거 뭉텅이 진 듬북을 막 붓게 씨자고 막 날라가지고 막 질게 시리 막 밧로 뽕기면서 그 고랑에 다 깔양 그 우에 이젠 보리씨 뿌려가지고 이젠 밧 그걸 이젠 다 이제 막으는 거야. 막아서 보릴 해 먹는 거야. 이제는 씹어빠져도 아녀는 디. 듬북.

@ 으음. 경 혜영 그걸로 비료로.

거 이제 바당에 이제 삼스월 뉘가민 듬북몰레가 터가. 바당 가운데로이.

@ 그거 무신 거?

텅어리. 듬북몰레 텅어리. 게가면 막 히여가 가지고이 그 듬북을 막 밀려오는 거야. 막 밀려와. 게민 막 잠녀 즈수들이고 우리 어릴 댁에는이, 듬북 떠오라가민 “저거 나 거야. 나가 므녀 봤져. 저거 나 거여. 나가 므녀 봤져.” 혜염쳐 강 그 몰레렌 허거든. 듬북몰레.

@ 듬북몰레?

몰레. 그걸 막 이제 건저당 허곡. 놀 불어가민 공쟁잇대. 대에 이렇게 아궁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 올 댁에는 쉼가죽 ㄱ에기. ㄱ에기라고 헤여이. 구덕에 영.

@ 예 구덕에 바치는 거.

바치는 거이. ㄱ에기 해근에 공쟁잇대 들르곡 브름 쉼는 디 파도에 듬북 혼 폐기씩 이렇게 올라가민 그 공쟁잇덜 호 혼 폐기씩 이렇게 건저왔거든. 건저서 한 바구니 해서 지어근에 집의 오랑 널엇당 들랑 놀엇다근에 그레 놀엇당 새해 씨곡 경헤나서. 옛날엔 그렇게.

@ 그렇게 듬북들 눈 놀을 뉘렌 헤여?

듬북놀.

@ 듬북놀?

1.2.4. 우뭇가사리(우미) 이야기

@ 게메마씨. 삼촌 이제는 우미 즈물게. 우미는 언제 즈무는 거?

우미게 이삼월에게. 삼월에.

@ 아까 우미는 안 곶안 와전.

우미 삼스월에 삼스월에. 삼 스월에.

@ 게민 우미 즈물안 난 얘기 해줍서?

우미 즈물민게 삼스월에 즈무는 거주게.

@ 건 우미 즈물레 가젠 허민 뭐뭐 준비행 가?

우미 즈물레 가민 망사리가 족으민 조락. 족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즈물고. 망사리 그득으민 그것에 즈물곡 그거. 그것벧긔 준비할 거 없어.

@ 게니까 우미 헐 때는 호미로 안 허는 거잖아에?

손으로 그자. 손으로 뜯는 거.

@ 뜯는 거. 게민 우미는 뜯는데 헉니까? 맨덴 헉니까?

아, 우미 곳으로 물쌍 가는 건 메는 거엔 허고.

@ 예에.

바당에 드는 건 우미 즈무는 거엔 허고.

@ 아, 것도 틀려예?

으, 즈무는 거.

@ 손으로만 이렇게 허는 거.

으 허는 거니까. 우미 즈물레 오늘 즈물 거예. 널 우민 즈문덴. 사람들끼리. 우미 뜯는덴 허기도 허고 즈문허레 가는 것이 우미 즈문덴. 또 곳으로 우미 메레 간덴. 널은

으뚱물이난에 굿우미덜 땀 거엔 헤라게. 우미 땀 거엔. 우미 캐레 간텐도 혹 허기도 허
주만 우미 메레 가는 것이 주로 허주 그 말이.

@ 옛날에?

메레 간텐.

@ 게믄에 우미 이제 메든 즈물든 행 오면은 어떻게야 됩니까?

그것도 남자들이 다 마중헤여가지고 널주게. 널영 물리믄 뉘는 거난 그건.

@ 널어 뉘령은에 이제 푸는 거?

그건 저장헸다근에 어촌계에서 판매허영 오닐 뉘이나 모리나 어촌계에서 이제 검사
혈 거엔 허민 집에 헤낫당 봉다리에 담양 다 근으로 떠냥은에 어촌계에 바찌는 거.

@ 건 근으로 멩 풀앗수과? 건 혼 근에 어느 정도 헤?

그거 한 마다리에 31킬로 걸차. 삼십일 키로 삼십키로. 삼십키로에 올히 십이만원
갓젠 헤냐 일등이.

@ 게믄 옛날에 우미도 한 번에 딱 나는 거 아니잖아. 게니까 여기 완 보난 어떤 딴 뉘 일번초여
고장우미여 무신 거.

저 일번추 헤냥 우미가 이젠 얼추 뜰어질 거 아냐. 없으며는 키웁는 거야. 좀 키왓
당 이반추, 이반추 뜰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삼반추는 마지막.

@ 요즘 허는 게 삼반추?

요** 게 삼반추. 마지막.

@ 으. 게믄 일반추 이반추 삼반추하게 뉘면.

까격도 차이나지.

@ 아 까격도 차이나? 어.

검사혈 댁에도 ㄱ픈 일반추에 뜰은 물건도 ㄱ픈 바당에 현 것도 검사원들이 그지**

더라고. 일등 주당 이등도 주구 삼등도 주구.

@ 어, 똑같은 것도.

다 그쁜 물건도.

@ 거는 거 뭐?

거 거 그거 저 검사헌 그 직업이 그건 생이라. 그거. 주는 그 프로 수가 있는 모양이라. 멧 개는 일등 프로 수 이등 프로 수 삼등 프로 수 허민. 재수 좋은 사람은.

@ 일등허고.

일등으로 먹엉 넘어가고. 으작인 나 우미 안 즈물앗주게. 안 즈무난 작년 거 쪼끔 이신 건디 한 물거리 즈물안 하나 앗앙 가니까 삼등을 딱 주젠 허더구마는. 검사원신 디레. “검사원님 나 늙은 너댓 개 허는 디 이거 하나 작년 거영 채완에 하나 저 나 양 심껏 이거 작년 우미라부난 검사원 알앙 줍써?” 헤난, 삼등 주난. “이거 하난디 삼등 주쿠과? 이등이라고 줍서.” 허난 이등 주더라.

@ 말값 헛네?

말값으로 이등 주더라.

@ 게근에, 그렇게 헤영은에 옛날은 경허영 풀잡아야. 집에서 허젠 허면은 그 과정이 잇잡아예. 그 뭐 우미행은에 먹젠 허면은 무신 걸 허영 먹어. 어떻 허영 먹어?

발레영.

@ 어, 게민 우미 즈문 거부떠. 딱 강 우미를 즈물아예. 그때부터 순서를 쪼 해서 우미 가져서 음식할 때까지.

우미 즈물앙 이제 으름에 먹을 거. 집에 오랑 자꾸 빨면서 널거든. 빨면서 널면은 메칠 널면은 허영케 발레지면 그게 삶아가지고 물 걸러서 하룻 밤 재 노면 그것이 튼튼해지거든. 튼튼 얼러지면 그거 반찬도 헤 먹고 우무 뺏도 행도 먹고 헐 거 주.



[사진 2] 우미 널다

@ 그렇게 헝은에 만들어진 거를 뭐렌 곶아?

우미묵.

@ 우미묵? 그냥 우미렌 아녕 우미묵 헝니까? 여기서.

우미묵엔도 허곡 우미엔도 허곡 경헌다. 그건 말이 으라 가지.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도 우리 제주도 사투리가 많잖아게.

@ 예예.

이거 옛날은이 아이고 마리아. 마리. 삼방에 허거든. 옛날 할망덜은. 삼방엔 허거든. 삼방. 방. 방. 구둘. “저 구들에 들어가라.” 어디 소님 오민 “에이그, 구들에 들어옵서게. 방에 들어옵서게.” 그거 이거 말이 거 여러. 이 ㄱ픈 말이라도 영 허민 뉘곡 저영 허민 뉘곡.

@ 거난 삼촌 이젠 요즘 그것도 들르면 발레면 하얗게 뉘야 뉘는데 어떤 것은 파란 색깔 나는 것도 있더라. 건 무사 경허는 거?

파란 색깔 나는 것은 두르 발레지니까 그렇지.

@ 아아.

거는 더 발레야 뉘지. 하얗게.

@ 아, 하얗게 발레는 거는. 게영 그거 막 비 맞거나 이러면은.

비 맞앙 허민 골 빠지민 맛이 없주게.

@ 아아.

그것도 바싹 들립곡 바싹 들령 비 오라가민 들이곡 헤사지. 비에 내병 비에 맞이민 그 진기가 빠져불민 맛 든 게 쏘으민 맛이 없어. 맛이 없어. 그걸 알아야 뉘여. 게영 비 오라가민 견어야 뉘여. 어떤 사람은 널어 내불거든. 맛이 없어. 맛이 글러. 이 푸는 것덜 막 우미 발레 푸는 디 가 보민 비가 와도 널영 내불고.

@ 느냥 내불고.

흔 맛이 가불어. 맛이 천지 차이여. 집에서 이제 조금 발레가지고 정성시리 물에 시

경 널엇당 헤빛에 바싹 들렁 들엇당 또 발렁 넌 맛과 널어 내병은에 거 그 비에 막 진기가 빠져불영이 여냥가 빠져불민 맛이 없어. ㄱ픈 음식이라도. 우뭇가사리라도 맛이 없어.

@ 게민 삼춘 그 우미 행은에 우미묵 만들엇잖아. 우미묵으로 헤 먹는 음식은 뭐뿔 헤먹어 낫수가? 여기서는.

우미묵 그자 벨 거 안 먹어봤저게. 도토리묵거찌 그자이. 우미 썰영 오복간장에 마늘 헤 놓고 양념 헤 놓고 짝어 먹곡 무쳐 먹고 그자 집의서 그지 우미 콩ㄱ르 놉근에 그자 휘거치 그자 우미 행 먹는 거 그치룩 행 먹어낫주. 벨 거 우리 즐겁게 안 먹어봤저.

@ 그런 음식을 뭘렌 곶아마씨?

무신 거엔 거 우미 쏘은 거 그자 먹겐 경 허곡. 그자 우미묵 행 먹게 그 말이주 거 벨 말 엇다 것도.

@ 나 요번에 그때 우미 헐 때 사진 찍엇잖아예. 종류도 막 으라 가지 잇어라. 우미예.

청우미 잇고. 청우민이 풀이 잘 안 나. 그건 잘 받도 아녀. 청우미 잇고 그자 우미 잇고. 돌우미도 것도 우미도 세 가지야.

@ 게른 청우미?

돌우미.

@ 돌우미.

그냥 우미.

@ 게른 세 가지. 우리가 썰 먹는 거는 우미?

강추도 잇어. 네 가지야. 강추꺼지.

@ 강추?

강추. 우미도 강추도 잇고이. 우미는 네 가지 종류여. 강추, 청우미, 돌우미, 그자 우미. 네 가지야.

@ 으음. 게문 어느 게 젤 맛 좋은 거?

그자 우미가 맛 신 거지.

@ 으 그자 우미가 맞신는 거고. 강추는 어떤 거우과?

강추는 좀 까실까실허고 돌우미 비스듬헌 건디 그건 그자 하지는 아녀. 건 가끔 잇고. 청우미는 맛이 없이. 한천에서도 청우민 안 받아. 건 맛이 엇고이. 발렌에 우미 삶아보니까 맛 엇언 비와부렀다. 게니까 이거이 한천에서 이거 아념구나 헤지더라. 나 작년에 한 그걸 누게 주길래 발래연 삶으니까 못 먹 췌더라. 발래연 데껴벗저.

@ 게문 청우미 우리가 이제 청우미하고 춤우미하고 영 구분할 수 잇을 때 청우미는 어떤?

청우민 흐쫄 까실까실허고 푸리고이 까실까실 푸리고 그갓 우미는 발강허고 좀 멘 지락허곡 경헌다.

@ 그 다음에 돌우미는?

돌우미는 갓에. 쥌쥌헌 거 갓에 물싸는 디 그거 돌우에 거.

@ 돌 우에 거니까 돌우미. 게민 돌 우의 거나 바당에 우미 거나 거의 비슷한 거?

비슷한 디 뜯나지. 돌우민 즐고 더 크지 아녀는 거. 쥌 거.

@ 그거는 이제 둘 다 먹는 거?

먹긴 먹어. 거.

1.2.5. 기타 바다풀

@ 먹는 거예. 것도 종류가. 이거 말양도 바당에 이제 나는 이 바당에 나는 풀들 핫지예. 삼춘 생 각나는 거?

풀 핫주게.

@ 으, 뭐뭐 잇수과?

무신 거 뭐뭐.

@ 먹는 거는 어떤 거 있어?

먹는 건 뭐 벨 풀 었어. 여기 먹는 거 옛날 7치 찰포레 잇어시민 가시리 찰포레 넵페. 저 뿔고. 저 무신 거 잇어벗저.

@ 도박도 잇고.

어. 도박은 먹지 아녀주. 건 풀. 도박풀이 쥔 좋아.

@ 거 풀은 나중에 허고 먹는 게 가시리.

가시리.

@ 넵페.

넵페. 메역세.

@ 메역세.

으, 메역세. 그거주게. 찰포레 옛날 잇어난 게 찰포레. 그거주게.

@ 게른 요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헤영 먹어?

가시리국 웬장국 배추 헤 놓고 헤영 끌리민 고기국보다 맛 좋다. 웬장에 가시리 메여 놔근에 배추 뜯어낱 국 끌리민 두 사발씩 먹나. 고기국이 저레 들으렌 현다.

@ 것도 가시리?

응. 가시리.

@ 것도 가시리?

가시리국이곡이. 옛날 찰포레 이젠 개포렌 하지마는 찰포레 것도 농약 탓인가 이제 찰포레 안 나. 그 찰포레 헤다가 웬장국에 헤서 늘 먹엇잖아게. 국거리가 그거 먹엇지. 넵페 씹아근에 문대겨 낱 웬장국 끌리민 그렇게 맛시잖아. 옛날 콥대산이 싱글 떡에 콥대산이 매당은에 썰어 농곡 헤영 넵페국 끌리민 얼마나 맛 시나. 고기국보다 더 맛셔. 이젠 넵페도 잘 안 나고. 이제 메역센 나.

@ 메역센 나고. 메역센 어떻 허영 먹어?

메역세 해당은데 삶아가지고 것도 웬장국 끌렁 먹으믄 맛있고.

@ 삶은 다음엔 웬장국 끌리는 거.

웬장국 끌리는 거.

@ 게믄 넙패로 끌리민 넙패국이렌 헤?

넙패국, 메역세국, 가시리국, 프레국.

@ 춤포레국 건 프레국?

프레국, 가시리국, 메역세국, 메역국.

@ 메역국. 그난 바당 걸로 다 그렇게 헤 먹는 거라예?

다 헤먹는 거주. 옛날에는 이제는 그런디 숨허고 귀허고 잡아다가.

@ 예.

막 도고방에서 빵는 거야. 그대로. 안 까고.

@ 아 안 깡은예.

안 까고 빠사가지고 이젠 물 놔서 그 물을 딸르는 거라. 딸라서 좁쌀 낱 죽을 쑤민 그렇게 맛이 있어. 이제는 귀 ㄱ튼 것도 알맹이만 까먹잖아. 옛날은 다 죽쑤는 데 그것을 톳아. 톳아근예 그 물로 다 행 그 물을 딸라놔. 톳이든 무신 거든 골라왔고. 그 물만 딸라놔가지고 좁쌀. 쌀도 아닌 좁쌀 낱 죽을 쑤민 그렇게 맛이 있었어. 숨영 헤 낱 맛이 있었어.

@ 건 무슨 죽?

그거는 성기죽. 저 숨죽 숨죽 해근예. 숨죽.

@ 게믄 귀나 숨이나 ㄱ치 서꺼냥예.

서터냥 경 허는 거. 맛있게 먹었어. 이제는 그런 거 먹으민 추접허영 먹도 아녀.

@ 한번 나 먹어봐시민 좋으커라.

좁쌀 낱 모인좁쌀에 낱 죽을 쑤민 그렇게 맛이 있어. 옛날에는 모인좁쌀 물 컷다가 도고방에에 뿔아가지고 쫄 하나씩 낱 죽 쑤도 그렇게 맛있었고. 께 옛날 검은깨 헛거든.

@ 검은깨도 헛숫수가? 옛날에는.

옛날은 다 검은께지 노랑께 이런 흰께 없었어. 검은께가 그렇게 쿠시고 여냥이 잇고 지름이 만에. 검은께 이제 해서 쌀에 같이 시쳐가지고 뿔아서 죽을 쑤민 그렇게 बे지근 행 맛이 신디 이제 께죽들은 쑤민 맛이 었어. 맛이 없어. 옛날 거. 옛날 옛날 음식거찌 맛신 게 었어. 에 이제 좁쌀도 옛날 ㄱ찌 히린좁쌀이 었고. 옛날 찰찰 히린좁쌀 저 보리쌀 에 낱 밥허민 그렇게 찰정 그렇게 맛싯더만 이젠 그런 게 없어. 그런 음식들이 안 나와.

@ 경허니까예. 게난 것들이 다 었어져부는 거주게. 이렇게 삼춘이 영 튼넝 곱아주니까 아 그런 것도 잇었구나 허주 우리는 모르잖아.

없어져 없어져. 에로와. 에로와.

@ 게문에 아까는 저기 한 거고. 도박 현 풀 허는 것도 으라 개 짚아?

가시리풀도 좋고이. 도박풀도 좋고이. 지꺼리.

@ 찌꺼리?

으 지꺼리풀도 좋고이.

@ 지꺼리도 풀허는 거? 어.

지꺼리풀도 좋아.

@ 지금도 그거 다 즈뭍니까?

다 이제 지꺼린 갖으로 매는 거고. 도박 즈무는 거고. 다 잇어.

@ 득고달은 뭐우과?

득고들은.

@ 이 바당은 엇어예?

우리 바당도 잘 안 나. 태풍이나 불어나민 나주. 없는디 독고달도 그건 상강. 것도 먹는덴 헤라. 것도 먹는 걸로 만든덴 헤라.

@ 여기선 먹어보진 아녀고?

여긴 안 먹어본 디.

@ 옛날 그 육지 물질 갈 때는, 육지 물질 갈 때는 무신 거 주로 허레 간 거우과?

옛날 육지 우미 도박 메역. 육지 가면.

1.2.6. 무레질

@ 육지 가면 그거 세 개예? 게믄 아까 이제 유월까지 형은에 헛잖아? 그 다음에 이런 바당에 해 초 즈무는 거 말고 허는 물질은 무슨 물질 헛수과? 여기서.

아녀여. 이제 아녀. 금죽허난 아녀.

@ 이젠 금지허면 금지 풀면 허채허면?

허채허민 게믄 내낭 오분작. 오분작 허곡 오분작 낫나민 고동허주 여름에 무레질 안 허여.

@ 게니까 그런 물질 고동 허고 오분작 허는 물질 여기에서는 무신 물질 헤마씨? 그거는.

내내 오분작무레질허고 소라무레질엔 허주. 고동무레질 허젠.

@ 아 고동무레질. 오분작무레질. 어 그 다음 저 뭐는 안 헤. 헛물에 이런 말은 안 써?

헛무레도 허주게. 헛무레. 헛무레엔도 말이 여라 가지로 허주게. 곤는 사름이. “야 널 저 고동 허채헌덴 헤라.” 허고. “널 저 소라 허채헌덴 헤라.” 허고이. “헛무레 헌덴 헤라.” 이거 말이 여라 가지기 때문에 거 곤는 사름마다 다 뜬나.

@ 여기도 뱃물질 헵니까?

뱃무레질 아녀는디 우리 저 등대 뒤에 ** 쓰메 가민 배로 실러다 주주.

@ 게은 이 천진동 지금에. 여기가 천진동 무신 천진리잖아. 삼촌네 사는 덴 여긴 무신 동?

동천진동.

@ 동천진동. 게은 동천진동에서 쪽 저 물질하는 게 하는 게 그거.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거 말고 삼촌 무례질 허명은에 쏘아본 궤기.

궤기 옛날에야게.

@ 저기 소살 헤영은에.

작살 헤영. 작살 헤영은에 잘 쏘앗주게. 쫓았을 댁에 막 소라 안 잡을 댁엔 막 고기 무례 가근에 고기도 쏘아당 먹곡게. 막게.

@ 그때는 고기무례엔 헤?

으, 고기무례. 우리 고기무례 가게. 고기무례 가게. 궤기 썬레 가게.

@ 주로 어떤 거 헤영 왓수가? 삼촌.

게 가민 막 궤기도 썬아당 먹곡게. 막게.

@ 게난 궤기 종류?

종류 뭐 구릿도 썬곡 뭐. 우럭도 썬곡, 논쟁이 ㄹ똥 것도 썬곡 뭐. 다금바리도 썬곡. 이젠 불바리 안 나. 옛날엔 불바린 많이 나는데. 불바리 뭐 객주리 뭐. 다 종류에 따라 뭐 다 썬아당 먹주게.

@ 그거는 고기무례엔 허고.

고기무례. 헛무례. 소라 잡는 건 “헛무례 가게.” 허고이.

@ 예에.

“헛무례 가게.” 허고. 이건 우리 “고기무례 가겐.” 경허주.

@ 게난 다 이름이 있는 거라예.

이름 다 있는. 이름이 여라 가지라부난 영 곤은 사름도 있고. “야 헛무례 가게.” 경

허는 사름도 있고. “야, 소라 잡으레 가게.” 경허는 사름도 있고. 거 말이 다 쫓나 사람마다.

@ 삼촌 이렇게 이제 물질헐 때는 이제 바당 놀 부는 것도 봐야 되고예. 파도도 보고 물때도 다 보잖아.

“오널 이제 들물 낫저.” 허고. “강이, 야, 들물 나기 전에 쓸물에 우리 재게 들게.” “우리 쓸물 우의로 가게.” “야, 들물 오늘은 물때가 늦으난 들물 빨리 나키여.” “오늘랑 저쪽 들물 우의로 가게.” 다 그게 다 쫓나.

@ 여기 바람 이런 것도 허지만 옛 속담. 그 잠녀 잠수들과 관련된 이런 속담들도 하영 글지에. 할망덜. 속담 이런 거는 안 들어봐?

무신 속담 잇어?

@ 뭐뭐 허지 말라 허는 거.

무시 거 허지 말라 거 저 허지 말라 허는 건 무신 거 벨다른 거 없어.

@ 삼월보름 물찌엔 뭐 그런?

걸 삼월보름 물찌엔 “오늘 굿우미 멘텐.” 경허곡. “굿우미 멜 거” 경 허고. 우미 저물싸야만 그 갓으로 메는 우미덜이. 오늘 이번 삼월 보름 물찌엔 “굿우미 멘텐 경허곡.” 툴이 그까지 안 웹직. 그까지 다 못험직 허다 허곡. 툴. 툴을 물찌에만 허잖아. 여기 두 물찌 허기 때문에. 건디 그 툴 삼월 보름 물찌에꺼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이 파도가 썬영 못헐 때 비가 오고 못 헐 때는 삼월보름 물찌꺼지 툴이 가.

1.2.7. 툯(툴) 이야기

@ 아, 아까 툴 얘기는 안 헐 거 닻다예?

툴, 툴늑물.

@ 으, 툴늑물은 언제 헤갓고 어떻게 허는지 글아줍서?

그것도게 이삼월에.



[사진 3] 툴

@ 예예.

이삼월에꺼지 허는 거주게.

@ 음 아까 툄은 물찌에 헌덴 헛잡아. 그 말은 무슨 말이우과?

물찌에. 물씩 덕에만.

@ 아 물쌀 때만?

으으. 건 물은 들면 툄은 못 캐니까. 물쌀 때만.

@ 으 그 물찌라는 게 물 쌀 때?

날새감** 허는 것이 물찌. 물 내려가는 것이 물찌이. 물 쌀 때 허는 거 물찌. “야, 이 물찌에 다 못 험직허다. 새 물찌꺼지 툄 헤여짐직허다”게. 그것이 바로 물 싸는 거.

@ 아아 물찌라는 말이 물 싸는 거구나. 게근 물쌀 때는 멧 물부터 허는 게 물싸는 거우과?

우리가 툄허기 시작하면은 일곱물날 으덥물날 게난 빨리 허민 우리가 무레질이 일곱물날꺼지 꺾이거든.

@ 예예.

일곱물날 허민 으덥물부면 무레질 아녀는 날이야. 건 쉬는 날이야. 그러면 잠녀들이 주로 이제 툄을 많이 허기 때문에. ** 욕심이 그러잖아게. 오늘꺼지 무레질 해나가지고 널부터 으덥물날부터 허게. 일곱물날꺼지 무레질 해나서 으덥물날꺼지 꺾이거든. 으덥물날 아홉물날 열물날 삼일간 허는디 좀 말싸는 물찐 열물날꺼진 해여. 저 나흘꺼진 해여. 경허민 흐 물찌에 다 못허민 두 물찌에꺼지 걸령 허지.

@ 아, 흐 물찌는 물싸는 날이면 일곱물부터 열물까지를 흐물찌. 그 다음에 다시 그때 으덥물 오면 새 물찌 영허는 거.

두 물찌 다음 물찌이. 두 물찌. 아메도 두 물찐 걸려사키여. 흐물찌 허젠 허민 내나 그 물찌에 꺾나민 흐 물찌고 또 그 물찌에 다 못험직 허민 다음 물찌 허젠 허민 두 물찌꺼진 헤삼직허다. 그것이.

@ 게문 삼춘 하나 또 물어보지예? 물찌라는 게 물싸는 거잖아. 여덟물도 두번이 잇잖아. 한 달에.

으. 두 번.

@ 예, 두 번 잇잖아예. 게문 이번 물찌 허는 거는 언제?

이번 물찌 허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뭍물찌 허게 뉘민 그물엿 허민 이제 또 다음 이제 초싱에 이제 또 물찌가 돌아오민 두 물찌가 뉘는 거고.

@ 예.

또 이번 이 달에 예를 들엿 초싱 물찌 허게 뉘민 이 들에 두 물찌가 허면은 그 들 한 달에 두 물찌 뉘는 거고. 그런 거.

@ 두 번 물찌, 세 물찌는 없는 거네예.

두 물찌.

@ 예, 두 물찌만 잇는 거. 아 싸는 거를 물찌. 정확하게 그걸 이제 이해를 헛다. 여기에는 여덟물 이면 날씨로 언제우과? 육지하고 틀리잖아 또.

아니 여덟물이민이.

@ 음력으로 언제?

보름이 일곱물 아냐. 음력으로 세면이 보름이 일곱물, 열웃새가 이제 으덱물 뉘 거 고이. 또 그뭍으로 세면 그뭍날. 이 그뭍이 일곱물 초흐루가 으덱물. 한 달이면 그렇게 뉘는 거야. 초흐루가 으덱물. 일일날이이. 일일날이 으덱물. 음력으로 치믄이. 일일날이. 예를 들민 삼월 초흐루가 으덱물. 이 또 삼월 이제 보름이 이제 일곱물, 삼월 열웃새가 이제 으덱물 그렇게 뉘는 거라.

@ 자꾸 약간씩 돌아가는.

돌아가는 것이. 겐디 또 그뭍이 크고 작음에 매서이. 작으면은 이제 아흐레가 이제 그뭍이 뉘면은 이제 구뭍이 뉘 거고. 삼십꺼지 이신 날은 이제 스무아흐레꺼지 이시면 은 또 이제 그 물찌가 한번 더 험 댁에. 이 달이 작으면 그거꺼지만 험 댁에. 물때도 따라 가지고 들이 크고 죽음에 매는 거여. 달이 크면 한 번 더허고 달이 죽으면 한 번 덜 허고 한번 만 허고 그것도 알아야 뉘.

@ 무레질할때는 물이 들 때 허는 거 잦아예. 싸지 안 할 때예.

물싸갈 때.

@ 아, 물싸갈 때.

싸갈 때 허민 물 들민 나는 거.

@ 기구나. 그러면 아까 톨은 이삼월에 헌텐 헛잡아예. 톨은 물싸야 물찌에 허는 거니까 그때 헛 때는 필요헌 게 뭐마씨?

호미.

@ 그땐 호미로예?

호미허곡 마다리.



[사진 4] 톨 바다

@ 마다리. 요즘 마다리. 옛날에는 마다리로 안 헤실 거 아니?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저 넷거든. 이젠 바작이 엇고 지게가 엇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도 허곡. 그거에 해서 담아 놓민 이제 저 내 사름은 저 내고. 비는 사름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 아, 다 따로 따로. 어 완전 분업화했네예.

또 어떤 부락에는 이제 여녕이 만해서 저내는 사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비어 놔가지고 한꺼번에 담아놔 한꺼번에 지어내는 사름도 있고. 또 판 데는 남자들이 하고 지어낼 사름이 하시면은 나만헌 사름은 비고 담아주민 젊은 사름들은 저 내고. 계영 우리는 지금 톨 안 해본 지 오래여.

@ 아, 여기는 아 삼촌이.

다리가 수술헌 다리가. 난 아프니까 우미도 즈물아 나건 지 한 오 년. 몸이 아프니까. 요새도 성계 해도 난 성계 허지 아년. 몸이 아프니까 나 몸이 불편허니까 못허여.

@ 그러면은 이제 톨은 이제 해서 그렇게 즈물양은에 오잡아예. 그것도 톨릴 거 아니?

물리양 허민 이제 어촌계 이제 아무 날 입찰한다 허민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뜨면
은 어촌계에서 오랑 다 검사허거든. 검사허민 우리 어촌계 창고에 낫다가 이제 저 그
공장에서 담양 사가면은 입찰 부치민 올힌 톨 시가도 많이 갖어.

@ 으음. 올해는 막 일본 땀에 시가도 하영 갓넨 헨게 마는.

하영 갖어. 시가.

@ 게른 톨은 주로 어떤 거 헤 먹었수가? 반찬 여기서는 톨은 허게 뉘민 들렁은에.

들렁, 놀차 헤은에 파랑케 데왕은에 그자 찍은은에 반찬도 헤영 먹고. 또 압력솥에
푹허게 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무쳐도 먹고. 여름에 횡국도 헤영 먹고.

@ 아 압력솥에도 삶양도 먹습니까?

아 그자 찜통에도 삶곡 압력솥에도 삶곡. 찜통에도 삶곡. 거 삶양 널었다가 말려서
그대로 빨아가지고 으름에도 반찬도 헤영 먹곡. 우린 이제 여름에 먹을 거 놀차 헤당
삶양. 문딱 이제 빨양 봉지에 한번 먹을 썩 냉동헛당 먹곡. 메역도 냉동헛당 그자 빨양
냉동헛당 새 메역 날 때까지 먹고.

@ 요즘은에. 냉장고 잇으니까?

우리 이젠 냉장고 이시니까 다 좋아. 이제 살긴. 새 메역 날 때까지 먹어.

@ 게영은에 이제 그 그건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먹습니까?

그거 이제 이제 메역 무쳐 먹어도 새 메역 그자 바다에서 캔 온 거 닥고. 그거 이
제 국 냉국 헤 먹는 디도 오이나 하나씩 썰어놓곡 메역세 놓곡 헤영 여름에 씨원허게
시리 냉국헛 먹으은 아 저 메역 냄새가 코소허게 맛 싯고 그래.

@ 톳도 냉국헛 먹고?

톳도 냉국헛 먹고. 무쳐 먹기도 허고. 톳도 무쳐 먹는 것도 다마내기나 오이나 놈가
지고 웬장 반 꼬장 반 낱 무쳐야 뉘어. 그래서 물 들큼들큼허게 물 말르게 무치민 맛
엇영 안 뉘어. 물이 좀 들큼허게 물허고 톳허곡 떠 먹게 시리. 경 헤영 식초 놓곡 설탕
놓곡 다 거 양념 헤낱 무치민 그렇게 여름에 비린내도 안 나곡 맛싯지.

@ 으음.

양념에. 양념에 양념하고 자기 음식에 달려 잇는 거야. 맛있는 것은. 손맛에 잇는 거야. 거 같은 음식이라도.

@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이제 왜 툄이든 메역이든 행은에 짝 널면 이제 소금기가 피잖아. 이 런 것을 여기선 뭐렌 험니까?

곤핀다. 곤핀다. 히뜩히뜩히는 거 아이고, 메역에도 희뜩히뜩허민 두루 몰라부난 곤피 엇저게. 툄도 잘 물리라이. 곤피여근에 안 웬다. 이제 검사에 덜어진다이. 잘 물리라이.

@ 경해도 옛날에는 곤피어야 시세에 난덴 허지 아녜수과?

옛날도 곤이엔 해서.

@ 아아.

곤은 옛날이나 이제나 마찬가지로.

@ 곤핀다.

으. 곤핀다.

@ 으으. 기구나. 삼춘 지치지예.

곤 핀다.

@ 곤핀다. 옛날에 막 못 살 때 흥년 들고 혈 때 여기에서 바당 거 해당은예.

툄 프레밥 먹곡. 툄 해당은예 밥 행 먹고. 개프레 해당 밥행 먹고. 우리 안 먹어봤어.

@ 아, 삼춘넌 안 먹어받?

우리 우리는 우리 아버지네 우리 셋아버지넌 친정이 잘 살아놓으니까 그런 밥을 못 먹어봤어. 게문 우리는이 다 툄프레밥을 먹어도 우리는 친정이 잘 사니까 안 먹어봤거든. 옛날 우리 어무니네가 부제로 사니까 그런 툄프레밥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검사를 온다 허니까 우리 아지망보고 툄밥을 해서 솟디 담아놓라고 그러더라고. 검사 오민 툄밥 이 집의도 해먹는다고 뭐가 줄까 싶어가지고. 나는 그때 웃겨가지고 “어

머니 뭐 주카” 시퍼가지고 톨프레밥을 헤라 험니까? 톨프레밥 안 먹은 사름이 없어. 우리 동네에서는 나가 친정 동네가 산호해수욕장이거든. 나머지 우리 셋아버지하고 우리집의만 안 먹었지. 톨프레밥 안 먹은 집의 었어. 우리는 쌀이 남아 도니까.

@ 으 왜?

농사를 하영 해서 남아 도니까. 그 시절도이. 좁쌀. 근때는 보리쌀이 보리 나도록 서터 먹는 것이 제일 부제라 헛거든. 좁쌀도 좁쌀 나도록 서터 먹는 사름이 제일 부제라고 헛고이. 게 우리 어머니네 농사를 많이 허니까 내나 보리쌀 좁쌀만 먹는 사름만 잇고 보리밥만 먹는 사름이 잇어도 우리 어머니네는 그게 아니거든. 보리쌀 반 좁쌀 반. 보리쌀을 새 보리 나도록 먹었고 좁쌀을 새 좁쌀 나도록 그걸 반지기를 먹었거든. 경 먹었기 때문에 아주 부제로 살아놓니까 쌀이 그렇게 많이 허니까 그렇게 귀함을 못 받았어. 그렇게 막 남의 집에 가서 톨프레밥 먹는 것을 먹고 싶어 가지고 얻어먹기도 헛어. 막 저걸 먹어볼까 먹어보니까 톨밥은 먹어지는데 개프레밥은 못 먹겠더라고.

@ 아아.

개프레밥은 못 먹겠더라고. 톨밥은 먹어지더라도 개프레밥은 못 먹겠다고. 겐디 그 사름덜은 우리집의 와서 보리쌀에 좁쌀에 먹는 것을 불르면은이 어머니 몰르게 밥을 퍼다가 나도 많이 주곡. 우리 어머니는 옛날엔 이걸 산두. 이제 같으면 나룩이듯이. 말룬 산두 많이 곱았거든. 곱민 나 어머니 몰르게 도둑질헤다가 막 친구들 신디 강 밥도 행 먹고 어머니 몰르게 도둑질 많이 헛어 나. 도둑질 많이 헤다가 친구들에게 막 밥행 먹고이. 우리 어머니는 막 산디도 많이 갈아근에 그때 많이 먹고이.

@ 삼촌 계문 톨밥허고 프레밥 허는 거는 들어보긴 헤실 거 아니라예? 먹진 안 헤도.

톨밥은이.

@ 예예.

좁쌀이나 보리쌀이나 같이 톨 썰아가지고 같이 놔서 밥을 헤먹는데 그거 먹어지는데. 개프레밥은이 쌀에 낱은 못 먹어. 밀가루에 허터가지고. 밀크르에 허터서 밥을 허니까이 아이 못 먹겠더라. 거는. 죽어도 못 먹겠더라. 배고파서 살젠 허니까 먹기는 먹는데. 톨프레밥은 좁쌀에 놔서 현 건 먹어지겠더라. 그런디이. 프레밥은 우리 죽어도 못 먹겠더라.

@ 건디 개떡레?

개떡레 거 개떡레 그거 헤영케 발레가지고양 가루에 서터서 밥 헨 거 우린 죽어도 못 먹헙디다 거. 그건 못 먹겠더라. 톨떡레밥은 톨은 짧아가지고 줍쌀에 놔서 밥 허니 까 거는 먹어지는데 개떡레밥은 못 먹겠더라. 건디 옛날에 저 물룻.

@ 예.

이디 밧데 가서 물룻 헤단도 짧아서 먹는 사름덜도 잇더라이. 물룻 헤다 폐 놓고 해서 거 먹는 방법이 잇더라. 그런 것도 먹고 허더라. 거 허고. 썩 캐당 썩떡 먹는 거는 아주 고급이고. 그거는 우리 이제도 잘 먹어. 썩 뜯어다가 밀카루에 버무려서 허는 허는 것은 이제도 우리 잘 먹어져. 이제 썩철 나면 나도 막 캐다가 그거 떡 헤나신디. 그거는 그때도 막 잘 먹어지고. 건 아주 고급이고. 그런디 끈때는 밀크르. 수제비 이제는 수제비라 허지만 즈베기엔 헛거든. 밀크르즈베기가 아주 고급이야. 그거는 벨미로 먹는 것으로 막 부제침이나 잘 먹어. 밀크르즈베기 헤영 경 먹곡. 보릿꺾르즈베기, 밀크르즈베기 헤영근에 헤영 먹고. 호박입국에 밀크르 낱 끌리는 것도 맛이. 이제도 호박입국에 밀꺾르 낱 끌리는 거 웬장국에 맞셔. 메르치나놓고 이제도 먹어. 것도 이제도 허고. 그건 옛날이나 이제나 맛이 좋아. 이제는. 그것도 옛날도 그거 헤영 먹고 헤영는디. 개떡레밥은 못 먹겠더라. 개떡레밥은 못 먹겠어.

@ 삼춘은 그런 거 먹어보진 안 헛구나예? 집이 부자니까.

친정이 잘 사니까 그런 걸 귀험 천첩 몰랐어. 근택에 막 굶어서이 배고파서 막 떡레밥도 엇어서 막 굶은 사름들 많이 잇고. 쌀 그거 헨 거 밧되서 일 헤취근에 막 헛뉘씩 쓸 빌어당 먹는 사름도 많곡 그러면은이. 나이 어머니 몰르게 도둑질을 많이 헛어. 없는 사름 쓸도 어머니 몰르게 도둑질헤당 많이 줘불고. 많이 줘불언. 막 불쌍헤근에. 막 불쌍헛 많이 줘 불언. 어머니 몰르게 도둑을 많이 만들어부러서 내가. 어머니 몰르게. 도둑질을 많이 헛어. 겨고양 불쌍헤근에양. 육지 가서도양 이 밥 얻어먹으레 온 사름 막 옷도 다 벗어줘불고예. 애기 굶은 사름들 설탕도 다 싸 줘불민, 우리 동네 아이덜 “니는 막 느네 씨앗가 뵈가” 막 헤영. 그런 말꺼지 다 마음 그렇게 아파가지고 양 상당히 뉘헤 정.

@ 물질허멍 옛날 어른들 물질허멍 헛던 아까 속담 이런 거 떠 올려놔서?

무레질헛때 속담이 무신 거 이서게?

@2 예를 들면 물질 물질 나 갈 때.

배.

@2 저 뭣고?

노젓는소리.

@ 게믄 고기잡이 축 고향 때는?

배 탈 때는 배 아침 허지 이녁이 바쁘면은 할 수가 없지게. 물 없어 홀 수가 없지. 동네에 우리 널 아침이 나타나지 마시라 이제는 옛날에 빈 허벅 갈치 나끄레 빈허베기 그게 고기 기분 나쁘다고. 그날 강 갈치술이나 고기 에이 예펜년 옛 빈 허벅이 옛날으 법이 없거든. 여기서 결혼식을 허젠 허벤은 상제칩의 그릇도 상제 빌* 옷도 새각시 옷 을 헐라면 남편 허고 사는 사람. 상제 이제는 상제 골람썬과? 이제 한복덜 허는 집의 여 여 상젠지 핫어멍인지 어떻허연 알앙 뉘험수과? 핫어멍은 신랑 잇는 핫어멍. 신랑 잇인 사름은 홀어멍.

@ 아 경험니까? 신랑 잇는 사름은 핫어멍?

짓도 알아야뉘. 신랑 잇인 사름은 핫어멍 신랑 잇인 사름은 홀어멍. 옛날 사람 말이 그거야. 핫어멍 홀어멍. 많이 배웁찌이

@ 예게. 겨난 삼춘 온 거지.

물질 갈 때. 물질 갈 때 아 오늘은 기분 안 좋앙 못 가키여. 물질 안 가는 사름이 가끔 잇어.

@ 어떨 때 안 갑니까? 물질을.

꿈사리나 굿구 집의서 기분이나 나쁘민 나 오늘 무레질 기분 나뻡 안 가키여. 어제 꿈이 이상헤라.

@ 아 꿈자리 안 좋으면. 보통 어떤 꿈 꾸면은 안 가는 거라. 그럴 때는.

뉘 짐승을 죽여부난 목심을 죽여부난 그럴 댁엔 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

@ 경허곡 저기 물질 가도 다른 때보단 엄청 잘 될 때 잇잖아.

그렇지. 그런데 재수야. 꼭 삼신탈망이나 요왕할망이나 꼭같아.

@ 예예.

왜 같으나 허면은 삼신탈망도 자식 아덜을 하영 주곡. 아덜도 하나도 못 낳 딸만 주곡 죽식 못 낳곡 허는 삼신탈망이 잇거든. 요왕할망도 재수가 잇영 전부 고동 많이 주는 사름은 재수 좋양 많이 주곡. 많이 잡아도 못 잡아가지고 털터리허는 사람이 잇곡 그래 삼신탈망허고 요왕할망허고 꼭ㄴ트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야. 재수. 그날 재수에 잇는 거야. 재수에. 그날 가서 재수 좋은 날은 고동도 많이 보이고 물건도 많이 잡곡. 재수 없는 사름은 재수 없는 날은 죽도록 허는 디도 물건도 안 보이고 그렇게 못 잡아. 그래서 재수 잇는 날 없는 날.

@ 게도 물질 갖당이라도 돌아와부는 경우도 잇지예? 물에 들엇당 나와부는 경우.

들엇당 못 숨병 나오지 무신 재수 나뺑 돌아오진 아녀매.

@ 그러지는 앓고?

못 숨병 콧머릴 들르나 감기로이. 어디 귀가 아프던가. 코가 맥형 못 들어가든가 숨이 맥형 못 들어가든가. 그런 맥엔 물에 들엇당도 나오지.

@2 아까 무슨 병? 그런 병은 무슨 병?

@ 못 숨비다는 거.

콧머리 들영 감기 기운 헤가민 코가 맥혀 가지고 이디가 못 들어가. 땡겨가지고. 감기 기운이라고 해서. 우리도 그래서 많이 무레질을 들어갓당 나오지. 전에는 젊엇을 덕에는 감기 기운 헤가민 코가 땡겨 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 눈방울이 빠지는 거 같아가지고 아팠 가지고 못 들어가. 경허민 나오라비여. 못 숨벼.

1.3. 해녀노래와 노젓는노래

저는 우두면 천진리에 사는 김춘산이가 됩니다. 연세는 칠십 사세고요. 지금 해녀노래를 한 곡 불르곡 노젓는노래를 한 곡 불르겿습니다. 잘 불렀든 잘 양애를 해 주십시오.

1.3.1. 해녀노래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 없이 잠녀들/비천헌 살림살이 세상이도다/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저 바다에 물결 우에 시달리던 이내 몸/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은 뉘면 돌아와/ 어린 아이 젓 주면서 저녁밥을 짓는다/하루종일 하였으나 버은 것은 기막혀/살자한 이 근심으로 잠도 안 오네./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궤/온 가족 생명들은 등에 다 지고/파도 쉼 물결 쉼은 저 바다를 건너서/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요/배 없는 우리 잠녀 가는 곳마다/저 놈들 자치기간 설치해 놓고/우리들의 피와 땀을 차지하도다/가없는 우리 잠녀 어디로 갈까.

아이고 이젠 못 불르키여.

@2 사 절이우과?

예. 사 절.

1.3.2. 노젓는노래

이여도싼나 이여도싼나 이여도싼나/요 넬 지고 어딜 가나/진도바당 한글로 가자/이여라 쳐라 쳐라 배겨/쳐라차 이여라 디여 이여차/요 목 저 목 이여라차/울던목과 이여차/사랑도에 쳐라 배겨/어움목에 이여차/올라야 쳃던 오 네로 고나/이여도싼나 이여싸/요 네착이 뿌러지면/대마도 산천 올곧은 나무가 없을쏘나/요 벤줄레 끊어야지면/부산항구 아사이 노가 없을 쏘냐/이여도산나 쳐라 배겨/연예야 녹지 밤바다엔/파도가 들언 궁글리고/자그허만 여자의 마음엔/한 금이 들어 궁글린다/이여라 쳐라 쳐라 배겨/요 물 아래 쳐라 차/은과 금이 이여라차/꺄려서도 이여라차/높은 낭에 쳐라 배겨/금이로 구나 이여라차/이여차 이여라차/저 산천에 풀입새는/해년마다 돌아오건만/ 공동묘지가신 입은/언제야 나면 돌아나 오나/이여싸아/우리 어멍 날 날적에/어느야 바다 메역국 먹고 날 낳앗던가/이여라차 쳐라 배겨/이여라 쳐라 이여차/저레 가는 저 늦둥이/뿔을 먹고 커지었나/ 쳐라 차 둥긔둥긔 커지었나/지름통을 쳐라 배겨/마섯터냐 이여라차/바람통을 마섯던가/뿔을 먹고 둥긔둥긔 커지었나 이여라차/쳐라 배겨 이여라/야도꼬 사이 이여라차/사이다 비로 실금실적 잘 넘어간다/ 이여라차 이여싸나/우리나 베는 잘도나 간다/잘 넘어 간다/이여도싼나 이여싸아.

그만 험주.

@ 그것 무슨 뜻.

의미가 저레 가는 저 늦텅이는 막 커졌거든, 바람통을 먹었느냐 기름통을 먹었느냐. 뿔을 먹고 둥긱둥긱 커졌나. 이 노래 의미고. 이제 우리가 늦 텅단 이제 노 채가. 그 네착이 뿌러지면 대마도 산천 올곧은 나무가 있다 이거야. 게믄 만들 수 있다 이거여. 그러면 요 벤줄레가 끊어지면 부산 항구 아사이 노가 있다 이거여. 그것을 만들 수 있다 의미거든. 으 그러민 야도꼬 사이 사이다 비루 실금실적 잘 넘어간다. 사이다 비루 먹으면 잘 넘어가지 아녀냐. 그런 의미에서 이거 허는 거야. 겐디 요 목 저 목 울던 목 아 사랑도에 좁은 목에 올라이 쳄던 요 네로구다. 이 네가이. 그거 이제 우리가 네 젓 으면 그거거든. 요 물 연예야 녹지 밤바다에는 파도가 들어 궁글리고. 자그만헌 여자의 마음에는 한금이 들어서 궁글린다. 요 물 아랜 은과 금이 끌려서도 높은 낭에 열매다. 우리가 허여오지 못하니 높은 낭에 열매다. 저 산천에 풀입새는 해년마다 돌아오지마는 공동묘지 가신 임은 언제 나른 돌아오나. 우리 어멍 날 낳을 적에 어느 바다에 메역국을 먹었나. 어느 바다에 메역국을 먹어서 날 낳았다. 그 의미거든 그 의미가. 그거 다 의미가 잇는 거야.

@2 일본?

일본 노래 아니우과? 아사이 노 부산 항구 이 네착이 이 뿌러지면은 으 네착이 뿌러지면은 으 일본 대마도 산천 올곧은 나무가 잇고. 이제 벤줄레. 노꼴이 벤줄레 아니우과? 끊어지면 부산항구 아사이노가 있다. 만들 수 있다. 그거 의미가 일본 노.

@2 일본노?

예, 그래서 이 네착이 그런 거야.

@ 계난 아사이에서 생산된 노. 그런 거 같애예?

의미를 거라.

@ 그렇게 이제 불르면서 이제.

노를 젓거든. 그러면은 젊엇을 댁에는 힘이 쉼서 나가이. 힘이 쉼면은 노를 허다가 시간 뒤민 판 사람이영 곱 거 아니야. 게믄 배가 막 서너 네 척이 경쟁으로 가거든. 가민 떨어져가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쉬엇당이라도 네착을 딱 뺏아 막 힘내서 저가민 배가 쪽쪽 올라가거든. 경쟁. 기분 ***** 쪽쪽 올라가서 그렇게 노를 젓이민.

@ 게은 네 잡은 사람이 그 선창을 허는 거?

그럼 하네. 하네 잡은 사름은 칫다리거든. 돌려주거든. 돌리면 젓거리는 양쪽에 사서 여자들이 젓이는 거고. 하네는 배 코스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막 그것에 시합을 부뜨거든. 그래서 막 부뜨면서 게난 요 목 저 목 울던목가. 울던목이 아주 물이 썰여. 물 썰여 배 지나가기 에렵거든. 그러믄 요 목 저 목 울던목가 사랑도에 좁은 목에 올라야 첫던 요 네로구나.

@2 사랑도야. 사랑도.

으. 좁은 목에 올라야 첫던 요 네로구나.

@ 올라이 친 건 무슨 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저레 가는 것이 요 네로구나. 으 그것이 의미여.

@ 울돌목은 울돌목.

@2 어 울돌목.

어, 그러고.

@ 거기가 바당이 썰갓고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른 거야. 연예야 녹지 밤바다에는 파도가 들어 궁글리고. 자그마한 여자의 마음은 한금이 들어서 궁글린다. 요 물 아래는 은과 금이 깔렸건마는 높은 낭에 열매로다.

@ 근데 그 노랫말은 누게가 다 만들어신고예?

모르지.

@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지. 할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무신 거 현 거니까.

@ 게은 이거는 아까 네 젓는 소리잖아. 네 젓는 허고. 이거 말고도 노래 부르는 거 이십니까? 바당에 강은예.

이거 말고는 노젓는노래 아녕은. 바다에 강 잠녀노래 불르는 건 엇주게.

2. 정금주 구술 발화

2.1. 인적사항

@ 삼춘 일름이 어떻 뒤마씨?

정금주

@ 정금주? 이제 멧 설마씨?

팔십서이.

@ 저기 헤치는?

헤치는 베염.

2.2. 물질 생활

@ 베염헤치에. 게난 멧 설부터 물질 베왕은에?

으덥 설에부터 힘 시작허난 아옵 설부터 우미도 강 즈물곡 메역도 즈물곡 쫓쫓씩 허여가는 것이 이때까지.

@ 힘은 누게안티 베왔수과?

그냥 아이덜허고 ㄹ찌 (웃음) 프래 즈물명 유리공 강 툃와 낱 막 히어텅기명 헤낫 수다.

@ 그때 그렇게 형은에 현 게 아옵 설부터는 본격적인 물질을 현 거라에.

아옵 설부터.

@ 게근 아옵 설부터 물질을 허멍은에 이제까지 살아온 거를 길게 현 번 곶아뵈뵈서. 어떻허연 나 고생허명 살았저 현 얘기를?

아옴 설부터 물질허멍 학교 가는 아이덜은 우리 우두에는 멧 사름 안 땡겼지. 혼 열 쯤을 우리 나이에 학교 가는디 나는 학교 가젠 막 부모덜안티 애원해도 일허렌 아 니 시겨주는 거라. 경 허민 이젠 우리 출왓도 잇고 소남도 싱그고 허난 지들커 걱정은 아녕 허는디 아이덜 이제 솔입 굶으레 가가민 가찌 글쟁이 솔입은 안 학교 울타리에 돌아정 그때는 혼 들썩 이제 운동 연습을 허여예. 경허민 그 운동 연습허는 걸 막 구 경허영 무용 이젠 그뎨 유희엔 헤낫지. 경허영 허민 그거 뵙 오라근에 다 에와. 그때 현 거 이제도 기억이 남아 있어.

2.2.1. 해녀노래

@ 으음. 그런 분들. 게문 여기 강관순이런 헤영은에 그 해녀노래 불른 사름도 야학 이런 건 아녀 낫수과?

해녀노래는 우리 나기 우리 크기 전이 그 잠녀난리 일어나서예. 예. 경헤연 춤 소식 만은 들어. 게난 그 노래 나가 알아져.

@ 아아 기마씨?

예.

@ 어 어렸을 때 이 동네서 막 불렀구나예?

예.

@ 아아. 그 노래도 한번 불러봅서. 오닐 우리 노래 많이 들엉 가키여.

노래?

@ 예. 해녀노래예?

아이그, 잘 넘어가진 아녀키여.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없는 잠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로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바다에 물결 우에 시달리는 몸. 이견 일절. 또 이절은 이른 봄 고 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가족 혁명을 등에다 지고. 파도 썰고 물결 쉼 저 바다를 건 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자.

@ 이견 이절.

나가 빠진 거 닳다.

@2 오래간만에 불르난.

일절에 빠져서.

@ 일절 게문 한번 더 불러봅서? 빠지 건 같앵은에.

새로?

@ 예.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 없는 잠녀들/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로다./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저 바다에 물결 우에 시달리는 몸/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은 뉘면 돌아와/우는 아이 젖을 주며 저녁밥 진다/하루 종일 일헛으나 버은 것은 기막혀/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도 안 오네.

이거 일절.

@ 일절에. 게영 옛날에 그렇게 허멍 불르고. 행은에 그치록 헤연 쪽 살안에 그 물질허멍 삼촌 일월 달부터 십이월달까지 쪽 물질허잡아예. 이 동네에서는. 그 보면은 일월에는 어떤 물질을 헤엿수과?

@2 음력으로예.

시월 일일부터 고동 잡기 시작허민 이월 말까지. 이제 낫나쁜 이제 우미. 우미 뜯기 시작허민 한 메칠 이제 허다가 우리 동네는 일이 만허기 때문에 막 헤야 이십일. 경 아녀민 십오일쯤벳과 우미 작업을 아녀. 경허민 우리 농사 못 짓는 사름도 막 금허여 근에 들어가지 못허여.

@ 게난 그거는 요즘 허는 거잡아예. 옛날. 삼촌 어렸을 때?

옛날?

2.2.2. 미역(메역) 이야기

@ 예. 옛날 그 헛던 거. 메역 즈무는 거.

옛날에는 메역을 젤. 우미는 없고, 메역만 주로 허영 그 메역 헤여근에이 즈물앙 딱

금헛당근에 삼월, 음력으로 삼월 들 뉘민 삼월 보름물찌부터 메역허기 시작허민 이제 보리 2실허기 전꺼지 그 메역을 즈물양. 막 낭으로 부짱. 이젠 장스허는 사름덜이 그 걸 혼 남에 얼마씩 허영. 그때 돈으로 십 원이여 무신 얼마여. 경 허멍 이젠 헤영. 사 근에 여수. 여수 가근에이 이제 풀아 와났수다.

@ 그, 그때 삼월보름물찌부터 메역을 허는 거라예.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가는 거 아니우과?
그걸 뭐렌 곶아마씨. 그날 강은에 바당에 강 메역허는 날을 뭐 허는 날엔?

메역즈문허는.

@ 메역즈문허는 날. 게민 메역즈문허는 날 이 바당 풍경을 혼번 곶아줍서?

이 바당. 게민 우리 우도에 전체 다 터냥양. 저 판 동네 메역 아너는 이제 동네 사름덜이 여기 허채허는 날은 여기 오는 거라. 막 배덜 타멍.

@ 이 동네는 무슨 동네우과?

비양동.

@ 비양동에?

게민 저쪽 이제 천진리 사름덜은 바당이 없으니까. 저 하우목동 허곡 저 이디 주로 오고. 저쪽더레민 도돌네미 중개미 이물이니 그레는 지네 바당이 있으니까 첫날은 아니 와도 이제 이디 우리 동네만 바당이 좋으니까 이레만 와. 게민 그 사름덜 오기 전 이 혼 번이라고 이제 미리 허젠덜 막 허민 저 뵈이 밧디덜 오라근에 곱양 앗앙덜양. 사름덜 경헨 오란덜.

@ 그때는 게민 아침에 멧 시부터 물에 들어마씨?

아침밥 먹으민 그냥. 하루종일.

@ 하루종일? 게민 그 멧 망사리 그걸 곶아봅서? 어떤?

혼 망사리 헤여오민 막 바작으로 막 지어내여근에 멧 바작허는 사름도 잇었고. 서너 바작 허는 사름도 잇고 못허는 사름은 혼 바작도 허고.

@ 삼춘은 얼마큼 헛수과?

난 어린 때 말고 여기 씨집오란에 이젠 헐 땀 낭으로 부찌근에 육백 낭도 허곡.

@2 흐르에?

예. 계난 밤새껏 부찌예. 저녁 헐 네 시쯤으로 시작헤근에 붉도록. 막 불 싸근에 저 테역밭디 강.

@ 갱은에 그렇게 이제 부짱허영 육백 낭씩. 게문 그 헐 낭은 메역 헐 즐기우파? 아니면 영 부친 거를 헐 남이렌 허는 거우과?

영 부친 거. 영 잇이명.

@ 잇이명 부친 거 게문 그 헐 낭 부짱 때 멧 개를. 메역 보통 멧 개 헤마씨?

두 개, 네 개도 들어가곡. 준 거는 으섯 개도 들어가고.

@ 그거를 부친 거를 헐 낭헤예? 남이라고.

헐 남. 헐 낭.

@ 헐 남. 게문 헐 남행 은에 풀 때는 게문 멧 씩 헤영은에 풀아마씨?

계난 딱 세여근에 이제 스무 낭이든 스무 낭 헐 단 헤근에 얼마? 계난 낭으로 세여 불민 뉘 단으로 무신 거 아녀. 우리는 저 어디 여수 가민 거기 사름덜 단치는 사름덜 빌어근에 단쳐근에 거기서 풀아.

@ 게문 스무 개가 헐 단이렌 헤마씨? 그 남 헐 거 쓰무 개를. 어어. 게영 쓰무 개 허면 그때는 메역으로 돈 주로 허는 거 짱아예. 얼마 정도?

아이고, 메역 값이 헐허난 얼마 뉘질 아녀지. 요즘은 돈 풀이도 그대로 뉘 험주마는 그때는 메역 즈물아봐야 뉘 농스헌 거는 딱다 보민 돈 살 것 것도 없고. 감저 싱거근에 뺏테기 헤영 그거 물류와근에 풀곡. 에이고, 우리도 그 물른 거 백오십 가멩이씩 헤근에. 이젠 아방이 농협에 텅길 때난. 누게 거 아이덜은 어리고 리야까로라도 끄어내야 뉘 건디 등짐으로 저내지도 못허곡 허민 그냥 파근에 그 땅에. 그 자리에 썰영 막 널영. 비 오람직허민 이젠 그걸 밤새껏 걷와야 뉘. 밤새낭. 경 허명 살아완. 이 손 다 믹디믹디 다 켜이 전. 하도 일 허여놓난. 요새 사는 사름덜이사 호강이주. 에이고. 옛날로 허민. 기계로덜만 허곡 늣 빌영 허곡 그때사 늣이 어디셔. 이녁 낭으로만. 밤의 강 조

비곡. 그 조 무신 거 헤나민 조칩은 밤의 저오곡. 물질 가젠.

@ 음, 물질해야 뉘난?

물질허레 가젠. 에이고, 돈도 못 사는 거. 옛날은 옛날은 구쟁이 구쟁이 헤낫주게.

@ 구쟁이. 고동이 아니고 구쟁이에.

구쟁이. 으 구쟁이 잡으레 가근에 잡아당 먹으멍 경.

@ 게른 삼춘 이 바당에 아까 메역 현디 메역은 어떤 종류 메역들이 있어마씨?

어떤 종류멍 말멍 그자.

@ 그 이름 불르는 이름을 뭐렌 험니까?

그냥 메역이주.

@ 메역. 녁메역 돌메역 그런 말은 아넵니까?

돌메역.

@ 돌메역?

돌메역.

@ 으으. 요즘 같은 메역예. 근데 우도에 보면 막 넓은 메역 잇덴 허멍?

넓은 메역은 저쪽에 나는. 저 산호모살 이신디.

@ 아 여기허고 저긴 또 틀려예? 이 비양도에?

지금도 파도치민 밀려오는.

@ 게른 이 비양도에는 돌미역만 나.

돌미역. 미역도 영 지픈 알려렌 가민 물메역 정 좀 흐썰 메역이 민지락허곡. 영헌
영동산 그런 딴 허민 경 돌메역허영 막 빠드락허영 몰라도 새카망허고 시락허곡.

@ 게문 물 속에 거보단은 돌 우에 난 돌메역이 좋은 거우과?

돌메역이. 돌 우의 난 게 더 좋주. 물알 지픈 디 그 홈텡이 진디 것 보단.

@ 아아. 물알 지픈 디?

난 그런 딴 안 즘습니다.

@ 아 건 삼춘 안 즘물곡. 게문 그렇게 그 홈텡이 진 데 메역을 뒀렌 불르는 이름이 있어마씨?

그런 말은 없고.

@ 것도 이제 메역. 게문 메역도 허면 메역귀로 빙니까? 아니면 그 줄기로 헤영 빙니까? 여기서 는. 그 혈 때?

그냥 그 줄거리 이신 놨은 우으로 비곡. 또 귀다리 막이 이치록 뭉텡뭉텡현 거 이신 거는 이제 굽으로 비곡. 요즘은 기다리들. 췌 많이덜 막 좋아허기 때문에 관광객덜 이. 젊은 사름들은 또 힘들다고 요즘은 즘물지도 아넙니다게.

@ 예. 메역예?

난 기자 하르방 시난 마중해췌.

@ 게영 삼춘은 요즘도 메역도 즘물기도 하고.

올히도 즘물안.

@ 아아. 게문에 삼춘 여기 영 보면 메역도 맨 밑에 그 귀헌 거를 귀다리렌 헤마씨? 우도에서.

그 귀다리 이신 거는 영헌 막 동산 뒀 헌디 건 영 뒀허곡. 영헌 지픈 굴렝이는 영 그 똥가리. 그거.

@ 똥가리로 그냥 짤라예?

똥가리 신 건 우으로 비곡.

@ 아하 똥가리 어시난 그 굽으로 귀다리 부청은에 비염구나예?

아니 즘물기는 이 돌메역은 귀가 잇곡. 또 물메역 진 거는 귀다리가 췌럭췌럭허곡.

영헌 물가리 허곡 허영 그건 비여나 봐야 필요어신 거. 헤여 나와도 널 때는 쫄라.

@ 아아 그럼니까?

꿩잉 데껴부는 거.

@ 게믄 돌메역은 그 귀다리 ㄹ치 헤갓고 널곡예? 아아. 게믄 멘 우에 메역 그 꼴렁기 있는 디는 또 불르는 일름이 이십니까?

꼴렁이 불르는 건 그냥 바라불민 꿩잉 데껴불주.

@ 예 건 바라불면?

꼴랑지는.

@ 꼴랑지는?

꼴랑지는.

@ 아아 그치룩허멍은에 아까 육백 낭씩 헌 거라예?

@2 육백 낭?

@ 육백 낭씩.

육백 낭씩 그때는.

@ 게믄 그때도 메역도 처음에 츄물에 즈무는 거 하고 두번 째 즈무는 거하고 이름이 특나게 불러 신가마씨? 메역 헐 때.

그냥. 그냥 그대로.

@ 그냥 메역즈문이렌예?

조문이렌 헤여 그대로.

@ 메역즈문이렌 허곡. 게믄 그 메역즈문 헤영 오면 그거 여수 강 풀앗잖아예. 그 메역즈문 헌 걸로 헤 먹엇던 이런 음식 같은 거는 어떤 거 이시코예?

메역주문 걸로?

@ 예.

그 메역 이제 반양, 장스꾼이 거기 강 풀민 쓸 메리치 밀그르 그런 것덜 헤오랑 다 저.

@ 풀아예?

아니. 그냥 갑으로 메역갑으로 제허멍 계산해 줘. 미리 어신 사름덜토 돈도 주곡 헷당.

@ 미리 헷당 그런 식으로 헤영은에 이제 풀양 이제. 거의 물물교환 허는 식으로 되는 거네예. 게 영 하영 현 사름은 제헤똥 나머진 돈 주곡.

어신 사름은 마이너스. 춤 그냥 빚저근에 다음예. 우리도 흐쉴 멧 번 헤뵈주마는 뎀 것도 만헤.

@ 뎀 것도예?

어신 사름덜 쫓당 못 좃앙 내민 죽어불곡.

@ 떼어불민 뭐 할 수 어신 거. 경허면 우리 집에서는 메역 행은에 헤 먹는 음식은 뭐 잇수과? 집에서 메역 즈물양 허면?

그때 시절엔 메역이 주로 반찬이라. 여기. 국 끌렁 떡곡 또 무쳐근에 저저 메역체, 메역체. 국거치 기름 농곡 이제 파 썰어농곡 메역 농곡 허영은에 메역체 허영 먹고. 고기국에 끌려도 떡곡. 또 마늘 나민 마늘 뽑아다근에 데우청 메역에 ㄱ치 낱 버물렁 무쳐근에. 아이고, 옛날엔 듬북이라고. 거름. 그거 아녀믄 보릴 못 헤 먹어. 경허민 메역 즈물야난 꺄텐 그 듬북을 즈물양은에 막 베 이신 사름은 베 줄아시 영 헤영 막 저 출 낮으로 비듯이 바당에 강 헤여오곡. 경 허멍 흐 늘씩 헤영 놀어근에 보리 이젠 밧 갈 앙 고랑에 다 끌앙. 이젠 그 보리씨 그레 뵈여근에 헤여 먹어난.

@ 건 듬북예?

듬북.

@ 게믄 아까 줄아시렌 현 거는 뭐우과?

줄아시엔 현 건 낮게. 막 호미 닳은 거 막 절로 이 지레긴 똥 거라.

@ 질어예?

으. 게른 물 아래 들이쳐근에 양쪽에서 사근에 막 비민 또 뜬 베에선 또 건져놓곡이. 공쟁잇대라고이. 뭇허영 허는 거. 건져놓고.

@ 공쟁잇대로 헤영 건전 농곡 줄아시로 비면예?

줄아시로 비민 경해난. 우린 줄아시 엇이난 그냥 즈물곡. 또 브름 이제 하늬브름 불민 하늬브름 우의 가근에 막 그냥 캐영 내불민 올라오민 또 건져내여근에 널곡 경허멍 해난 옛날엔. 요즘덜은 아이고 그런 것도 아녀곡. 비료로만 사용헤영.

@ 게른 그 눈 늘은 무슨 늘 험니까? 여기서는. 경헤영 듬북 헤영 왕 늘믄?

듬북늘.

@ 듬북늘. 응. 게영 늘영 낫당 그리 보릿 고량에 꿀양예?

게영 그거 헤나민 감저도 잘 들곡 그거 들어나민.

@ 아아.

조도 잘 뒹곡.

@ 걸름으로는 채고구나예? 아까 이제 다시 꺼골로 돌아강예? 아까 마농허고 삼춘, 마농 데우쳐 농곡 메역 이제 헤놓고 이제 무친 음식을 여기선 뭇런 굽니까? 여기서는.

그냥 메역 무청. “마농에 메역 무청 오라.” 허민. 듬북 이제 마중허레 가명 그것이 제일 큰 반찬이라.

@ 아아.

판 반찬이.

@ 마농예.

맛도 싯곡 기름 농곡 경허민.

@ 마중허러 가젠 밥 가정 가야 됩니까.

가정 가 정심.

@ 게은 “마농에 메역 낡 무청오라.” 영 허여마썸. 그냥 호루종일 바당에 사난예. 게연 그치룩헤 영은에 이제 메역을 이제 하면 그 메역 즈물러 가젠 허면 뭘뭘 집의서 준비헤영 가는 거 이실 거 아니우과? 뭘뭘 옛날은 뭘뭘 준비허영은에 물질허젠 허면 뭘뭘 준비헤 갑니까?

뭘뭘 준비헤. 테왁 헤근에. 옛날은 쿡테왁에 산디찍 꼬왕 망사리 멩정 경허영 허여 낫주게.

@ 산두찍으로?

호미허곡.

@ 호미허곡. 그 호미는 무슨 호미렌 헤마씨? 메역 즈무는?

중게호미.

@ 중게호미. 게은 그것만 가정 가민 뉘?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그때는 옷도 고무옷도 엇고. 그냥 물속곳허고 이디는 물적삼도 엇고. 물수건 광 목 헤근에 딱 즐라메곡 경 눈 써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헌 눈.

@ 그 눈은 뭘렌 헤마씨? 이만큼 헌 눈?

그냥 눈.

@ 족은눈?

족은눈.

@ 그 눈 썩. 적삼도 엇이 속곳으로.

속곳으로.

@ 으, 경행 허민 얼지 아녀마씨?

얼어도게. 이제 ㄴ치 오래 살지 아녀난. 시간 마련헤근에.

@ 갯은에 그치록허영은에 가면 들어갓단 나오면 막 얼면?

아이고, 뚜테기 둘러써근에 막 불초아이. 영 둘러앗앙 불초와.

@ 경허영은에 거기서 이제 그 불초는 디를 뒀렌 헤마씨? 여기서는?

불턱.

@ 불턱. 게문 불턱에 앓으믄 짝 사름덜 다 갓다가 나와.

으. 다 갓단.

@ 거기서 애기 젓도 맥이고?

에이고, 애기 젓 맥이고.

@ 그 불턱 이야기 한번 헤줍서. 불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서는.

불턱은 저 돌로 헤근에 뺱허게 다왕. 브름으지 뵈 동산 뒀허여근에 이젠 뺱허게 다와근에 불턱 흔 세 곤데 영 놓게시리. 서너곤데 놓게. 저기 가는 사름. 저 안네 가는 사름은 비양 안네 가는 사름은 셋덕엔 허곡.

@ 셋덕?

셋덕. 덕 이름이 셋덕. 두 번차 가는 거난.

@ 그런 식으로 이제 헤영 현 거라예. 게영은에 메역 즈물면은 그 즈물앙 왕 이제 부짱 널영예. 그렇게 허면 다 꺾나는 거고. 메역 다 꺾나면은 뭘 헛수과?

메역 다 꺾나민 그땐 보리 ㄱ실 헤여 뵈.

@ 예.

2.2.3. 무레질 이야기

조 헤여근에 다 검질메곡 헤여뵈 이때 나민 칠월 들 나민 고동 잡기. 구쟁이 잡기 시작해.

@ 으, 구쟁이에. 그 구쟁이 잡던 얘기 좀 해줍서? 어떤 구쟁이를 잡아신디.

그냥 바당에 기자 그때는 금허지 아녀. 이제 7치이. 그냥 이녁 멋대로 그자 아무 디라도 강 들어근에 기자 가구정헌 사름은 가곡. 실픈 사름은 말고. 일 난 사름은 안 가고 일 어신 사름은 가곡.

@ 그 구쟁이 잡는 거를 헛무레엔 험니까? 여기서는.

헛무레.

@ 헛무레. 메역허는 거는 헛무레엔 안 허지예?

건 메역.

@ 무사 경허는 건고마씨?

몰라. 무사사 경험신디 그자 헛무레엔 허난 우리 헛무레만 알안.

@ 게른 헛물에 강은에 잡는 거는 뭐뭐 잡아마씨? 그 구쟁이 잡곡.

구쟁이허곡. 점복허곡 그거 두 가지.

@ 주로 그거예?

계난 그 혼 팔월 들 나민 이제 바당성기라고. 성기 그 옛날말론 퀴. 퀴엔 헛지. 성기보고.

@ 아 옛날 말은 퀴헤난예?

퀴. 막 옛날 말은. 그거 이제 빨강헌 거 건 바당에만 감태왔디 잇는 거. 그거 이제 해당 까근에 그땐 키로로 아녀고 양 수로. 혼 냥 두 냥 경헨.

@ 게른 그 바당성기는 색깔 뽕만 빨강헌 게 바당성기우과? 요즘 그냥 7치 나는 게 아니고.

7치 나는 거 아니고. 건 몸뎡이가 붙어.

@ 붙어예?

까시고 뭐이고 벌경. 또 알 퀴도 틀리고 또락또락.

@ 아 그게 더 맛있어예? 아 게민 성기도 으라가지커라예. 이름이.

성기허고 슝허고 두 가지.

@ 으 두 가진데?

붉은 거꺼장허민 세 가지.

@ 세 가지. 게민 그 그냥 거무스름헌 거는 무슨 성기 헤마씨?

그냥 성기.

@ 건 성기. 그냥 성기렌 허고 특별히 아까 감태왔디 나는 거는?

붉은성기.

@ 붉은성기렌 허는 거예? 붉은퀴렌은 안 험니까? 옛날엔?

우린 퀴허는 뭇이가 지나벗주게이.

@ 아아. 게민 그 할머니 전에가 퀴렌 허는 거라예? 삼촌네는 그냥 붉은성기.

붉은성기. 어린 때는 퀴엔 헛주마는 옥은 후제로 그자 퀴. 성기. 붉은성기. 그냥. 육지 성기보단 여기 건 틀려. 육지 거는 까시가 둥글렁히 다 돌논디 이디 거는 혼 쪽이 메웃허민 하이까라성기엔 허주. 이디 거 보고.

@ 아, 여기 거 보고 하이까라성기?

하이까라성기.

@ 아, 건 잘 생겼다는 거우과? 무사.

몰라. 혼쪽더레 메웃허게 뭇허난 건가.

@ 으. 한쪽으로만 혼곶 틀려예. 그거를 하이까라성기렌예. 그치룩 허영은예 헛물에 허곡 허면은. 그 헛물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는 거우과?

옛날?

@ 예.

옛날도 그자 느랑 조 ㄱ실허명도 허고 보리ㄱ실만 꺾나불민. 보리ㄱ실 헐 때도 그자 마지민 강 잡아당 떡곡 고기도 쏘고.

@ 마지막?

비 오랑. 밧디 못 강 놀 땐 느랑 원 금허지 아녕 동철 엇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자. 태풍만 안 불민 브름으지로 강 잡아당. 감만 가민 기자 혼 구덕씩 잡양오난게. 고냥마다 속닥속닥. 아이고 요즘은 엇어도.

@ 게문 그 저기 구쟁이 잡아당은에 그거는 뭘로 헤영 먹어마씨?

그땐 구쟁이 잡아당 젓 담양. 젓 담양. 젓도 그냥 썰어근에 담지 안 허곡 영 허영 ㄱ사근에 영 자청이. 경허영 소곰에 딱 헛당 건져내명 양념 무치명 먹어.

@ 게문 그 구쟁이젓 담는 거를 한번 알아줘 봅서?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어떻게 담는 건지?

게메. 옛날은 소곰만 헤영 그자 담아났주게.

@ 으, 게문 그 젓은 무슨 젓 헤여마씨?

고동젓.

@ 고동젓. 구쟁이젓이렌은 아녀곡?

구쟁이. 게메 우리 시대는 구쟁인 지나불고.

@ 게난 삼춘네 어머니 시절엔?

어머니 시절엔 구쟁이엔 헤낫주. 우리 어린 때는 구쟁이 구쟁이 헤신디 옥아가난 고동 고동헤부난 우린 고동만 썰주게.

@ 쟁은에 그 전복같은 거는 텅 오면은?

점복은 옛날은 먹어벼도 우리 시절엔 텅 오민 터근에 게웃 ㄱ뜬 건 젓 담양 먹고 전복은 소곰 헤영 건복이라고. 물리왕 경행 뜨명 풀안.

@ 아아 소금 행은에 들랑 풀아서예?

막 들류지 안 허곡. 시득시득허민 소금에 묻엇다근에. 기사 근 나간데.

@ 경허영 그렇게 들렁?

고동도 저 소곰 헛다근에 시청 똥 발강허게 뉘허민 폐납. 폐납 폐납 것ㄴ라. 고동폐납.

@ 고동폐납?

영허영 고지에 열 개씩 꺾여근에 풀곡 경헤난.

@ 아아 그걸 고동폐납헤예.

폐납.

@ 그, 그러면 여기는 혹시 그 생선 같은 거. 여기 저립들 막 잡아놨잖아예. 그걸로 헤갓고 폐납을 만들진 안 험니까?

저립. 저립은 그런 건 아녀고. 그자 사다근에 막 짜게 근헤근에 딱 놔심세로 그자 건져내명 물 놔볼명 그렇게 소곰헤도 맛있는 거라. 저립은.

@ 저립은예? 게른 폐납 허는 거는 어떤 거 어떤 거를 폐납허영 풀아신고예?

고동. 고동.

@ 고동? 점복은?

점복 숙. 저 그냥 것ㄴ라 건복이라고.

@ 건복헤영근에 허곡. 고동만 폐납 헤갓고 파는 거라예. 고지에 헤 갓고예.

들류왕. 바짝 들리왕.

@ 아 바짝 들리왕은에 그걸로.

게른 혼 고지에 얼마씩.

@ 게문 그건 어떤 식으로 혜영 먹으셨어? 그건.

시간 사름덜이 어떻사 혜영 먹는다.

@ 여기에서는 그치록 물렁은에 먹어보진 아녜수과?

무사 우린 그냥게 영게 먹어봤주. 그걸로 반찬을 허나 무신 건 아녀.

@ 게영 열 개 행은에 혼 고지. 경허영 혼 고지 허민 얼마허여마씨? 그거는.

에이고, 그때 시절에사 무신 혼 고지에 삼십 원도 가곡 얼마 가곡. 값이 잇어서.

@ 그런 식으로 혜영은에 고동은 폐납 만들양은에 또 풀기도 허곡. 그냥도 풀기도 허곡. 게문 그 고동도 종류가 잇지에. 큰 거 작은 거 허영 일름 불르는 일름덜도 잇지 아녀우과?

아 고동은 그냥 큰 거 쌀고동. 준 것그란 쌀고동이엔 허곡. 큰 건 이제 그냥.

@ 그 덕살 이런 거 저기 뽕이 엇어져분?

민둥고동.

@ 으?

민둥고동.

@ 민둥고동? 그 다음에 아주 준 건마씨?

쌀고동계.

@ 더 작은 거. 쌀고동보다 더 작은 거?

더 준 건?

@ 좁쌀고동?

좁쌀고동. 흠. 잘 아네.

@ 그렇게 혜영 이제 하고. 이제는 돌아강 아까는 메역을 헤여서예. 삼춘. 듬복은 어느 철에 헛수과?

듬북은 게메 삼월 구물엿 스월들에. 메역 낫나민 듬북 즈물아.

2.2.4. 모자반(뫼) 이야기

@ 예 그거 말고 우리가 먹는 뫼은?

뫼은?

@ 뫼 하영 즈물아낫수가?

아무 디나 뫼은 나지 아녕. 우리 비양벳기.

@ 아 그럼니까? 아 우도도에. 뫼 헛던 얘기 혼번 헤줍서? 뫼은 언제 허곡 어떻게 허는 건지 그런 얘기?

옛날에는 그냥 동네로도 즈물고. 또 경 아년 땀 그자 제지금 가근에 기냥 테왁 행강은에 막 담양 밀려 오명 뒤에서 마중허곡 경 허명도 허곡. 물류와근에 부산, 상회에 강은에 풀아오곡. 발양.

@ 발양 강에. 그때 허는 뫼은 어떤 뫼들인고예?

내내 그자 이제 나는 뫼.

@ 그 일름은 뫼우과?

게메 뫼.

@ 뫼. 춤뫼? 그계 춤뫼이우과?

먹는 것이 춤뫼.

@ 으 뫼에. 게문 이 바당에 나는 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어마씨?

종류? 잇어.

@ 먹을 수 잇는 거?

먹을 수 잇는 거 주뫼이엔 현 거 잇주게.

@ 주뭉?

예.

@ 주뭉하고예 삼촌 아까 말했던 그 뭉하고 어떻 틀린 거마씨?

사락사락. 색깔부터 틀려.

@ 아, 춤뭉은 어떤 색깔이우파?

춤뭉은 파랑허연 문지락허게.

@ 으. 주뭉은?

주뭉은 헛쓸 검시롱.

@ 검시롱허곡.

그거는 그냥 해당 무신 푼나 무신 거 아녕 기자 먹고 싶은 사름덜 기자 해당 떡곡.

@ 경 해근에 이제 그거는 막 많이 풀 거나 허는 건 아니고예. 주뭉은예. 그 다음에 그 그러면 옛날 뭉을 형 오른예 그 뭉으로 헤 먹었던 음식들은 어떤 거 있어마씨?

뭉은 주루 똬야지고기. 이제 옛날은 잔치 때에 똬야지 집의서 숲으멍 헤나민 그 뭉 낱 깔려근에 온 동네 다 서너 사발 씩 놓멍 다 나누곡 경 해난.

@ 게믄 집에 다 가져가예? 동네마다.

동네마다 아니. 이 동네서만.

@ 이 동네에서. 이 비양동에서 허면 그 뭉국 허면은 잔치 때 가져가? 그거는 무슨 국이우파? 그 뭉 낱.

똬국물.

@ 똬국물예. 게믄 그 국 일름을 이 동네서는 뭐렌 헤마씨?

게메 똬국물엔 허주게. 똬야지 숲아난 국물엔 뭉 낱 깔린 건 똬국물.

@ 돛국물. 뭍국엔도 아녀고예. 옛날에는.

옛날엔 돛국물.

@ 돛국물. 으 돛국물에 뭍 넣은에 끌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헤 먹는 건 어떤 거 이신고예?

다른 건 기자 뭍즈밤엔 헤근에 뭍 물류왓당 빨아근에 데쳐근에 저 춤 무쳐근에 지름 놓곡 장물 놓곡 행 무쳐근에.

@ 그거를 무슨 거렌 헤마씨?

뭍즈밤.

@ 아아. 뭍즈밤. 경허여근에 거 데청 무치는 거예. 무치는 걸 뭍즈밤.

뭍즈밤.

@ 그 뭍즈밤 말고 뭐 장물에 컷당 먹거나 영은 아녜수가? 뭍을. 여기서는.

그런 건 아녀고.

@ 웬장에 문엇당도 안 먹고예. 여기는 워낙 많으니까.

이던 그런. 육지는 이제 그 저 주뭍이라고 듬북. 이디션 걸름허는 건디 이제 그거 헤다근 소치 소치 허대. 육지말로 그것ᄇ라. 저 경북 가난. 경행 그거 막 어린 때 헤다근에 웬장에 문으믄 그렇게 우리 주인네 주민 맛있게 잘 먹어. 혼번 헤 먹어보젠 헤도 잘 헤지질 아녀.

@ 경 행은에 뭍은 보통 이제 물류왕은에 폼니까?

물류왕.

@ 아, 물류왕 풀아?

놀차도 요즘은 놀차로 많이 풀아. 막 상인 오랑은에 사가.

@ 요즘은 놀차로 풀곡. 옛날에는 이제 물류왕예. 갯은에 이제 물류왕은에 풀곡. 뭍허레 가전 허면 가정가는 도구들은 어떤 걸 가정 가야 뉘마씨? 뭍은.

게메 메역 즈물듯이 망아리 호미 경 허영 가근에 즈물멍 막 밀려오민 곳디선 남자덜 막 까꾸리로 곳어다근에 퍼놓민 또 여자덜은 물에 안 들어간 사름덜은 그거 듬북 ㄱ뽀 거 떼여볼멍 이제 답아근에. 혼 육십 키로 거저 나가는 거 오십 키로씩 허멍 생인덜안티 풀곡.

@ 건 늘차 푸는 거예?

장스꾼덜 이제 식당 보는 사름덜 풀아주렌 허민 멧 개씩 풀아주고. 남은 건 톨류고.

@ 남은 건 톨류고, 옛날은 주로 다 톨류앗지예?

옛날엔 주로. 다 톨류고.

@ 그치록 허영은에 뭍이라든가 이렇게 허민 영 동글락헌 거 영 잇지예?

부끌레기.

@ 건 부끌레기 험니까? 어 부끌레기 잇고 허면. 그거 이제 다 부끌레기 큰 거 허고 작은 거 허고 도 상품이 트납니까?

부끌레기가 만허민 상품이 안 뉘주게.

@ 아. 건 늘으면 나는 거마씨?

이 바당에 나는 건 부끌레기가 줌질앙 그런 굵은 것이 엇어. 왕부끌레기가 엇어.

@ 아 왕부끌레기가 엇어예. 게민 여기는 거의다 상품. 이 바당이 막 좋은 바당이구나예.

막 뭍도 잘 나곡. 올히도 막 하영 난.

2.2.5. 톳(톨) 이야기

@ 뭍 말고 이제 톳은 어떻험니까? 여기는 톳 험니까?

톳도 아 스개 반에 느뵤. 이 동네가 반이 네 개주게. 일반 이반 삼반 스반.

@ 비양도에서만예?

게민 딱딱 구역을 갈라. 이제 동동믈이. 서등믈. 하나지. 이제 이 볼레낭알. 계영

갈라근에 돌아가멍. 올히 헤나민 또 내년은 이디, 또 이디 영 허영 다 돌아가멍.

@ 아아 네 군데를 나뉘은에 이 구역도 다 나뉘.

동동믈 올힌 헤나민 내년은 서동믈 우내년은 또 하나지 또 내후년은 네 번찬 또 볼레낭알.

@ 아 이렇게 서로 교환허멍에. 경해야 공평허니까.

예. 계난 한 디 죽은 디 이제 잘나는 구미도 싯고 바다도 족곡 경허난 올히 이제 작으민 바당 내년은 바당 좋은 디 가민 또 많이 나곡 그렇게 돌아가멍.

@ 그치룩 허영 허게 뉘면 그 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취허는 거우과?

톨?

@ 예.

이월 보름물찌. 음력으로 이월 보름물찌. 이제 물질허멍. 고동 잡으멍. 물질 일곱물 날꺼지 물질을 허주게. 계민 으덱물날부터 톨 허민 혼 나올쫘 이제 열두물날꺼지 이제 톨 헤낭. 또 이젠 조금에 이제 또 한조금날부떠 고동 잡당 또 으덱물날 일곱물날꺼지 허민 으덱물날꺼진 두 물찌 허민 쫘나. 혼 물찌에도 쫘나는 디도 싯고. 그뭇물찌꺼지. 이월그뭇물찌꺼지. 계영 쫘나민 이젠 삼월 들은 나민 우미 허기 시작헤.

@ 계근 우미 허기 전에에 그 톨은 종류가 엇어마씨?

톨은 종류 엇어.

@ 딱 혼 종류?

종류. 쥌 것고라 봉당톨. 영 즐른 거. 큰 건 그냥 톨.

@ 아 쥌 거는 다시 한번 뉘렌마씨?

봉당톨.

@ 봉당톨.

몽클몽클현 거.

@ 몽클몽클허영 존 거를 봉당톨이렌예?

봉당톨.

@ 아아. 게근에 그 봉당톨은 상품이 안 되는 거 아니예? 거는 어린 거를 말허는 거우과? 아니면 그 길이가 쫄른 거를 얘기하는 거?

길이가 쫄른 거. 꺾기냥 비여놓을 수 이신 건 다 꺾.

@ 건디 쫄른 거를 봉당톨이렌 허는 거라예. 아아. 그런 건 상품이 안 되는 거 아니예?

안 돼어도 기자 같이 허민 폴아먹고. 툴류왕.

@ 예. 꺾치 으으.

털어지는 건 털어지고.

@ 아 건 봉당톨. 게근 올해도 툴 허영 헛수과?

올히도 허영 헨.

@ 그 툴은 어떤 식으로 허영은에 푸는 거우과?

툴류와근에 어협에서 이제 검사헤영. 어협에서 다 받아가. 올히가 십오만 얼마 가신가?

@ 올해는 갑 허영 나간예? 저 일본 쪽에 안 돼영 허니까. 경허연 이제 그 툴을 허면 그 다음 우미? 우미도 우미는 어느 철에 험니까?

게메 우따 삼월 이제 툴만 꺾나민 시작. 삼월 보름물찌부터 시작허는 거.

2.2.6. 우뭇가사리(우미) 이야기

@ 우미는 어떤 식으로 허영은에 즈물고 어떤 식으로 헤영은에 먹을 때까지 한번 곱아줘줍서?

아 바당을 딱 귀역 그치명. 수늑바위도 요쪽이 세 군데 나뉘. 어느 동산으로 강 뽕 박헤영 가근에 줄 헤영 딱 톱왕 그 선을 넘어가지 못허게. 곰 딱 뇌근에 시간 세 시간 이면 세 시간 딱 뇌근에 이제 고동 불영 나라 고동 불민 다 나와.

@ 아아.

흐루 흐 번벳기 안 뉘여.

@ 아 우미는예? 건 옛날도 경 흐 번.

옛날은 우미 옛날도 그자 쪼곰씩 난. 옛날도 그런 식으로 고동 불멍. 우리 이제 시대 나난 헤왓주기. 나 결혼헐 때만 헤도 쓰무 열아흠에 결혼헐에 여기 오란 이 동네 완 살아신디 우미 구경을 못 헤나서. 안 나. 경헤가단 메역만 주로 멧 년 동안 헤 가단 우미 남 시작허난 우미 많이 난에 즈물아신디 또 중간에 멧 년 동안 나단에 나는 바당이 세 군텐 원 우미 안 나.

@ 아아 게문 여기 우미 나는 바당은 어디우팍?

이 쪽이. 볼락통으로 하나지. 양식장 요디.

@ 거기에서만 나니까 딱 나뉘 구역을 나뉘은에 허는 거라예. 게영. 게도 우미도 우미는 호미로 허는 게 아니잖아예.

손으로 그냥.

@ 게문 우미는 손으로 어떻 헌 텐 험니까?

그냥 손으로게 강 즈물앙.

@ 손으로 즈물앙예. 건 메염덴 험니까? 즈문다 멘다.

궂으로 강 허는 건 우미 메레 가게.

@ 아, 궂으로 허는 건 메고.

으. 메고. 그자 물에 드는 건 즈무는 거.

@ 아아 물에 드는 건 즈무는 거예.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 아아 게영은에 그때는 다른 기구가 필요어신 거네예. 우미는예?

으, 손으로만.

@ 아아. 게문 우미는 어떤 식으로 그 즈물양 오면 어떤 식으로 헤영 건 풀아마씨?

그냥 막 널른 뿔에덜 강, 저레덜토 가고. 저쪽 사름들은 저디 그 농협 앞이 농협 그.

@ 거기도 막 넣어십디다. 옛날보난.

그기 막 널고. 또 밑에 사름덜은 길에도 널곡 이디. 바닷가 이신 디 그 터웃개라고 거기도 널고. 거기서 몰랴근에 가져와.

@ 우미는 다른 거허고 달리 먹젠 허면 또 공정이 폼 많지에. 어미는 어떤 식으로 헤영 먹었수과?

우미?

@ 예.

그냥 발레영. 요즘 전이는 시경 그자 널민 메틀 영 널주마는 요즘 사름덜은 그자 시꺼근에 그자 비니루 톡 더경 내부난 그냥 헤영케 발아.

@ 아 옛날에는 시경은에 널고 시경 널고 으.

경헤나신디.

@ 경허영예. 게영 그거는 먹젠 허민 어떤 식으로 헹 먹는 거우과?

계난 그거 쫘아근에 무신 콩꺾르나 무시거 놔근에 먹고.

@ 그 옛날에 보니까 이 우미도 즈물게 뉘면 맨처음에 즈무는 우미하고.

조각우미.

@ 아 맨처음에 허는 거는 조각우미.

조각우미.

@ 예. 두번째 허는 건?

두 번째 허는 건 만곽우미.

@ 만곽우미. 아 메역도 그렇게 험니까?

메역은 조각 무시거 없고. 조각메역엔도 허긴 허주.

@ 음 처음에 현 거예. 조각메역. 만곽은?

늦게 현 거. 마즈막에.

@ 그거를 뭇렌헤마씨?

조각메역.

@ 또 나중에 현 거는?

그냥 만곽메역.

@ 아 만곽메역. 건 나중에 현 거예. 아무래도 처음에 현 조각메역이나 조각우미같은 게 맛 좋긴 걸 거라예. 경은 안 험니까?

아 먹는 데는 뭐 지장 엇주마는 아멩헤도 조각 것이 적도 엇고 우미가 곱주게. 발래는 디. 뭇 내중에 현 건 막 적이 부땡 방땡이로 막 두드려. 경헤영 폴아먹젠.

@ 아 방땡이로 적 다 떼여땡니까.

적 다 떼렌.

@ 게민 그 옛날 이 방땡이 두들겼던 그 방땡이 일름도 있어마씨?

마께.

@ 마께로. 으. 마께로 헤영은예. 게영 그런 식으로 허는데 우미도 보니까 종류가 막 으라 가지 이신 거 닻읍디다.

우미.

@ 예.

섭우미, 돌우미, 청우미, 광추우미.

@ 광추우미.

그건 이젠 받아가도 아녀.

@ 아 광추우미는예?

돌우미도 돌우미 발래영 씹아 보민 것이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쩐 일인지 그 받아가질 아녀. 요 흔거리엔 딱로. 딱로 그거 메영은에 곳으로 강 메민 시꺼 갈 때 상 인덜이 계난 옛날은 시꺼나부난게. 시끌 때 줄아부만 나가부덴 걸 아니받안. 옛날은 막 주로 해난.

@ 아 옛날에는 돌우미를?

어, 돌우미 막. 돌우미 그 종지우미 그것도 안 나는 것덜 막 할망덜 메영 서경은에 풀아먹고.

@ 그러면은예 아까 삼춘. 섭우미는 어떤 우미우과?

거 굵은 거게.

@ 굵은 거. 주로 허는 게 그거우과?

주로.

@ 아. 섭우미. 그 다음 돌우미는 돌 우의 나는 거?

곳딕.

@ 아 곳딕 나는 건 돌우미. 그 다음에 아까 광추우미는 어떤 거우과?

광추우미는 흐썰 저 뻗세고 양이 그건 안 나온덴. 계연 안 받아간. 멧 년 전꺼진 받 안게 흔 그거 안 받건지가 흔 삼 년은 뒤여신가?

@ 그 다음엔 아까 우미 종류 근게 뵈 잇었지? 돌우미 섭우미?

청우미?

@ 어 청우미는 어떤 거우과

청우미는 퍼렁허여근에 바당에서 써근 거라.

@ 아아.

우민 우민디이.

@ 게난 그것도 헤영은에 먹긴 먹어마씨?

그건도 발긴 발아.

@ 맞은?

건 헤보지 아너난.

@ 아 헤보진 그런 거는 안 허는구나예?

아이 청우민 아너봏주게.

@ 예예. 그 다음에 아까 막 포그만헌 우미는 뭐렌 헛수과?

돌우미.

@ 돌우미 말고. 아까 할망들 뭐헝 서경 풀암젠 헌 거.

종지우미이.

@ 종지우미. 건 뭐우과? 종지우민?

종지우민 뿃산디게 돌우미 닳은 거게. 경 막 메여당은에게 서끄명덜 경 풀앙.

@ 경허지 말아야 뉘는다.

말아야 쉐 거.

@ 그치룩헤영은에 이제 우미는 허는 거라예. 아까 그 톨 허는 우미는 반찬허는 거는. 우미는 메는 것도 우미고 반찬허는 것도 우미?

우미.

@ 예. 우미로 뭐 다른 거 허는 것도 잇었수과?

우미 슌앙게 얼루민게 반찬도 헤영 떡곡 그냥 그자 콩ㄱ르 ㄱ튼 거나 놈근에 탕도 먹고. 요즘 우리 하르방은 무신 뭐 난에 요구르트 ㄱ튼 거 그자 우유 콩우유 ㄱ튼 거 그거 놓난 더 좋덴. 옛날은 우미 슌앙 먹을 땐 간장에 세우리 썰어 놈근에 낱 먹어나 신디.

@ 그게 더 맛이 잇는다.

요즘은.

@ 콩 우에 아 그치록 콩 우에 낱 그거 헤영 드섬수과?

경 헤영 먹어. 하르방은.

@ 게영은에 경하고. 아까 톨은 톨로 헤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 잇어마씨? 그 말은 안 곺아졌어.

톨. 톨은 그 어린 때는게 기자 조끔씩 몰르게 헤당 물 팔팔 끝영 살짝 데청 파랑허게 헤근에 무청 떡곡. 또 너무 세민 슌앙. 폭 슌아근에 기자 웬장 풀어놓곡 식초 놓곡 헤근에 세콤 달콤허게 무청도 떡곡 여름에 냉국 허영도 떡곡.

@ 경허영은에 무친 반찬은 무슨 반찬 험니까?

톨ㄱ물.

@ 톨ㄱ물. 그 다음에 그걸로 냉국헌 거는?

냉국이엔 허영 그거 톨냉국.

@ 톨냉국예? 옛날에 이게 톨밥들도 험 먹었다고 허는 얘기?

아. 옛날에는 쌀이 엇이난 톨에 무신 ㄱ르 ㄱ튼 것도 놈근도 험 먹고. 경. 우린 안 먹어봤주마는 우리 시절에도 그런 톨밥 먹고 프레이 프레이밥 그런 거 우리 커 올 때 흐 멧 설 때 뒤여시니. 열서너 설 막 송년들언에 계난 우리 집더렌 양석 걱정은 아너난 그런 귀험은 물론디 놈들이 막 톨밥만 먹어부난 막 얼굴이 퉁퉁 붓엄찌 뒤험찌 물릇헤 단에 다 슌앙 먹고 다 먹어난 생이라. 험헌 **를 다 먹은 생이라.

@ 삼촌네 그런 거 안 먹어봤구나예?

우리도 안 먹으면 뭐허카부덴 그땐 이신 사름도 막 내여 낱 공출로 헤영 다 털어가 곡 다 헤낫주게. 툄은 아니 먹어보고. 폐. 폐 헤단에 이젠 쏘안에 놓난 풋밥 ㄱ치 발강 현 게 거칠긴 헤도 먹기는 좋안게.

@ 아 페로 밥을 현 거라마씨?

어어. 페로 현에.

@ 게른 폐밥?

으. 폐밥.

아 게른 그걸로 쏘에 폐를 넣어마씨? 으 쏘에.

@ 아 밥을 현 거라예?

프레밥은 프레 영 놔근에 밥 허는디이 프레 영 놔그네 그 우티레 이젠 보리쫄 ㄱ ㄱ르영 서경은에 밥에 서경 두어 번 헤신디 프레 내 난 게. 폐는 냄새 안 나고.

@ 아 폐는 냄새 안 나고예. 폐밥도 헝 먹고. 게난 여기는 바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먹을 거는 막 궁허지 아녀지는 아녜수과예? 다른 디 하고 비교헛을 때.

궁허진 아녜주게.

2.2.7. 바룻잡이

@ 게른 예?

ㄱ으로 가근에 헤여 오는 것도 만추게. 이제도 ㄱ벳 ㄱ튼 거 보말 ㄱ뜬 거.

@ 게난에 이 바당에서 나는 아까 ㄱ벳 보말에 이런 거 한번 쪽 ㄱ아쥬뵍서. 어떤 것들이 이신디 사. 이 바당에 나는 거 삼촌 허여 본 거.

이 바당에 나는 거. ㄱ벳 ㄱ이 뭐 ㄱ등 ㄱ뜬 것도 ㄱ아.

@ 문딱 ㄱ아뵍서?

고동 점복 오분제기 성기 바당성기 잇고. 그것덜. 또 슝 그거.

@ 게른예. 여기 아까 보말도 안 낄고?

보말.

@ 보말?

수두리보말 먹보말 텅쟁이 막 우의 나는 건 텅쟁이. 돌포말 ㄱ메기 가마귀보말 경.

@ 보말 종류도 하다예? 텅쟁이보말은 어떤 거우과?

먹보말 닳은 건디 까망헌 게 막 우의. 우의 나는 거 멩끌멩멩끌.

@ 아 것도 먹어마씨?

먹어. 먹보말 닳은 거. 먹보말 ㄱ뜬 거. 이름만 텅쟁이.

@ 막 까망헌 거?

까망.

@ 그게 쥬 윗뻗디 나는 거우과?

으. 막 우의.

@ 막 우의.

물곰예. 영 성창 바우 ㄱ뜬 디도 영. 요즘 하도 잡아부난 엇주마는.

@ 게른예 아까는 그거고 군벗도 종류가 막 으이라 개렌 헉디다.

군벗?

@ 예.

군벗. 군벗. 또 빨강헤근예 저 무신 꺾데기 안 부뜬 건 망군벗.

@ 망군벳.

으 하르비군벳. 또 곶배군벳 그거.

@ 하래비군벳은 어떤 거우과?

하래비군벳은 박삭허게 터럭 돋고 돌 일리믄 잇는 거. 물싹물싹헌 거.

@ 거 물싹물싹헤마씨?

으 데우치민 막 무랑무랑헤영 니 어신 할망덜.

@ 아 보통 군벳 딱딱허지 아녘니까예? 아 건디 건 물싹물싹헤. 그 다음에 곶배군벳은?

곶배군벳은 막 물 아래 우리 숨 잡으멍 돌 일려도 싹곡. 그런 거. 거푸레기 막 그런. 횡국도 헤영 먹곡 군벳.

@ 예.

또 성귀ㄱ튼 거 놔근에예 또 무청은예 놔*** 먹고 간장에도 헤어도 좋고.

@ 경헤근에 이제 이제 하고 군벳. 그 다음에 가메기보말은?

가메기보말은 까망헤근에 영 쫄락헌 거.

@ 아 **. 여기 그 다음에 그 메옹기.

메옹기. 메옹기 또 마타실.

@ 예 그 마타실허고 메옹기는 어뎡 틀립니까?

메옹기는 흐쓸 영 큰 거. 마타실은 또 뽕족뽕족뽕족헝 까망헌 거 이시메.

@ 것도 먹어마씨?

거 맛싹어. 거 먹어나민 막 입도 들큼허고.

@ 아 메옹기에. 흐끔 쑤우릉허지 아녘니까?

메옹긴 씨지 아녀고. 돌포말이 씨우룽.

@ 아 돌포말이 씨우룽헌 거예. 그 다음은 삼춘 이제 그 보말 말고.

대오삭도 잇고. 대오삭.

@ 예 대오삭.

돌에 박아진 거?

@ 예. 이디 잇수과?

베와야. 나 해다 낀. 어저께 뭐헨 흥꿈 해오란이. 이거.

@ 아아.

군벗은 이거. 이런 거. 이건 대오삭. 어제께.

@ 아 이게 대오삭예?

이건 군벗.

@ 이건 군벗. 이거허고 이거 틀리네?

이건 망군벗엔 현 거.

@ 이게 망군벗이우과?

뭐 안 부튼 거. 질겨? 그거께 내내 망군벗.

@ 이런 옆애가 안 부튼 거우과?

어 안 부튼 거. 그거. 요건 까만 현 거 부튼 거 막 밀어부난.

@ 이건 군벗 이건 망군벗. 게영 밖으로 이제 그 뭘 본 거 알아야는데. 봐야 뉘는데.

밧켓딴 보민 이 색깔로 다 부떠 잇어. 이 색깔로.

@ 이런 거 잡으레 갈 때 언제 가는 거우과? 이런 거 사진?

오늘 가민 나오주.

@ 나옵니까?

물쌀 거.

@ 으음.

요거는 우에 잇고. 그건 흐썰 밑에 물싸사. 툃밧디.

@ 대오삭도 이렇게 험갓고 이거 까먹는 거고.

그게 씹아부난 거 못 먹어.

@ 이거는 무신 거?

내내 이 군벳인디이 아씩 데퍼야주 오래 씹으민 못 먹어.

@ 아 이건 아씩만 씹어야야 됴마씨?

까먹어봐 줄엇다이. 이거 까 먹어 봐. 요걸로 요걸로 까 먹어.

@ 으음, 이게 대오삭예.

막 줄엇저. 더 슬져나신디. 마에.

2.2.8. 기타 바다풀

@ 바당에 나는 그 풀들 잇지 아녀우과? 먹는 거 어떻 거 어떻 것덜 이신고예?

바당에 나는 거?

@ 예.

가시리도 잇고이.

@ 예.

마카시리엔 현 건 또 좀 종류가 다른 거.

@ 예 마카시리? 마카시린 어떤 거우과?

게메 가시린디 우미ㄴ치 생긴 거 그것덜은 요즘 메여근에 받아가는 생이라. 율히.

@ 우미 식으로예? 마카시리.

마카시리. 그냥 불통가시리엔 현 건 메여당 국도 끌렁 먹고.

@ 불통가시리.

으 흐쫄 영 뭐헌 거. 녁페도 잇곡 메역세. 메역 닳은 거. ㄴ되 나는 거 도박도 잇고 진도밭이도 잇고.

@ 그 아는 거를 다 알아봅서?

진도밭이도 잇고 도박 또 ㄴ라 뭐엔 현다. ㄴ도 풀허는 거.

@ 풀허는 거. 도박도 종류가 으이라 개 잇지예?

도박 멩지도박. 그냥 뭐헌 도박 두 가지. 옛날은 그런 거 안 난디이 이젠이 육지 도박 닳은 거 난 다른 동네 하영 사 헤신디 우리 동네 사름덜은 도박 ㄴ무는 뭐허켄 허 연에 늦인 우미도 안 ㄴ물고 성기.

@ 아 성기를?

성기 주로 행 2백70만 원이여 이백오십이여.

@ 성기만해서예?

흔 메틀, 으이라 날도 아넛주. 댓새.

@ 삼춘도 강은에 헨?

나도 흔 백 오십은 버실언.

@ 어 메칠에.

하루 가민게 삼키로 오백도 허고. 스만 삼천 원.

@ 1킬로에?

으 냉동헌 건 스만오천 원 경 가난.

@ 아 냉동헌 게 비쌘니까?

냉동헌 게 비싸주게.

@ 딱 형 뇌똥당은에 이제.

다 ** 다듬고게 깨끗허게.

@ 경허니까 하루에 강도 이제 십 멧만 원씩 버는 거라에. 옛날은 바당에 가면 돈 못 벌엇주마는.

막 오 키로 육 키로 헌 사름덜 잇어. 상군덜 젊은 사름덜.

@ 아, 하루에.

하루에. 매날 경 아넛주마는게.

@ 경허난 멧 백만 원씩 버는 거.

스오 킬로씩 안들지 아녀난게.

2.3. 바닷고기(바당궤기)

@ 성기가 또 하영 나는구나예? 바당에 강 궤기도 쏘아봤수과?

쏘곡 말곡.

@ 바당에 강 궤기 쏘아난 거 어떤 것덜 이서난 거 곶아줍서?

다금바리 물똥 구릿 누루시볼락이엔 현 건 저 누렁헌 불그롱헌 볼락.

@ 누루시볼락.

으 그냥 멍챙이볼락.

@ 멍챙이볼락은 어떤 거우과?

거무룽 거무룽헌 거.

@ 거무룽헌 거. 불그스름헌 게 누루시볼락?

논쟁이. 또 우럭. 거무룽헌 건 검평우럭 경. 붉바리. 웅이 옛날에사 버글버글 아이고. 작살.

@ 작살헤영은에?

계난 작살 설러건 지도 오래였주. 그거 작살 아산 텡기난 거추장스러완에 고동 잡는 디 지장뒤연에 물 가곡 허민. 경허연 안 아상 데견. 요즘도 느랑 젊은 사름덜 멧 사 람은 아상 텡여.

@ 그 작살 헤영은에 이제. 그 바당에 가면 어떤 날 바당에 가지 말라 허는 날도 잊지예?

으 바당에 무신 잔치 때에나 사름이 죽으나 무슨 행사 때나 그런 때는 딱 금지 헤 연. 죽은 사름 죽으민 그 영장 문을 때꺼지 날꺼지 허고. 잔치 때엔이 여기서 안 허난 이틀. 외래에 강 허는 건 흐루.

@ 그판 때는 이제 안 가고예? 경해도 이제 그 정초에 바농질허지 말라 허는 식으로. 바당 허는 사름들이.

새철날?

@ 새철날 **지예? 건 무슨 말이우과?

무사산디 옛날엔 새철날에 바농질도 허지 말라. 늬의집의 가지 말라. 무사 늬의집의 구정물 치대불곡 허민 여준 가문 새물이고 농스허민 검질 짓곡 헌텐 허곡. 남잔 가민 곤밥해준텐. 여잔 가민 무신 밧갈 때에 잠대 거뜬 거나 그런 거 무신 뒤허카부텐 여잔 가문 막 욱허고 구진물 치대겨불곡.

@ 아까 그 새물이엔 현 건 무신 겨우과? 여자는 새물인엔 현 거.

게메 여잔 새물이라 경 헌덴 옛날은 경 곱아낫주.

@ 경해도 무슨 바당에 간 때 막 손친가 솔친가?

솔치. 아이고, 솔치 찢르민 사름이 반 죽어. 늦끼도 경허고. 늦, 늦.

@ 늦?

그것고 썬우민 막.

@ 늦은 뭐우과?

늦이엔 현 게 이제 영 브름 영 파도 덜 썬는 형치 닳은 디 그것이 잇주게. 게난 저 동네 사름은 흔 해 듬북 즈물당 그거 찢린 죽언. 그 느끼 썬완.

@ 어떻 생긴 겨우과?

그거. 무슨 돈거치이. 둥글락허게 파랑현 거 조랑조랑 발 들고 바당에도 거 떠 텅겨. 떠 텅겨. 것ㄴ라 늦. 느끼. 느끼.

@ 그 느끼가 혹시 요즘 말허는 해파린 같은 겨우과? 해파리는 틀린 거?

해파린 틀린 거. 그건 쪼꼴락현 거. 베리지도 못허는 거. 나도 그거 썬완에 막 흠마 죽어지커란게. 주사 진통제 두 개 시 개 맞안.

@ 그게 이름이 아까 무신거마씨?

늦.

@ 늦 쏘으면 그렇게 아프는 거?

솔치도 경허고.

@ 아까 그 저기 해파리도 쏘은덴 허명예?

해파리도게 물에 떠 텅기당 그냥 뭉허민 자꾸 보멍 피해야주.

@ 해파리는 이 동네 말로 뭐런 해낫수과?

해파리? 우박망태.

@ 우박망태?

옛날말 우박망태.

@ 우박망태. 무사 우박망태엔?

이젠 해파리 해파리.

2.4. 물때 이야기

@ 우박망태예? 그 다음에 그 여기 물때 세는 거? 삼춘. 혼물 두물 허는 거. 세는 거 멧물까지?

물. 막 큰것덜 썸은 뭐허는 게 뭐허주게. 스무이틀날은 아끈조곰. 스무사흘날은 한조곰. 나흘날은 이제 혼물로 들어가민.

@ 스무나흘이?

으. 게영 열물 열혼물 열두물날꺼진 이제 열두물날이 스무날 뉘지. 스무흐를날은 막물이라.

@ 아 막물?

막물 열서물 뉘 거지.

@ 막물이?

막물이 열서물.

@ 열서물.

으 요새덜은 열서물 열서물호지이. 옛날 말론 막물.

@ 막물 아?

게믄 또 쓰무흐를날부터 저 스무이틀날은 한조곰.

@ 한조곰?

아끈조곰. 또 스무사흘날은 한조곰. 스무나흘날은 혼물로 뉘민 또. 그뭍날이 일곱물.

초흐루 으덥. 초웃새가 막물. 초일레 아 초웃새 막물 초일레가 아끈조곰, 초으드레가 한조곰 경 돌아가는 거.

@ 게믄 여기서는.

두 번 혼 덜에 두 번 돌아가.

@ 혼에 두 번 예. 게믄 이제 열두물까지 세는 구나예.

으, 열두물꺼지 세영 막물.

@ 막물. 그 다음에 아끈조기.

한조곰.

@ 한조곰. 막물 아끈조기. 한조곰. 요까지 세는 거구나예. 막 물 많이 쌀 때하고 많이 들을 때하도 뜨나잡아예?

계난 막조곰이주게. 막물로부터 막 물이 죽어져.

2.5. 바람 이야기

@ 아 막물로부터 조금이랑. 그치록 헤영은에 물때 뵙은에 물질도 허고 뭐 잡기도 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서남북 바람 좌우하잡아예. 바당에서.

바당에서.

@ 으.

계난 이 우리 동네는 셋브름 불민 못허여.

@ 셋브름은 어느 쪽에서 오는 거우과?

요 동쪽으로 오는 거.

@ 동쪽에 오는 건 셋보름.

셋보름. 요디 일로 오민 일진풍이라고이 너른새. 옛날말로 너른새. 절로 오민 마보름.

@ 너른새 일진풍은 게민 어느 쪽으로 오는 게 일진풍이우과?

이만이.

@ 이만이며는 동서혈 때 어디우과?

게메 요진 일진풍. 요거는 남쪽 마보름부는 디. 요거는 하늬보름 부는 디.

@ 하늬보름은 어디서 오는 게 하늬보름.

이 서쪽으로.

@ 서쪽으로 하늬보름 남쪽은 마보름.

마보름. 요기 동쪽은 셋보름.

@ 셋보름. 복은?

게메 내내 (웃음) 복은 눅보름.

@ 눅보름.

눅보름.

@ 아 복은 눅보름예. 아까 일진풍?

일진풍은 요 너른새 이만이 오는 거. 너른지만이 오는 거.

@ 너른새에서 오는 거예. 게민 여기가 아까 남쪽하고 동쪽하고 사이네.

으 사이.

@ 예 게민 그 사이를 일진풍예.

옛날.

@ 옛날 어른들. 그 말 그거 말고 다른 브름 이름은 었어?

다른 브름 이름? 셋브름 일진풍 마브름 이디 셋갈엔 헛주. 한라산만이 오민 셋갈 하늬브름. 눅브름.

@ 셋갈은?

셋갈은 마브름허고 하늬브름 사이에.

@ 아 하늬브름 사이에를 셋갈브름예.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없고? 다른 건 었고예? 그렇게 이제 하고.

눅브름은 또 하늬브름과 이 브름과 사이에. 동브름하고 사이는 눅브름예.

@ 그 다음에 파도 치는 것도 이름이 다 틀립디다예.

크게 몽글몽글 오민 민둥누.

@ 민둥누? 크게 막 이렇게 허는 거예?

으, 둥글둥글허민 민둥누 일엄젠 허곡. 또 갈착갈착갈착허는 건 이제. 생각이 안 남저.

@ 으음. 그 바윗가에서 갈착갈착허는건?

바위 바당에서도 갈착갈착허는 브름이 잇주게. 처음 뭐헤올 때.

@ 거기에서만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예.

이땅 막 저 뭐헤난 브름은 브름은 안 붙어도 파도만 막 우꿏우꿏 일때가 이시민 건 민둥누 일엄젠.

@ 그 다음에 이 이 가에만 파도 이는 거는 무슨 거렌 험니까? 그런 말도 잇긴 잇어났수과?

아이고 글썸.

@ 그 다음에 그 물도 물 하영 싸고 족게 싸는 거에도 이름 잇어마씨?

건 었고. 물 가는 건 쓴물 들물어주.

@ 아 쓴물 든물만예?

물싸갈 때 쓴물. 물 들어올 땐 든물.

@ 거는 든물 쓴물만. 무슨 다른 건 엇고.

웨살은 막 다섯물 으섯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꺼진 웨살. 막 물 높이 들어.

@ 아아.

물도 막 싸고.

@ 물도 막 싸고 물 높이 들고 그런 거를 웨살이렌 허는 거우고?

웨살.

@ 게믄 그때 물 싹 싸버리고.

봄에는 막 이 바다가 다 물른 거궤 세상 거 다 보여. 성기고 뭐이고 막.

@ 보름에예?

물 바짝 싸불어.

@ 게믄 그럴 때를 웨살이렌 허는 거구나예. 아 것도 계절에 따라서 바당 싸고 들고 허는 게 달라 마씨?

이 여름엔 그때만이 싸질 봄에 만이 싸질 안 허여. 어제도 일곱물인디 뭐 싸지 안 허여. 성기밭이 안 나.

@ 썩레는 어떤.

썩레 옛날엔 그 춤썩레라고 국 끌려 먹는 썩레가 잇어나신디. 요즘은 그 썩레 안 나.

@ 요즈에 나는 거는?

개썩레.

@ 개포레? 건 먹지 아녀고예?

것도 먹으면 데청 먹어지주마는 안 먹으니까. 여기 사름덜은 그걸 반찬으로 생각해여. 보릿대에 밀대에 뭐 서실이여 바당에 짝 차신디.

@ 보릿대도 먹고 밀대도 먹읍니까?

보릿대에 현 것이 내내 밀대 그거주게, 경 것도 바다에 나는 거 데쳐근에 멜컷 국물에 옛날엔 무청 먹어난.

@ 보릿대나 밀대나 ㄱ튼 거마씨?

ㄱ튼 거.

@ 아 거는 어떻 여기 마디헤갓고 보릿대치룩.

마딘 아녀고 영 질게 기자. 영 길제 요만씩.

@ 그런 거를? 서실도 하영 먹읍디다예?

아 서실.

@ 옛날부터도 경 서실이랑 그거 먹엇구과?

그자 먹는 사름덜은 중간중간 뜯어당 것도 봄에벳기 안나. 톨헐 때.

@ 톨헐 때예. 톨밧딕 나는 거고.

구쟁이 때에 뭐 돈 떼라. 영 못아당은에 먹곡 경헤난.



[사진 5] 서실

제4장 조사된 어휘

1. 미역(메역)

‘메역’(미역)은 우도에서 ‘미역’을 부를 때 사용하는 어촌 생활어다. ‘메역’은 날로 먹기도 하지만, 바닷가 마을에서는 나물로, 국거리로 많이 애용하였던 서민 식품이다. 또 대부분은 말렸다가 제사나 생일 따위의 중요한 때에 먹던 대표 해조류다. ‘메역’은 채취할 때부터 건조할 때,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갱이 같은 어휘들을 양산해 냈다. 예전에는 주소득원이었으나 지금은 판로가 없어서 미역을 따로 수확하지는 않는다. 우도에서 미역은 ‘츄메역’(미역)과 ‘넙메역’(넙미역)이 생산된다. ‘츄메역’은 음력 삼월보름부터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채취하고, ‘넙메역’은 5월에 채취했다. 특히 ‘넙메역’인 경우 우도 특산물인데, 우도 천진리 하우목동 인근 바다에서 자란다. ‘츄메역’은 조일리 비양동 등 주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바닷 속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즈물다’라고 하고, 채취한 미역을 말리는 행위를 ‘널다’ 또는 ‘부찌다’라고 표현한다.

1.1. 종류

1.1.1. 메역

‘메역’은 표준어 미역을 말한다.

- ⇒ 그땡엔 우리가 {메역을} 츄메역 즈물민 시간당무레질을 헛지. 시간무레질.



[사진 6] 메역

1.1.2. 돌메역

‘돌메역’은 돌 위에 나는 미역을 일컫는 말이다. 육지 지역의 양식미역인 ‘줄메역’과 비교해서 일컫는 말이다.

- ⇒ {돌메역은} 귀가 잇곡. 또 물메역진 거는 귀다리가 쫄럭쫄럭허곡. 영헌 돌가리 허곡 허영 그건 비어놔 봐야 필요어신 거.
- ⇒ 돌우의 난 {돌메역}이 더중주. 물알 지폰 디 그 흙텡이진 디 것보단.

1.1.3. 넙메역

‘넙메역’은 표준어 ‘넙미역’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도 지역의 특산물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미역과의 해초. 줄기의 윗부분이 앞으로 되어 있으며, 앞은 넓은 띠 모양이다. 홀씨주머니무리가 앞의 양쪽에 붙어 있고 뿌리는 섬유상이다. 한국 제주의 우도,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보자 윤춘옥은 다시마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했으나, 다른 제보자들은 다시마와는 다르다고 구술했다.

- ⇒ {넙메역이} 넓이가 이만해. 기력기가 두 발씩 흰 거. 옛날은 그거 막 여수 가서 늘 팔아오고. 그렇게 허민 우리가 {넙메역을} 그거 주물앗거든.

1.1.4. 춤메역

‘춤메역’은 표준어 ‘참미역’에 대응하는 제주어로, 보통 제주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도에서 ‘넙메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 ⇒ 그땡엔 우리가 메역을 {춤메역} 주물민 시간당 무레질을 헛지. 시간무레질.
- ⇒ 그냥 메역 7란 {춤메역엔} 허곡.

1.1.5. 물메역

‘물메역’은 깊은 물 속에서 나는 미역을 말한다. 보통 제주에서 채취하는 미역은 바다 속 바위에서 자란다.

- ⇒ 미역도 영 지픈 알려렌 가민 {물메역} 정 좀 후썰 메역이 민지락허곡. 영헌 옛동산 그런 딘 허민 경 돌메역허영 막 빠드락허영 물라도 새카망허고 시락허곡. 돌우의 난 돌메역이 더쫑주. 물 알 지픈 디 그 흙텡이진 디 것보단.

1.1.6. 육지메역, 줄메역

‘육지메역’은 우도에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양식 미역을 일컫는 이름이다. ‘육지미역’을 달리 ‘줄메역’이라고 하는데, 미역을 양식할 때 줄을 매어서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 옛날은 넙메역엔 허연 부짚 막 풀아나신디. 이젠 그걸 아녀고 {육지메역덜만} 이젠 {줄메역덜} 저 다시마나거든.
- ⇒ 춤메역도 막허멍 부짚에 풀아나신디 이젠 그것도 {줄메역} 나부난 이젠 그것도 필요엇고.

1.1.7. 조각메역

‘조각메역’은 ‘제철이 되기 전에 따서 말린 미역’을 말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조곽(早藁)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수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각’은 ‘조곽’의 변이음이다. ‘조각메역’에 대응하여 늦게 채취하여 말린 미역을 ‘만곽메역’이라고 한다. 우뚝가사리도 일찍 채취하는 것을 우도에서 ‘조각우미’라고 한다.

1.2. 부문명칭

1.2.1. 귀, 귀다리, 메역귀

미역의 대가리를 우도에서는 ‘귀’ 또는 ‘귀다리’, ‘메역귀’라고 말한다. 넓미역은 귀가 없이 채취하고, ‘츄메역’은 귀를 붙여서 채취한다.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우도에서는 ‘메역 즈물다’라고 한다.

- ⇒ 넓메역은 {귀} 없거든. 가운데 짱만 있어. 이 늙은 것은 가운데 짱이 있고. 경 아년 것은 짱이 없어 전부 다 메역만 멘지락허여.
- ⇒ 메역 그 줄거리 이신 놈은 우으로 비곡. 또 {귀다리} 막이 이치록 뭉텅뭉텅헌 거 이신 거는 이제 굵으로 비곡. 난 기자 하르방 시난 마중해 쥘 올히도 쥘물안.
- ⇒ {귀다리}신 것 ㄱ란 츄메역엔 허곡 그 넓작헌 것 ㄱ란 넓메역. 넓작허덴 말로 넓메역.
- ⇒ {메역귀} 전부 바당에 놔두고. 메역 요거 요거 {귀다리}민 이거 목으로 쥘물아.

1.2.2. 들가리

‘들가리’는 우도에서 ‘미역 따위의 줄기’를 일컫는 말이다.

- ⇒ 들메역은 귀가 잇곡. 또 물메역진 거는 귀다리가 쫄럭쫄럭허곡. 영헌 {물가리} 허곡 허영 그건 비여놔 봐야 필요어신 거.

1.2.3. 덩치기

‘덩치기’는 나무나 미역 줄기 따위의 밑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 ⇒ 메역귀 밑에가 {덩치기}.

1.2.4. 메역 이파리

‘메역 이파리’는 미역의 잎 부분을 말한다.

⇒ 이파린 그자 {메역 이파리}엔 허곡. 메역꽝. 게연 먼 꼰렁이. 꼰렁이는 그 줍 끊어똥 널어야똥지.

1.2.5. 메역 팡

‘메역 팡’은 미역의 가운데에 있는 질긴 줄기를 말한다. ‘팡’은 표준어 ‘뽕’에 대응하는 제주어로서, ‘메역 팡’은 미역 줄기가 단단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이파린 그자 메역 이파리엔 허곡. {메역팡}. 게연 먼 꼰렁이. 꼰렁이는 그 줍 끊어똥 널어야똥지.

1.2.6. 메역 꼰렁이

‘메역 꼰렁이’는 미역의 끝 부분을 말한다. ‘꼰렁이’는 달리 ‘꼰리’라고도 하는 데 표준어 ‘꼬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미역의 끝 부분을 꼬리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메역 꼰렁이} 끈지 아녀부난 메역 희영헤번 메역 못 씨켜게.

1.3. 도구

1.3.1. 풍선

‘풍선’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달리 ‘돛단배’ 또는 ‘범선’이라고 말한다. 우도의 특산물인 ‘넙메역’(넙미역)을 채취할 때 잠녀들이 물에 들어 ‘중계호미’로 ‘넙미역’을 채취하면, 어부들은 풍선을 타고 나가 ‘갈쿱이’로 ‘넙미역’을 배에 끌어올려 가지고 왔다.

⇒ 옛날에는 농사를 딱 끈나면은 베로 갈쿱이 헤가지고 {풍선이나} 발동기나 막 넙메역 건진다고 막 야단이 터지지.

1.3.2. 발동기

‘발동기’는 ‘발동기로 움직이는 배’를 말한다. 달리 ‘기켓배’라고도 부른다. ‘넙메역’을 채취할 때 ‘발동기’를 이용하였다. 표준어 ‘발동기선’을 말한다.

⇒ 옛날에는 농사를 딱 끈나면은 베로 갈쿱이 헤가지고 풍선이나 {발동기나} 막 넙메역 건진다고 막 야단이 대 터지지.

1.3.3. 갈쿱이, 갈쿠리

‘갈쿱이’는 우도에서 ‘넙미역 따위를 굶어모으는 데 사용했던 도구’를 일컫는 말이다. 나

무로 만드는데 끝 부분을 갈퀴처럼 만들어 미역 따위를 긁어모을 수 있게 했다. 달리 ‘갈퀴’ ‘갈퀴리’라고도 부른다.

- ⇒ 옛날에는 농사를 딱 끝나면은 베로 {갈콩이} 헤가지고 풍선이나 발동기나 막 넙메역 건진다고 막 야단이 대터지지.
- ⇒ 넙메역은 저 펄바당에 넙작한 것이라 이 다시마. 다시마라 넙메역 넙메역헤영 옛날은 다 쥌물어나고. 섯동네엔 헌 디 모살밭디. 그 옛날은 막 {갈콩이로} 긁어와나고. 상군은 강 메역 강 쥌물아 오곡 그 죽은 똥군덜은 못 가.
- ⇒ 넙메역 바당에 바당에 베가 희영허여. 메역 건진다고. 잠녀는 가서 쥌물지, 배론 막 그 {갈퀴리로} 가지고 건지지. 그거 {갈퀴리} 긁어가민 거 {갈퀴리에} 감아정 올라오거든게.

1.3.4. 기

‘기’는 우도에서 미역 채취 등을 할 때 물질의 시작과 끝을 신호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다. 우도에서는 물에 들거나 날 때는 고동과 기를 이용하여 들고 나는 것을 알렸다.

- ⇒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메역을 많이 뜯게 돼고, 나 만허고 어린 사름덜은 메역을 못 뜯으니까 시간을 딱 둔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분. 시간을 딱 뒤서 그 시간 똤민 고동을 싹 부는 거야. {기}를 들르면서 나라 허민 그때 나오지.

1.3.5. 고동

우도에서 미역 채취 등을 할 때 물질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사용하는 도구다. 소리고 동을 이용하였기에 ‘고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동’ 대신 호루라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 ⇒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메역을 많이 뜯게 돼고 나 만허고 어린 사름덜은 메역을 못 뜯으니까 시간을 딱 둔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분. 시간을 딱 뒤서 그 시간 똤민 {고동}을 싹 부는 거야. 기를 들르면서 나라 허민 그때 나오지.

1.3.6. 바작

‘바작’은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표준어 ‘발채’에 해당한다. 이 ‘바작’은 잠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이나 모자반, 툷 따위를 물으로 저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주로 남정네들이 채취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는데, 이를 ‘마중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마중꾼’이라고 한다.

- ⇒ 그게 마중덜 다 가지. 남편이 신 사름덜이고 뭐 없는. 문딱 가서 허민 다 땡기고 {바작으로} 저 올리고 다 허지.

1.3.7. 중계호미

‘중계호미’는 ‘잠녀들이 물 속에서 미역, 툇 등의 해초를 베어 낼 때 사용하는 낫’을 말한다. 우도에서는 ‘중계호미’에 대응하여 밭에서 사용하는 낫을 ‘비호미’라고 부른다.

- ⇒ {중계호미허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테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민 메역은 주무는 거야.

1.3.8. 망사리, 홍아리

‘망사리’는 ‘잠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을 때 사용하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한다. 우도에서는 달리 ‘홍아리’라고도 부른다. 예전에는 ‘산디찍’(밭벼짚)을 꼬아서 만든 반면 요즘은 나일론 그물로 만든 ‘망사리’를 사용한다.

- ⇒ 중계호미허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테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민 메역은 주무는 거야.

1.3.9. 테왁, 꼭테왁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잠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예전에는 박의 속을 파서 만든 ‘꼭테왁’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든 ‘테왁’을 사용한다. ‘테왁에’ ‘망사리’를 메어서 한 묶음으로 이루어졌는데, ‘테왁’과 ‘망사리’는 잠녀들이 물질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다.

- ⇒ 중계호미허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테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민 메역은 주무는 거야.
- ⇒ 옛날은 {꼭테왁에} 산디찍 꼬왕 망사리 뭇앙 경허영 허여 낫주게.

1.3.10. 물속곳

‘물속곳’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무명으로 만든다. 이 물속곳은 흰색 무명으로 만들기도 하고 검은 물을 들여서 만들기도 하였다. 왼쪽 어깨에 끈을 달아 옷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 ⇒ 그때는 옷도 고무옷도 엮고. 그냥 {물속곳허고} 이디는 물적삼도 엮고. 물수건 광목 해근에 딱 즐라메곡 경 눈 셔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헌 눈 족은눈 쌍 무레질 헛어.

1.3.11. 물적삼

‘물적삼’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속곳 위에 덧 입는 적삼’을 말한다.

- ⇒ 그때는 옷도 고무옷도 었고. 그냥 {물속긔허고} 이디는 물적삼도 었고. 물수건 광목 헤근에 딱 즐라메곡 경 눈 씨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한 눈 족은눈 썩 무레질 헛어.

1.3.12. 물수건

‘물수건’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가 흘러 내리지 않게 쓰는 수건’을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수건’ 대신 ‘까부리’라고 부르는 모자를 써서 물질을 하였다.

- ⇒ 그때는 옷도 고무옷도 었고. 그냥 {물속긔허고} 이디는 물적삼도 었고. 물수건 광목 헤근에 딱 즐라메곡 경 눈 씨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한 눈 족은눈 썩 무레질 헛어.

1.3.13. 뚜데기

‘뚜데기’는 ‘잠녀들이 물질한 후 추위를 막기 위하여 등 뒤로 둘러쓰는 포대기’를 말한다.

- ⇒ 얼어도게.이제 그치바당에오래살지아녀난.시간마련헤근에.아이고,{뚜데기}둘러써근에막볼춌아이.

1.3.14. 고무옷

‘고무옷’은 ‘잠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옷’을 말한다. ‘고무옷’이 나오면서 잠녀들이 물질하는 시간이 늘었다. ‘물이 스며들지 않게 고무로 만든 옷’을 말한다.

- ⇒ 그때는 옷도 {고무옷}도 었고. 그냥 물속긔허고 이디는 물적삼도 었고. 물수건 광목 헤근에 딱 즐라메곡 경 눈 씨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한 눈 족은눈 썩 무레질 헛어.

1.3.15. 눈

‘눈’은 표준어 ‘물안경’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잠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이다. 눈알이 작은 것 두 개로 이루어진 물안경을 우도에서는 ‘족은눈’이라고 하고, 큰 알 하나로 된 것은 ‘큰눈’ 또는 ‘왕눈’이라고 한다.

- ⇒ 그때는 옷도 고무옷도 었고. 그냥 물속긔허고 이디는 물적삼도 었고. 물수건 광목 헤근에 딱 즐라메곡 경 {눈} 씨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한 눈 족은눈.

1.4. 단위

1.4.1. 냥, 남

‘냥’과 ‘남’은 ‘미역을 말리기 위하여 여러 개를 이으며 포개 넉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 ⇒ 그 상인은 어디로 가느냐 허민 여수로 가. 여수로 **풀레**가. 한 {냥에} 얼마씩이. 한 {냥에} 얼마씩 해서 가지고 상인에게 팔아.
- ⇒ 이 {남에} 멧 개씩 있으면서 부찌지. 게문 한 {냥에} 멧 가닥 들어가주게. 그렇게 혼 {냥}. 혼 {냥은} 너댓 개도 들어가는 거 잇고 서너 개도 들어가는 거 잇고.
- ⇒ 서른 {냥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댁에는 딱딱 백 {냥씩} 제여놔. 백 {냥씩} 세여근에 무꺼근에 딱 사놔단 상인 오면은 한 꿰미에 백 {냥씩} 딱딱 세주민 천 {냥이민} 열 개민 천 {냥}. 백개 씩 세 놓은 거 열 개민 천 {냥} 그렇게.
- ⇒ 메역이 굵은 것은 혼 세 개, 네 개민 혼 {냥에} 들어가고. 작은 것은 너댓 개 들어가고 경허여.
- ⇒ 여기는 {남으로} 메역 한 {남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고. 저기는 근으로 허기 때문에 메역귀를부 떠야 근이 나가고.

1.4.2. 단

‘단’은 미역을 ‘냥으로 부찌면서’ 말려놓은 20개 또는 30개를 말하는 단위다. 김춘산은 한 단을 ‘30냥’이라고 했고, 정금주는 ‘20냥’을 1단이라고 설명했다.

- ⇒ 서른 냥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댁에는 딱딱 백 냥씩 제여놔. 백 냥씩 세여근에 무꺼근에 딱 사놔단 상인 오면은 한 꿰미에 백 냥씩 딱딱 세주민 천 냥이민 열 개민 천 냥. 백 개씩 세놓은 거 열 개민 천 냥 그렇게.
- ⇒ 게난 딱 세여근에 이제 스무 냥이든 **스무 냥 혼 단 헤근에 얼마?**

1.4.3. 꿰미

‘꿰미’는 끈 따위로 묶은 물건을 세는 단위다. 미역 ‘100냥’을 하나로 묶은 것을 ‘혼 꿰미’라고 말한다.

- ⇒ 서른 냥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댁에는 딱딱 백 냥씩 제여놔. 백 냥씩 세여근에 무꺼근에 딱 사놔단 상인 오면은 {한 꿰미에} 백 냥씩 딱딱 세주민 천 냥이민 열 개민 천 냥. 백 개씩 세놓은 거 열 개민 천 냥 그렇게.

1.4.4. 단 치다

‘단 치다’는 ‘마른 미역 따위를 세어서 단을 만들다’는 의미다. 미역 한 단은 말려서 장

만해 놓은 ‘냥’을 20~30개씩 나눠 놓은 것을 우도에서는 ‘단 치다’라고 말한다.

⇒ 여수 가민 거기 사름덜 {단 치는} 사름덜 빌어근에 {단 쳐근에} 거기서 **풀**아.

1.5. 행위와 방법

1.5.1. 즈물다

‘즈물다’는 잠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우도 사람들은 바다에 들어가 낚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즈물다’라고 한다. 바다 속에서 우뚝가사리를 채취할 때는 ‘우미 즈물다’라고 하고, 소라를 딸 때는 ‘고동 즈물다’라고 하는 등 잠녀들이 바닷물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는 행위를 ‘즈물다’라고 표현한다.

⇒ 넙메역이 넓이가 이만해. 기력기가 두 발씩 현 거. 옛날은 그거 막 여수 가서 늘 팔아오고. 그렇게 허민 우리가 넙메역을 그거 {즈물앗거든}

1.5.2. 무레질, 시간무레질, 무레질허다

‘무레질’은 잠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거나 해초를 캐는 일을 말한다. 바닷물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무레질허다’라고 표현한다. ‘무레질’은 달리 ‘물질’이라고도 한다. ‘시간무레질’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물질’을 말한다.

⇒ 그땡엔 우리가 메역을 **츰**메역 **즈물**민 시간 당 {무레질을} 헛지. {시간무레질}.
 ⇒ 허채허민 게른 내낭 오분작허곡. 오분작 곳나민 고동허주. 여름에 {무레질} 안 허여.
 ⇒ 저 뽏드허는 아인 그날 바당에 **츰**르종일 간 {무레질헛} 오란 그 애기 낫저.

1.5.3. 허채허다, 즈문허다

‘허채허다’는 ‘일정 기간 채취를 금했다가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잡기 시작하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미역을 채취하는 것은 음력 3월 보름 이후부터 한다. 허채할 때는 바닷가에 사람들로 메워졌다고 한다. ‘허채허다’를 달리 ‘즈문허다’라고도 한다.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메역즈문’이라고 하고, 우뚝가사리를 채취하기 시작하면 ‘우미즈문’이라고 표현한다.

⇒ {허채허민} 게른 내낭 오분작허곡. 오분작 곳나민 고동허주. 여름에 무레질 안 허여.
 ⇒ 저 뽏동네 메역 아녀는 동네 사름덜이 여기 비양동 {허채허는} 날은 여기 오는 거라.

1.5.4. 툃다

‘툃다’는 바닷가 근처에서 미역 따위를 채취할 때 표현하는 말이다. 표준어 ‘뜯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누게 가서 갓으로 메역을 이제 캐는 거보고 {뜯으는} 거엔 헛어.

1.5.5. 나다

‘나다’는 잠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반대로 물질을 하기 위하여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들다’라고 표현한다.

⇒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메역을 많이 뜯게 되고 나 만하고 어린 사름덜은 메역을 못 뜯으니까 시간을 딱 둔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 분. 시간을 딱 뒤서 그 시간 뉘민 고동을 싹 부는 거야. 기를 들르면서 {나라} 허민 그때 나오지.

1.5.6. 마중, 마중질, 마중질허다

‘마중’은 잠녀들이 채취한 해초와 해산물을 바닷가 밖으로 나르는 일을 말한다. 보통 마중은 물질하는 잠녀의 남편과 가족들이 한다.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밖으로 나르는 일을 ‘마중질허다’ 또는 ‘마중허다’라고 한다. 제주 서쪽에서는 이를 ‘풍중허다’라고 달리 표현한다. 우도에서 예전에 마중질을 할 때는 지계에 발채를 올려놓고 잠녀들의 채취물을 밖으로 지내었다면 지금은 어깨에 매어 옮긴 후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사진 7] 마중허다

⇒ 그게 {마중덜} 다가지. 남편이 신 사름덜이고 뭐 없는. 문딱 가서 허민 다 땡기고 바작으로 저 올리고 다 허지.
 ⇒ 중게호미허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테웍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민 메역은 쫓무는 거야. {마중질허고} 쫓물아근에 갓에 오면은 막 땡기곡 퍼근에 집의 저올리는 것은 남자들이 허잖아.

1.5.7. 저 올리다

‘저 올리다’는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따위를 등에 저서 바닷가에서 물으로 올릴 때 하는 말이다. 보통 ‘마중할 때’ 하는 표현이다. 예전 채취한 해초 따위를 물으로 저 나를 때는 지계에 발채를 올려놓고 날랐다면 지금은 트럭을 이용해서 나른다.

- ⇒ 중계호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테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민 메역은 쫓무는 거야. 미중질하고 쫓물아근에 갓에 오면은 막 땡기곡 퍼근에 집의 {저 올리는} 것은 남자들이 허잖아.

1.5.8. 땡기다

‘땡기다’는 표준어 ‘당기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따위를 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당길 때 사용하는 말이다.

- ⇒ 중계호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테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민 메역은 쫓무는 거야. 미중질하고 쫓물아근에 갓에 오면은 막 {땡기곡} 퍼근에 집의 저 올리는 것은 남자들이 허잖아.

1.5.9. 건지다

‘건지다’는 바닷물 속에 뜬 것으로 밖으로 꺼내다는 말이다. 우도에서 넓미역을 채취할 때 잠녀들이 물 속에 들어가 낚으로 벤 것을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물 위에 뜬 넓미역을 ‘갈쿱이’로 끌어다 배 위에 실을 때 하는 말이다.

- ⇒ 옛날에는 농사를 딱 끈나면은 베로 갈쿱이 헤가지고 풍선이나 발동기나 막 넙메역 {건진다}고 막 야단이 대 터지지.
- ⇒ 넙메역바당에 바당에 베가 희영허여. 메역 건진다고. 잠녀는 가서 쫓물지, 배론 막 그 갈쿱이 가지고 {건지지}. 그거 갈쿱이 끌어 가민 거 갈쿱에 감아정 올라 오거든게.

1.5.10. 꺾다

‘꺾다’는 표준어 ‘끌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넙메역바당에 바당에 베가 희영허여. 메역 건진다고. 잠녀는 가서 쫓물지, 배론 막 그 갈쿱이로 가지고 건지지. 그거 갈쿱이 {꺾어} 가민 거 갈쿱에 감아정 올라 오거든게.

1.5.11. 부찌다, 널다

‘부찌다’는 ‘미역을 말리기 위하여 미역 여러 개를 포개어 이으며 널다.’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제주어다. 미역을 널 때는 잔디밭에서 하기도 하고, 조짚이나 보릿대를 깔아서 널기도 하였다. 달리 미역을 말리기 위해서 ‘부찌는’ 행위를 ‘널다’라고 표현한다.

- ⇒ 그 메역을 헤서 다 쫓물아서 {부찌민} 상인이 나와.
- ⇒ 음력으로 삼월둠 뉘민 삼월보름 물찌부터 메역허기 시작허민 이제 보리그실허기 전꺼지 그 메

역을 **주물앙** 막 낭으로 {부짱}.

⇒ 막 손 실좌가지고 막 불추면서 메역을 {널어}.

1.5.12. 불추다

‘불추다’는 잠녀들이 물질을 끝내고 나와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쪼다는 의미다. 보통 잠녀들이 불을 쪼는 장소는 ‘불턱’이며, 잠녀들은 물질 갈 때 불을 쪼 팔감을 준비해 간다.

1.6. 상태

1.6.1. 근피다

‘근피다’는 표준어 ‘간피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잠녀들은 미역이 ‘근피면’ 미역 값이 좋다고 예견했다.

⇒ 아이고, 메역에도 희뜩희뜩허민 두루 **물라부난** {근피엇저게}. 툄도 잘 **물리라이**. {근피여근에} 안 췌다.

⇒ 아이고, 메역 올히 값 가켜. {근피엇저} 경허곡.

1.6.2. 민지락허다

‘민지락허다’는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 미역도 영 지픈 알려렌 가민 물메역 정 좀 **췌** 메역이 {민지락허곡}. 영헌 옛동산 그런 딘 허민 경 돌메역 허영 막 **빠드락허영** **물라도** 새카망허고 시락허곡. 돌우의 난 돌메역이 더 좋주. 물 알 지픈 디 그 흠텡이진 디 것보단.

1.6.3. 빠드락허다

‘빠드락허다’는 팻팻하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 미역도 영 지픈 알려렌 가민 물메역 정 좀 **췌** 메역이 민지락허곡. 영헌 옛동산 그런 딘 허민 경 돌메역 허영 막 {빠드락허영} **물라도** 새카망허고 시락허곡. 돌우의 난 돌메역이 더 좋주. 물 알 지픈 디 그 흠텡이진 디 것보단.

⇒ 성산포 메역은 맛 없어. 감태 모양으로 {빠드락헤가지고}. 메역은 온평리 메역이 **췌고야**.

1.6.4. 넓작허다

‘넓작허다’는 표준어 ‘넓적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미역의 윗이 넓은 것을 말할 때 쓰는 어휘다.

⇒ 귀다리 신 것 7란 좁메역엔 허곡 그 넓작헌 것 7란 넓메역. {넓작허덴} 말로 넓메역.

1.6.5. 뭉텅뭉텅허다

‘뭉텅뭉텅허다’는 미역의 대가리의 모습이 뭉툭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다.

⇒ 메역 그 줄거리 이신 놨은 우으로 비곡. 또 귀다리 막이 이치록 {뭉텅뭉텅헌} 거 이신 거는 이제 굵으로 비곡. 난 기자 하르방시난 마중해쥬 올히도 7물안.

1.6.6. 쫄럭쫄럭허다

‘쫄럭쫄럭허다’는 표준어 길쭉길쭉하다는 의미이다.

⇒ 돌메역은 귀가 잇곡. 또 물메역 진 거는 귀다리가 {쫄럭쫄럭허곡}. 영헌 물가리허곡 허영 그건 비어봐봐야 필요어신 거.

1.6.7. 갈탁허다

‘갈탁허다’는 미역이 물기를 머금어 축 늘어지다는 의미다.

⇒ 하루에 안 말르면 그게 {갈탁해가지고} 굶어. 게니까 그거 다 널면서도 메역귀 이시민 다 끓여 데껴부러.

1.7. 음식

1.7.1. 메역체

‘메역체’는 미역을 간장과 파 따위의 양념을 넣고 무쳐낸 음식을 말한다.

⇒ 기름 놓곡 이제 파 썰어 놓곡 메역 놓곡 허영은에 {메역체} 허영 먹고.

1.7.2. 메역국

‘메역국’은 미역을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 우리 어명 날 날적에 어느야 바다 {메역국} 먹고 날 낳앗던가

한편 미역과 관련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역	어 휘	
종류	메역, 조각메역, 만괘메역, 넙메역, 촘메역, 물메역, 육지메역, 줄메역	
부분명칭	귀다리, 물가리, 메역귀, 덩치기, 메역 이파리, 메역 짱, 메역 꼴레이, 귀	
도구	도구	풍선, 발동기, 갈쿠이, 갈쿠리, 기, 고동, 바작, 중계호미, 망사리, 테왁, 꼭테왁
	의복	고무옷, 물속곳, 물적삼, 물수건, 뚜데기, 눈, 족은눈
단위	냥, 남, 단, 단 치다, 께미	
행위와 방법	시간무레질, 즈물다, 건지다, 꺾다, 무레질, 무레질허다, 나다, 부찌다, 툷다, 마중, 널다, 불추다, 마중질, 저 올리다, 땡기다, 허채허다	
상태	근피다, 민지락허다, 빠드락허다, 넙작허다, 멩멍멍허다, 쫄럭쫄럭허다, 빠드락허다, 갈탁허다	
음식	메역채, 메역국	

2. 모자반

‘뫼’는 ‘모자반’에 해당하는 우도 어촌 생활어다. 모자반을 제주에서는 ‘뫼’, ‘뫼망’, ‘뫼음’ 등으로 부르는데 우도에서는 ‘뫼’이라고 한다.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海藻)인 뫼은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뚜렷하고, 1~3미터 이상 자라는데 줄기 밑동의 부착근(附着根)으로 바위에 붙어산다. 잎은 타원형으로 짙은 갈색이나 말리면 파래진다. 식용하거나 비료로 쓰고 태워서 갈륨을 만들기도 한다. 바닷가 간조선 이하 암석지에서 많이 나는데 한국, 일본, 태평양 등지에 분포한다.

종류에 따라서 ‘촘뫼’, ‘쥐뫼’, ‘듬북’ 등으로 구분한다. ‘촘뫼’는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돼지고기 삶은 국물에 넣어서 국을 만들어 먹는다. 우도에서는 이를 ‘뫼국’ 또는 ‘뫼국물’이라고 하는데 잔치 등 큰일 때 해 먹던 토속 음식이다. 멸치 액젓이나 자리돔 젓국을 넣어서 끓인 국을 ‘출렛국’이라고 표현한다. ‘뫼’의 공기주머니를 ‘부끌레기’라고 부르는데 크기가 큰 것은 ‘왕부끌레기’라고 한다.

2.1. 종류

2.1.1. 뭍

‘뭍’은 표준어 ‘모자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우도에서는 ‘뭍’은 종류에 따라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을 끓여 먹었다. 먹지 않는 ‘뭍’은 밭의 거름으로 활용하였다. 보통 ‘뭍’은 음력으로 설달에 채취한다.

- ⇒ {뭍은} 힐텍에는 이제 음력으로 설들이니까 양력으로 일월둘뉘지.
- ⇒ {뭍} 옛날에는 돈을 안 줘서.
- ⇒ 옛날에는 막 {뭍이}여기 쳐 나가지고 덩어리지던 {뭍이} 안 나.
- ⇒ {뭍은} 나지 아녕 우리 비양벧기. 옛날에는 그냥 동네로도 쫓물고. 또 경 아년 댕 그자 제지금 가근에 기냥 테왁 행 강은에 막 담양 밀려오멍 뒤에서 마중허곡 경허멍도 허곡.

2.1.2. 찰뭍

‘찰뭍’은 모자반의 일종으로,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찰’은 ‘참’의 뜻으로, 제주에서는 먹을 수 있는 해초류를 가리킬 때 접두사 ‘찰’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다. ‘찰뭍’은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지만, 간장 등에 담갔다가 장아찌로 먹기도 한다. 또 돼지 삶은 국물 등에 넣어서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 ⇒ {찰뭍이} 그 그자 뭍이고이.
- ⇒ {찰뭍은} 그자 바당에 막 많이 나던 것.
- ⇒ {찰뭍은} 내나 것도 무쳐도 먹긴 허지만은 그 끌어먹고 그건. 뚝국물에도 끌어먹고 찻국에도 끌어 먹고.

2.1.3. 쥐뭍, 주뭍

‘쥐뭍’, ‘주뭍’은 모자반의 일종으로 공기주머니가 ‘찰뭍’보다 작다. 주로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

2.1.4. 노랑쟁이

‘노랑쟁이’는 표준어 ‘괭생이모자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바닷가 근처에서 많이 자라는데, 식용은 하지 않고 채취해다가 말려서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색깔이 노르스름해서 ‘노랑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 ⇒ {노랑쟁이} 뚝나고 갑쌀듬북 뚝나고 쥐듬북 뚝나고. 그 듬북이 그 이름이 그게 옛날 할망덜이 우리 모르니까, 옛날 할망덜이 그 잠녀덜이 주물아서 거 걸름. 우리 해올 댁에는 이건 갑쌀듬북, 요거는 쥐듬북, 요건 {노랑쟁이}요 건 **몹**. 그렇게 허면서 해왔지.

2.2. 부분명칭

2.2.1. 부끌레기, 왕부끌레기

‘부끌레기’는 ‘모자반과 듬북 따위에 있는 공기 주머니’를 말한다. ‘츄뫼’에 비하여 ‘쥐뫼’의 ‘부끌레기’는 작고, ‘듬북’에 달려 있는 ‘부끌레기’는 ‘뫼’의 ‘부끌레기’보다 크다. 크기가 큰 공기주머니를 ‘왕부끌레기’라고 한다. ‘왕’은 크다는 의미로 붙여지는 이름인데, 크기가 큰 매미를 일컬을 때 ‘왕재열’이라고 표현한다.

- ⇒ 쥐뫼하고 몹허곡 뚝나. 쥐뫼은 **후썰** **좁진좁진헌** {부끌레기가} 잇는디 그거는 데우쳐서 반찬해 먹는 거.
- ⇒ 이 바당에 나는 건 {부끌레기가} **좁질앙** 그런 굵은 것이 었어. {왕부끌레기가} 었어.

2.3. 도구

‘뫼’을 채취할 때의 도구는 미역을 채취할 때와 똑 같다. 또 마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2.4. 행위와 방법

2.4.1. 들류다

‘들류다’는 표준어 ‘말리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젖어 있는 것을 햇빛에 말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바다에서 갓 채취해온 모자반을 햇볕에 널어 말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 ⇒ 몹 {**들류왓당**} **뽕앙** 먹는 것도 잇고.

2.4.2. 빨다

‘빨다’는 모자반이나 미역 따위를 물에 빨다는 의미다. 해초의 짠맛과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민물에 빨아야 먹을 수 있다.

- ⇒ 몹 **들류왓당** {**뽕앙**} 먹는 것도 잇고.

2.4.3. 삶다

‘삶다’는 표준어 ‘삶다’에 대응하는 의미다. 여기에서 ‘삶다’는 끓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 몸 물류왓당 뽕앙 먹는 것도 있고. 놀차 {삶아근에} 먹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젓국에 무치민 몸이 더 맞셔.

2.4.4. 데우치다

‘데우치다’는 표준어 ‘데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해초나 나물 따위를 끓는 물에 살짝 익히는 것을 ‘데우치다’라고 표현한다.

- ⇒ 몸 물류왓당 뽕앙 먹는 것도 있고. 쥐몹하고 몹허곡 땀나. 쥐몹은 후쌀 줌진줍진허곡 부끌레기가 있는데 그거는 {데우쳐서} 반찬 헤 먹는 거.

2.4.5. 무치다

‘무치다’는 나물이나 해초 따위에 양념을 넣고 손으로 버무리다는 의미다.

- ⇒ 몸 물류왓당 뽕앙 먹는 것도 있고. 줌몹은 내나 것도 {무쳐도} 먹긴 허지만은 그 끌어먹고. 그 건 돛국물에도 끌어먹고 젓국에도 끌어먹고.

2.4.6. 끌이다

‘끌이다’는 표준어 ‘끓이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끌리다’라고도 말하는데 국 따위를 만들어 먹을 때 ‘끌이다’라고 표현한다.

- ⇒ 몸 물류왓당 뽕앙 먹는 것도 있고. 줌몹은 내나 것도 {무쳐도} 먹긴 허지만은 그 {끌어먹고}. 그 건 돛국물에도 끌어먹고 젓국에도 끌어먹고.

2.5. 상태, 색깔, 맛

2.5.1. 먼지락허다

‘먼지락허다’는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는 의미를 지닌 제주어다. 제보자들은 ‘춤’의 특징을 설명할 때 색은 파랗고 느낌이 ‘먼지락헌’ 반면 ‘쥐몹’은 조금 거무스레하다고 말했다.

- ⇒ 춤몹은 파랑허헌 {먼지락허게}. 주몹은 후쌀 김시릉.

2.5.2. 즈진즈진허다, 즈질다

‘즈진즈진허다’는 여럿이 가늘거나 작다는 의미다. 가늘고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또 ‘즈질다’라고도 말한다.

- ⇒ 쥐몹히고 몹허곡 댄나. 쥐몹은 **후싹** {즈진즈진허곡} 부끌레기가 잇는디 그거는 데우쳐서 반찬헤 먹는 거.
- ⇒ 이 바당에 나는 건 부끌레기가 {즈질양} 그런 굵은 것이 엇어. 왕부끌레기가 엇어.

2.5.3. 검시룽

‘검시룽’은 표준어 ‘거무스름’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쥐똥’의 색깔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 ⇒ **츄몹**은 파랑허연 문지락허게. 주몹은 **후싹** {검시룽}.

2.5.4. 노랑허다

‘노랑허다’는 표준어 ‘노랗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파랗다’를 제주에서는 ‘파랑허다’라고 말한다.

- ⇒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헤 가지고 {노랑헨} 이제 건 변함없이 잘 나.

2.5.5. 베지근허다

‘베지근허다’는 ‘고기나 생선 따위의 것이 기름기가 돌아 맛이 있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생선 따위를 먹었을 때 담백하면서도 기름기가 돌아 맛이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제주어다.

- ⇒ 옛날에는 왜 젓국에 몹 끝이민 고기국거찌 {베지근헨} 게 맛이 잇는지.

2.5.6. 맛싯다

‘맛싯다’는 ‘음식의 맛이 좋다’는 의미의 표준어 ‘맛있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 야 몹에 **츄렛국** 끝이라. {맛싯다야}. **츄렛국** 끓이민 막 {맛셔}

2.6. 음식

2.6.1. 뚝국, 뚝국, 뚝국물, 출렛국

‘뚝국’은 ‘돼지고기 삶은 물에 모자반 등을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달리 돼지고기국을 육수로 해서 끓인 국이라고 해서 ‘뚝국물’이라고도 표현한다. 돼지고기 육수를 일컬을 때도 ‘뚝국물’이라고 표현한다. ‘뚝’은 표준어 ‘돼지’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육수를 멸치 젓국이나 자리돔 젓국에 모자반이나 미역 따위를 넣어서 끓이면 ‘출렛국’이라고 말한다.

- ⇒ 돼지 이제는 다 잡아다 주고 잔치도 할 댁에 허지만. 그때는 다 집에서 잡으면서 할 댁에는 {뚝국물} {뚝국}.
- ⇒ 잔치집의 강 {뚝국} 먹자게. {뚝국} 먹으레 가자.
- ⇒ 돼야지 숲이나 국물에 뚝 낱 끝린 건 {뚝국물}.
- ⇒ 멜젓이나 자리젓 국물이나 낱. “야, {뚝국} {출렛국} 끌렁 먹어사키여게. {출렛국} 먹어사키여”. {출렛국이} 바로 젓국이거거든.
- ⇒ 옛날은 메역에 자리젓 국물이나 멜젓 국물 뇌놓민 퀘기국 7치 경 맛섯어. 무수보고 뚝뚝엔 헛 거든이. 메역에 뚝뚝 서터 뇌근에 출렛국 끌리민 경 맛섯덴 잘 먹엇저.

2.6.2. 뚝즈밤

‘뚝즈밤’은 ‘모자반을 데쳐낸 후 갖은 양념을 해서 무친 바다 나물’을 가리킨다.

- ⇒ 다른 건 기자 {뚝즈밤엔} 해근에 뚝 물류왓당 뽕아근에 데쳐근에 저 춤 무쳐근에 지름 농곡 장 물 농곡 행 무쳐근에 {뚝즈밤}.

2.7. 기타

2.7.1. 불턱

‘불턱’은 잠녀들이 물질을 전후 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물질을 끝내고 나와 몸을 말리기 위하여 불을 피워 쬐는 곳을 말한다. ‘불턱은’ 보통 사각형으로 둘러 담으로 쌓아 만드는데, 잠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공간이다. 돌로 쌓아 만든 ‘불턱’은 사라진지 오래고 지금은 현대식 탈의장이 ‘불턱’을 대신하고 있다.

- ⇒ {불턱은} 저 돌로 해근에 뽕허게 다왕. 부름 으지 뉘 동산 뉘허여근에 이젠 뽕허게 다와근에 {불턱}.

2.7.2. 갯, 𪛗, 𪛗디

‘갯’은 바다에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가를 말한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를 ‘𪛗’, ‘𪛗디’라고도 표현한다.

- ⇒ 쥐뚫히고 뚫허곡 뚫나. 쥐뚫은 𪛗썰 줌진줌진허곡 부끌레기가 잇는다 그거는 데우쳐서 반찬해 먹는 거. 그건 {갯에} 나는 딴 나고 안 나는 딴 안 나. 그건 바다뚫이 아니고 물싸면은 물싸는 디 그거 나는 뚫. 쥐뚫이라고 헤가지고이.

모자반	어 휘
종류	쥐뚫, 줌뚫, 노랑쟁이, 뚫
부분명칭	부끌레기, 왕부끌레기
행위와 방법	데우치다, 무치다, 끌이다, 빨다, 솟다, 물류다
상태, 색깔, 맛	문지락허다, 줌진줌진허다, 줌질다, 검시룽, 노랑허다, 베지근허다, 맛시다
음식	젓국, 돛국물, 출렛국, 뚫국, 뚫즈뚫, 돛국물
기타	불떡, 갯(𪛗)

3. 뚫북

‘뚫북’은 밤색 조류(藻類)의 하나. 줄기의 길이는 1미터 이상이고, 가지가 많으며 잎은 길쭉하고 톱니가 있다. 식물체는 먹기도 하고 거름으로도 쓰며, 염화칼륨과 알긴산 따위를 만드는 데 원료로 쓴다. 얕은 바다 밑의 너럭바위에 붙어 자란다. 보통 제주에서는 ‘뚫북’을 채취하여 보리밭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비료가 없었던 시절, 우도에서는 ‘뚫북’을 채취한 후 말려서 가리어 둔 ‘뚫북눌’이 많았다고 한다. ‘뚫북’은 미역 채취가 끝나는 음력 4월에 채취한다. 그 종류도 ‘갑썰뚫북’, ‘쥐뚫북’ 등 다양하다.

- ⇒ 그거 {뚫북} 𪛗물양 늘어봐. 늘어놨다근에 구시월에 구월에 보리밭 댁엔 𪛗 갈양 그 고랑에 이렇게 𪛗아. 막 𪛗루면서.
- ⇒ {뚫북은} 게메 삼월 구물영 수월돗에. 메역 𪛗나민 {뚫북} 𪛗물아.
- ⇒ 쥐뚫북, 갑썰뚫북 헤가지고 옛날엔 {뚫북덜} 𪛗물아 가지고 비료 없을 때니까 보리밭데 그거 {뚫북} 안 들이른 보리가 안 𪛗거든.



[사진 8] 뚫북

3.1. 종류

3.1.1. 쥐듬북

‘쥐듬북’은 듬북의 한 종류다. 채취해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 ⇒ {쥐듬북}, 갑실듬북 헤가지고 옛날엔 듬북덜 주물아가지고 비료 없을 때니까 보리밭데 그거 듬북 안 들이든 보리가 안 돼거든.

3.1.2. 갑실듬북

‘갑실듬북’은 듬북의 한 종류다.

- ⇒ 노랑쟁이 댕나고 {갑실듬북} 댕나고 쥐듬북 댕나고. 그 듬북이 그 이름이 그게 옛날 할망덜이 우린 모르니까 옛날 할망덜이 그 잡녀덜이 주물아서 거 걸름 우리 해 올 댕에는 이건 {갑실듬북}, 요거는 쥐듬북, 요건 노랑쟁이 요건 뉘. 그렇게 하면서 헤왔지.

3.2. 도구

듬북을 채취할 때 도구도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를 채취할 때 도구와 같은 게 많다. 가령 잡녀들의 착용도구와 물질 나갈 때 가지고 가는 ‘테왁’과 망사리는 같다. 같은 도구인 경우는 여기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3.2.1. 고에기

‘고에기’는 젖은 물건을 저서 나를 때에 운반 도구인 ‘질구덕’이 등에 닿는 부분에 대는 물건이다. 소가죽 따위로 만든다.

- ⇒ 듬북몰레. 그걸 막 이제 건져당허곡. 놀 불어가민 공쟁잇대. 대에 이렇게 아궁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 올 댕에는 쉼가죽 {고에기} 해근에 공쟁잇대 들르곡 부름 썬는디 파도에 듬북 흔 폐기씩 이렇게 올라가민 그 공쟁잇대 쉼영 흔 폐기씩 이렇게 건져 왔거든.

3.2.2. 공쟁잇대

‘공쟁잇대’는 ‘바람에 떠밀려 내려온 거름용 해초를 건져 올리는 갈퀴 비슷한 도구’를 말한다. 손잡이를 길게 하고 한쪽 끝에는 여러 갈래의 갈퀴가 달려 있어 먼 데 있는 해초를 끌어올 수 있게 되었다.

- ⇒ 듬복몰레. 그걸 막 이제 건져당허곡. 놀 불어가민 {공쟁잇대}. 대에 이렇게 아궁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 올 댁에는 쉼가죽 고에기 해근에 {공쟁잇대} 들르곡 부름 썬는디 파도에 듬복 흔 폐기씩 이렇게 올라가민 그 {공쟁잇대} ㅎ영 흔 폐기씩 이렇게 건져 왔거든.

3.2.3. 줄아시

‘줄아시’는 ‘바다 속에서 듬복 따위의 거름용 해초를 베어내는 긴 낫’을 말한다. 배를 타고 나서 ‘줄아시’로 듬복 따위의 해초를 벨 때 사용한다.

- ⇒ 메역 ㅈ물아난 곳덴 그 듬복을 ㅈ물앙은에 막 베 이신 사름은 베 {줄아시} 영헤영 막 저 출났으로 비듯이 바당에강 헤여 오곡.

3.3. 단위

3.3.1. 폐기

‘폐기’는 초목의 뿌리의 날개를 세는 단위를 말한다. 표준어 ‘포기’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우도에서 듬복의 한 줄기를 ‘흔 폐기’라고 하였다.

- ⇒ 듬복몰레. 그걸 막 이제 건져당허곡. 놀 불어가민 공쟁잇대. 대에 이렇게 아궁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눈 올 댁에는 쉼가죽 고에기 해근에 공쟁잇대 들르곡 부름 썬는디 파도에 듬복 흔 폐기씩 이렇게 올라가민 그 공쟁잇대 ㅎ영 흔 {폐기씩} 이렇게 건져 왔거든.

3.4. 행위와 방법

3.4.1. 히다

‘히다’는 ‘물속에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를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는 의미의 표준어 ‘헤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잠녀들이 물질을 할 때 바다에서 하는 행동이다.

- ⇒ 이제 바당에 이제 삼수월 뉘가민 듬복몰레가 터가. 바당 가운데로이. 덩어리. 듬복몰레 덩어리. 게가면 막 {히여가} 가지고이 그 듬복을 막 밀려오는 거야. 막 밀려와.

3.4.2. 밀려 오다

‘밀려오다’는 어떤 물건 따위를 밀어서 오다는 의미다. 잠녀들이 물질을 한 후 채취한 물건을 밀어서 올 때 사용하는 말이다.

- ⇒ 이제 바당에 이제 삼수월 뉘가민 듬복몰레가 터가. 바당 가운데로이. 덩어리. 듬복몰레 덩어리.

게가면 막 {히려가} 가지고이 그 듬복을 막 밀러오는 거야. 막 밀러와.

3.4.3. 즈물다

‘즈물다’는 잠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듬복 따위의 해초와 해산물을 채취하다는 의미이다. 듬복을 채취할 때는 ‘듬복 즈물다’, 우뚝가사리를 채취할 때는 ‘우뚝 즈물다’, 소라를 딸 때는 ‘고동 즈물다’라고 표현한다.

⇒ 쥐듬복, 갑설듬복 헤가지고 옛날엔 듬복덜 {즈물어} 가지고 비료 없을 때니까 보리밭데 그거 듬복 안 들이든 보리가 안 뚱거든.

3.5. 상태

3.5.1. 미끌미끌허다, 밍끄럽다, 밍끌밍끌허다

‘미끌미끌허다, 밍끄럽다, 밍끌밍끌허다’는 표준어 ‘미끌미끌하다’와 맞먹는 제주어다. 모자반의 일종의 ‘노랑쟁이’(괭쟁이모자반)의 표면이 미끌미끌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다.

⇒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헤} 가지고 노랑헨 이제 건 변함없이 잘 나. 그거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밍끄러와.} 막 {밍끌밍끌허고}. 갑설듬복은 줍 사끌사끌허고이, 쥐듬복은 멘지락허고. 그 물건 자체가 뚱나.

3.5.2. 사끌사끌허다

‘사끌사끌허다’는 듬복의 표면이 ‘조금은 거친 듯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어휘다.

⇒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헤 가지고 노랑헨 이제 건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밍끄러와. 막 밍끌밍끌허고. 갑설듬복은 줍 {사끌사끌허고이}, 쥐듬복은 멘지락허고. 그 물건 자체가 뚱나.

3.5.3. 멘지락허다

‘멘지락허다’는 우도에서 듬복의 표면이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헤 가지고 노랑헨 이제 건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변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밍끄러와. 막 밍끌밍끌허고. 갑설듬복은 줍 사끌사끌허고이, 쥐듬복은 {멘지락허고}. 그 물건 자체가 뚱나.

3.6. 기타

3.6.1. 듬북놀이

‘듬북놀이’는 ‘말린 듬북을 둥그렇게 쌓아 가린 가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놀이’는 표준어 ‘가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제주의 해안마을에서는 퇴비가 부족할 때 바닷가의 듬북이나 모자반 등을 채취하여 말렸다가 밭의 퇴비로 활용하였다. 여기에서 ‘듬북놀이’는 퇴비로 사용할 듬북을 채취해다가 말려서 가려둔 가리를 말한다.

3.6.2. 듬북몰레

‘듬북몰레’는 ‘바다에서 둥둥 떠오르는 듬북 덩어리’를 말한다. ‘듬북몰레’는 바다에 듬북이 덩어리져서 떠오르는 모양을 모래 더미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 이제 바당에 이제 삼수월 뉘가민 {듬북몰레가} 터가. 바당 가운데로이. 덩어리. {듬북몰레} 덩어리. 게가면 막 히어가가지고이 그 듬북을 막 밀려오는 거야. 막 밀려와. 게민 막 잠녀 **좁수**들이. 우리 어릴 댁에는이 듬북 떠오라 가민 “저거 나거야. 나가 **무녀** 봤저. 저거 나거여. 나가 **무녀** 봤저.” 헤염쳐 강. 그 몰레렌 허거든 {듬북몰레.}

듬북	어 휘
종류	듬북, 쥐듬북, 갑실듬북
도구	공쟁잇대, 줄아시, 고에기, 줄낫
단위	폐기
행위와 방법	히다, 밀려 오다, 즈물다
상태	미끌미끌허다, 밍끄럽다, 밍끌밍끌허다, 사끌사끌허다, 멘지락허다
기타	듬북놀이, 듬북몰레

4. 툷

‘툷’은 표준어 ‘툷’을 가리키는 우도 어촌 생활어다. ‘툷’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로서, 우도 사람들의 주 소득원의 하나다. ‘툷’은 나물로도 먹고, 된장을 풀어 냉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툷’을 넣은 ‘툷밥’은 구황음식의 하나였다. ‘툷’은 미역 채취가 끝나는 4월 경에 채취한다. 미역이나 모자반이 잠녀들이 물웃을 입고 바닷물 속에 들어 ‘중계호미’를 가지고 ‘즈무는데’ 반해 ‘툷’은 물이 썰 때 바닷가 바위에서 낮으로 베어낸다. 이를 두고 우도

에서는 ‘톨 바다’라고 표현한다. ‘툇’도 배면 마중꾼들에 의해서 물으로 옮겨져 햇볕에 널어 말린다.

4.1. 종류

4.1.1. 봉당톨

‘봉당톨’은 우도에서 ‘길이가 짤막짤막하면서도 모양이 뭉 특한 툇’을 일컫는 생활어다.



[사진 9] 물이슬

- ⇒ 쫌 것고라 {봉당톨}. 영 줄른 거. 큰 건 그냥 툇.
- ⇒ {봉당톨} 뭉클뭉클헌 거.

4.2. 부분 명칭

4.2.1. 물푸글레기, 물이슬

‘물푸글레기’는 툇이나 지충 따위에 기생해서 사는 바닷말 종류다. 달리 ‘물이슬’이라고도 말한다. 이용필(2008)의 《제주의 바닷말》에는 ‘바둑두둑’으로 올라 있다.

4.3. 도구

4.3.1. 바작

‘바작’은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표준어 ‘발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바작’은 예전 우도에서는 미역이나 듬복, 툇 등을 마중할 때 마중꾼들이 채취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도구로 지게에 얹은 후 그 위에 물건을 넣어서 지고 날랐다.

- ⇒ 툇허젠 허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져넛거든. 이젠 {바작이} 엇고 지게 가 엇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도 허곡. 그거에 해서 담아 놓민 이제 져내는 사름은 져 내고. 비는 사름,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3.2. 지게

‘지게’는 ‘등에 짐을 지게 나무로 만든 재래식 도구의 한 가지’를 말한다. ‘지게’는 우도에서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등을 나를 때 사용했던 도구의 한 가지다.

- ⇒ 툴허젠 허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저넛거든. 이젠 바작이 엇고 지게가 엇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엔도 허곡. 그거에 헤서 담아 놓민 이제 저내는 사름은 저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3.3. 호미

‘호미’는 툴 따위의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낚이다. 달리 우도에서는 ‘중계호미’라고 부른다.

- ⇒ 툴허젠 허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저 넛거든. 이젠 바작이 엇고 지게가 엇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엔도 허곡. 그거에 헤서 담아 놓민 이제 저내는 사름은 저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사진 10] 툴 마다리

4.3.4. 마다리

‘마다리’는 물건 따위를 넣을 수 있게 만든 자루를 말한다. 표준어 ‘마대’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예전 우도 사람들은 ‘툴’을 채취하면 지게 위에 발채를 얹어놓고 채취 물을 담아 등에 지고 옮겼는데 요즘은 ‘마다리’에 담고 마중꾼들이 어깨에 둘러메고 나른 후 트럭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운반한다.

- ⇒ 툴허젠 허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저 넛거든. 이젠 바작이 엇고 지게가 엇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엔도 허곡. 그거에 헤서 담아 놓민 이제 저 내 사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3.5. 찰리

‘찰리’는 표준어 ‘자루’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제보자는 ‘마대’를 ‘찰리’라고 표현하였다.

- ⇒ 툴허젠 허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저 넛거든. 이젠 바작이 엇고 지게가 엇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엔도 허곡. 그거에 헤서 담아 놓민 이제 저 내 사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4. 행위와 방법

4.4.1. 지어내다

‘지어내다’는 물건 따위를 지게 따위로 저 나르다는 의미다. 우도에서 잠녀들이 툴과

모자반 따위를 캐내면 마중꾼들이 이를 물으로 저낼 때의 상황을 표현한 어휘다.

⇒ 이제 저내는 사름은 저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4.2. 비다

‘비다’는 호미 따위로 툇 등을 자르다는 의미다. 표준어 ‘베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이제 저내는 사름은 저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4.3. 담다

‘담다’는 밖에 있는 물건 따위를 자루 등에 집어넣다는 의미다.

⇒ 이제 저내는 사름은 저내고. 비는 사람 {담는} 사름 지어내는 사름.

4.4.4. 물리다

‘물리다’는 표준어 ‘말리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아이고, 메역에도 희뜩희뜩허민 두루 물라부난 굳피엇저게. 툇도 잘 {물리라이}. 굳피여근에 안 된다.

4.5. 상태와 색깔

4.5.1. 몽클몽클허다

‘몽클몽클허다’는 길이가 짧으면서도 모양이 몽푹하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툇의 일종인 ‘봉당툇’의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다.

⇒ 봉당툇 {몽클몽클헨} 거.

4.5.2. 희뜩희뜩허다

‘희뜩희뜩허다’는 ‘허연 빛깔에 다른 빛깔이 군데군데 뒤섞여 있다.’는 표준어 ‘희뜩희뜩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아이고, 메역에도 {희뜩희뜩허민} 두루 물라부난 굳피엇저게. 툇도 잘 물리라이. 굳피여근에 안 된다.

4.5.3. 몽갈몽갈허다

‘몽갈몽갈허다’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씹히어 무르다는 의미의 제주어다. ‘톨밥’을 먹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 ⇒ 톨밥은 {몽갈몽갈허영} 톨 낱 밥헌 거는 {몽갈몽갈} 먹기가 좋고. 그 푸레 개푸레 낱 밥허민 질 그락질그락 먹기가 힘들어.

4.6. 음식

4.6.1. 톨냉국

‘톨냉국’은 ‘툇나물에 찬물을 넣고 날된장을 풀어서 식초 따위로 간을 해서 만든 냉국’을 말한다. ‘톨냉국’은 제주에서 여름철 별미로 많이 해 먹던 톨 요리의 한 가지다.

- ⇒ 냉국이엔 허영 그거 {톨냉국}.

4.6.2. 톨누물

‘톨누물’은 ‘툇을 데쳐낸 후 된장 따위로 간을 하여 무쳐낸 나물.’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톄를 날로 데치거나 말린 후에 물에 불린 후 데쳐서 된장 따위에 무쳐서 먹었는데 이를 ‘톨누물’ 또는 ‘톨무침’이라고 한다.

- ⇒ 톄는 그 어린 때는게 기자 조끔씩 몰르게 해당 물 팔팔 끌영 살짝 데쳐 파랑허게 해근에 무청 먹국. 또 너무 세민 쏘양, 폭 쏘아근에 기자 된장 풀어 놓국 식초 놓국 해근에 세콤달콤허게 무청도 먹국. 여름에 냉국 허영도 먹국. {톨누물}.

4.6.3. 톨밥

‘톨밥’은 해초류인 톄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구황음식의 한 가지였다.

- ⇒ 옛날 우리 어무니네가 부제로 사니까 그런 톄푸레밥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가검사를 온다 허니까 우리 아지망보고 {톨밥을} 해서 솟되 담아놓라고 그러더라고.

4.6.4. 톄푸레밥

‘톄푸레밥’은 ‘툇이나 파래를 넣고 지은 밥을 한꺼번에 이르는 말’이다. 우도에서는 구황음식으로 톄를 넣고 밥을 짓거나 파래를 바랜 후에서 보리쌀 등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었다.

- ⇒ 다 {톄푸레밥을} 먹어도 우리는 친정이 잘 사니까 안 먹어봤거든.

파래와 관련해서 조사된 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뜻	어휘
종류	붕당톨
부분 명칭	물푸글레기, 물이슬
도구	바작, 지게, 호미, 마다리, 찰리
행위와 방법	지어내다, 비다, 담다, 물리다
상태와 색깔	몽클몽클허다, 희뜩희뜩허다, 몽갈몽갈허다
음식	톨냉국, 톨늑물, 톨밥, 톨꼭레밥

5. 우뭇가사리

‘우미’는 ‘우뭇가사리’를 칭하는 우도의 어촌 생활어다. ‘우미’는 우뭇가사릿과의 해조로, 바다 속 모래나 돌에 붙어산다. 우도 사람들의 주 소득원의 하나다. 처음 캐는 우뭇가사리는 ‘일번초’, 두 번째 캐는 우뭇가사리는 ‘이번초’라고 부른다. 우뭇가사리를 우도에서는 ‘우미’ 또는 ‘천초, 천추’라고도 부른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우뭇가사리를 끓여서 식히면 묵같이 되는데, 이 역시 ‘우미’라고 부르고, ‘우미’로 만든 음식 또한 ‘우미’라고 한다. ‘우미’는 여름철 별미로 제주에서 많이 해 먹는다.

5.1. 종류

5.1.1. 우미, 천초, 천추

우미는 표준어 ‘우뭇가사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천초, 천추’라고도 부른다.

- ⇒ {우미} 쫄물레 가민 망사리가 족으민 조락. 족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쫄물고. 망사리 7득으민 그것에 쫄물국 그거.
- ⇒ 우리 동네는 {천추가} 많지 아녀서 소라만 잡고 잊지마는 저 동네는 막 천추를 주로 허거든.
- ⇒ 전흘동 7튼 사름덜은 농사도 안 지고 {천초} 무레만 들거든게.

5.1.2. 7우미

‘7우미’는 바닷가 근처의 바위에서 자라는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7우미’를 켈 때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즈무는’ 게 아니라 물이 썰 때 바닷가 바위 등에서 손으로 뜯어서 켤다. 이를 두고 ‘우미 멘다’라고 표현한다.

- ⇒ 낼은 9덥물이난에 {7우미덜} 멜 거엔 헤라게.

5.1.3. 청우미

‘청우미’는 푸른 빛이 감도는 우뚝가사리를 말한다. 색이 바라거나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것이다.

- ⇒ {청우미} 풀이 잘 안 나. 그건 잘 받도 아녀.
- ⇒ 강추는 좀 까실까실하고 돌우미 비스듬헌 건디 그건 그자 하지는 아녀. {청우미} 맛이 없이. 한천에서도 {청우미} 안 받아. 건 맛이 엇고이. 발렌에 우미 삶아보니까 맛 엇언 비와부렀다.
- ⇒ {청우미}는 퍼렁허여근에 바당에서 써근 거라.

5.1.3. 돌우미

‘돌우미’는 우뚝가사리의 일종으로, 바닷가 바위 위에 자라나는 자잘한 우뚝가사리를 우도에서 일컫는 말이다.



[사진 11] 돌우미

- ⇒ 우미는 네 가지 종류여. 강추, 청우미, {돌우미}, 그자 우미.
- ⇒ {돌우미}는 쫄쫄헌 거 갖에 물싸는디 그거 돌우에거.
- ⇒ {돌우미} 발래영 쫄아보민 것이 양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쩐 일인지 그 받아가질 아녀.

5.1.4. 섭우미

‘섭우미’는 우뚝가사리의 일종으로, 깊숙한 바다 속에서 자라는 질이 좋은 우뚝가사리를 말한다. ‘섭’은 표준어 ‘잎’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잎이 다른 우뚝가사리보다 좋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바닷속에서 가장 일찍 캔 ‘조각우미’를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사진 12] 섭우미

- ⇒ 조각우미, {섭우미} 먼저 헌 건 질 처음 헌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번춘 두불우미. 또 세 번 헌 건 세불우미

5.1.5. 광추우미, 강추

‘광추우미’는 우뚝가사리의 일종으로, 표면이 뺏뺏한 것을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 ‘강추’라고도 발음하였다. 삶았을 때 우무 양도 적다고 한다.

- ⇒ {광추우미}는 쫄쫄 저 뺏세고 양이 그건 안 나온덴. 게연 안 받아간.

- ⇒ 우미는 네 가지 종류여. {강추}, 청우미, 돌우미, 그자 우미.
- ⇒ {강추는} 좀 까실까실허고 돌우미 비스듬헌 건디 그건 그자 하지는 아녀.

5.1.6. 종지우미

‘종지우미’는 우미의 일종이다. 크기가 ‘종지’처럼 작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 ⇒ 그 {종지우미} 그것도 풀 안 나는 것덜 막 할망덜 메영 서깁은에 풀아먹고.
- ⇒ {종지우민} 뒷산디게 돌우미 닳은 거게. 경 막 메여당은에게 서끄멍덜 경 풀앙.

5.1.7. 조각우미

‘조각우미’는 잠녀들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캐낸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일찍 딴 미역을 ‘조곽’이라고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각’은 ‘조곽’의 이형태다.

- ⇒ 처음에 쫄무는 우민 {조각우미}. 두 번째 허는 건 만곽우미.
- ⇒ 조각우미 섬우민 먼저헌 건 질 처음헌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번춘 두불우미. 또 세 번 헌 건 세불우미.

5.1.8. 만곽우미

‘만곽우미’는 가장 늦게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가장 늦게 채취한 미역을 ‘만곽’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르는 이름이다.

- ⇒ 처음에 쫄무는 우민 조각우미. 두 번째 허는 건 {만곽우미}.

5.1.9. 일변추

‘일변추’는 우뭇가사리 가운데 가장 먼저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일변’으로 채취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 {일변추} 헤낭 우미가 이젠 열추 뜯어질 거 아냐. 없으며는 키웁는 거야. 좀 키왓당 이반추, 이반추 뜯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5.1.10. 이반추, 이번추, 두불우미

‘이반추, 이번추’는 우뭇가사리 가운데 두 번째로 채취하는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두 번째 채취했다고 해서 ‘두불우미’라고 한다. ‘두불’은 표준어 ‘두벌’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 ⇒ 일번추 해낭 우미가 이젠 얼추 뜯어질 거 아냐. 없으며는 키웁는 거야. 좀 키웠당 {이반추}, {이반추} 뜯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 ⇒ 조각우미 섭우민 먼저 현건 질처음 현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번춘} 두불우미. 또 세 번현 건 세불우미.

5.1.11. 삼반추, 세불우미

‘삼반추’는 세 번째로 채취하는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달리 ‘세불우미’라고도 부른다.

- ⇒ 조각우미, 섭우민 먼저 현 건 질 처음 현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번춘 두불우미. 또 세 번 현 건 {세불우미}.
- ⇒ 일번추 해낭 우미가 이젠 얼추 뜯어질 거 아냐. 없으며는 키웁는 거야. 좀 키웠당 이반추, 이반추 뜯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5.1.12. 적

‘적’은 해초류 뿌리 등에 붙은 돌멩이 같은 단단한 물체를 말한다.

- ⇒ 아멩헤도 조각 것이 {적도} 엇고 우미가 곱주게. 발래는 디. 뭐 내중에 현 건 막 {적이} 부땡 방멩이로 막 두드려.

5.2. 도구

5.2.1. 방멩이, 마께

‘방멩이’와 ‘마께’는 표준어 ‘방망이’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우뭇가사리를 채취한 후 뿌리에 붙은 적을 떼어내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우뭇가사리에 붙은 적을 방망이로 두들겨서 깨끗하게 장만한 후에 판다.

- ⇒ 아멩헤도 조각 것이 적도 엇고 우미가 곱주게. 발래는 디. 뭐 내중에 현 건 막 적이 부땡 {방멩이로} 막 두드려.

5.2.2. 망사리, 조락

‘망사리’는 잠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한다. 잠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에 매달아 사용하는 그물로 짠 그릇을 말한다. ‘조락’은 망사리보다 크기가 작은 그물주머니다.

- ⇒ 우미 쯔물레 가민 {망사리가} 족으민 {조락}. 족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쯔물고. {망사

리} 7득으민 그것에 ㅈ물곡 그거.

5.3 행위

5.3.1. ㅈ물다, ㅈ문허다

‘ㅈ물다, ㅈ문허다’는 잠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우뭇가사리를 따위를 채취하다는 의미다. 우미를 ‘ㅈ물’ 때는 별다른 도구 없이 ‘테왁’과 ‘망사리’만 있으면 된다. 채취는 손으로 한다.

⇒ 우미 {ㅈ물레} 가민 망사리가 족으민 조락. 족은 조락 그거 창가근에 그것에 {ㅈ물고} 망사리 7득으민 그것에 ㅈ물곡 그거.

5.3.2. 우미 뜯다, 우미 메다

‘우미 뜯다’나 ‘우미 메다’는 바닷가 근처 바위 위에 난 우뭇가사리를 손으로 뜯거나 매다는 의미다.

⇒ 시월 일일부터 고동 잡기 시작허민 이월 말까지. 이제 꺾나른 이제 {우미 뜯기} 시작허민 한 메칠 이제 허다가 우리 동네는 일이 만허기 때문에 막 헤야 이십일. 경 아녀민 십오일쯤벙긔 우미 작업을 아녀.

⇒ 우미 ㄱ으로 물 쌍 가는 건 {메는} 거엔 허고. 바당에 드는 건 우미 ㅈ무는 거엔 허고.

5.3.3. 널다, 물리다

‘널다’는 표준어 ‘닐다’와 같은 어휘다. ‘물리다’는 표준어 ‘말리다’에 해당하는 제주어다. 갓 수확한 우뭇가사리를 널어서 말릴 때 사용하는 어휘다.

⇒ 우미도 남자들이 다 마중헤여 가지고 {널주게}. {널영} {물리문} 뉘는 거난 그건.

5.3.4. 빨다

‘빨다’는 표준어 ‘빨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빨다’는 우뭇가사리의 색을 바래기 위해서 민물에 자주 빠는 것을 말한다.

⇒ 우미 ㅈ물앙. 이제 으름에 먹을 거 집에 오랑 자꾸 {빨면서} 널거든. {빨면서} 널면은 메칠 널면은 허영케 발레지면 그게 삶아가지고 물 걸러서 하룻밤 재놓면 그것이 튼튼헤지거든.

5.3.5 발레다

‘발레다’는 우뭇가사리 따위를 햇볕에 말리면서 색을 바래게 하다는 의미다. 표준어 ‘바래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 우미 **쫄물앙**. 이제 **으름**에 먹을 거 집에 오랑 자꾸 {**뽕**면서} 널거든. {**뽕**면서} 널면은 메칠 널면은 허영케 발레지면 그게 삶아가지고 물 걸러서 하룻밤 재놓면 그것이 튼튼헤지거든.

5.3.6. 걸르다

‘걸르다’는 표준어 ‘거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뭇가사리를 삶아서 체에 받쳐 물만 거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 ⇒ 우미 **쫄물앙**. 이제 **으름**에 먹을 거 집에 오랑 자꾸 **뽕**면서 널거든. **뽕**면서 널면은 메칠 널면은 허영케 발레지면 그게 삶아가지고 물 {**걸**러서} 하룻밤 재놓면 그것이 튼튼헤지거든.

5.3.7. 얼루다

‘얼루다’는 얼게 하다는 의미다. 우뭇가사리를 삶아서 우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굳게 할 때 쓰는 말이다.

- ⇒ 우미 **슌**앙게 {**얼**루민게} 반찬도 헤영 먹곡 그냥 그자 **콩**기르 **기**든 거나 뇌근에 탕도 먹고.

5.4. 상태와 색깔

5.4.1. 까실까실허다

‘까실까실허다’는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아주 보드랍지 못하고 깔깔하다’는 뜻이다.

- ⇒ 강추는 **죤** {**까**실까실허고} 돌우미 비스듬헌 건디 그건 그자 하지는 아녀. 청우미는 맛이 없이. 한천에서도 청우민 안 받아.
- ⇒ 청우민 **후**쌀 {**까**실까실허고} 푸리고이 {**까**실까실} 푸리고 그자 우미는 발강허고 **죤** 멘지락허곡 경헌다.

5.4.2. 비스듬허다

‘비스듬허다’는 표준어 ‘비슷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강추는 좀 까실까실하고 돌우미 {비스듬헌} 건디 그건 그자 하지는 아녀.

5.4.3. 멘지락허다

‘멘지락허다’는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는 뜻이다.

⇒ 청우민 **후썩** 까실까실하고 푸리고이 까실까실 푸리고 그쟈 우미는 발강하고 좀 {멘지락허곡} 경헌다.

5.4.4. 존존허다

‘존존허다’는 표준어 ‘자잘하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돌우미는 {존존헌} 거 갖에 물싸는 디 그거 돌우에 거.

5.4.5. 튼튼허다

‘튼튼허다’는 단단하게 굳다는 의미다. 우뭇가사리를 삶아서 건져서 굳었을 때 표현하는 말이다.

⇒ 우미 **주물앙**. 이제 으름에 먹을 거 집에 오랑 자꾸 **뽇**면서 널거든. **뽇**면서 널면은 메칠 널면은 허영케 발레지면 그게 삶아가지고 물 걸러서 하룻밤 재놓면 그것이 {튼튼헤지거든}.

5.4.6. 푸리다

‘푸리다’는 표준어 ‘푸르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5.4.7. 발강허다

‘발강허다’는 표준어 ‘발갡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우뭇가사리의 색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 청우민 **후썩** 까실까실하고 푸리고이 까실까실 푸리고 그쟈 우미는 {발강하고} 좀 멘지락허곡 경헌다.

5.5. 음식

5.5.1. 우미, 우미묵

‘우미, 우미묵’은 표준어 ‘우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또 우무로 만든 음식을 일컫기도 한다.

- ⇒ 우미 즈물앙. 이제 으름에 먹을 거 집에 오랑 자꾸 뽀면서 널거든. 뽀면서 널면은 메칠 널면은 허영케 발레지면 그게 삶아가지고 물 걸러서 하룻밤 재놓면 그것이 튼튼해지거든. 튼튼 얼러지면 그거 반찬도 헤먹고 {우무} 뒷도 행도 먹고 헐 거주. 그걸 우미묵엔도 허곡 {우미엔도} 허곡 경헌다.
- ⇒ {우미묵} 그자 뽀 거 안 먹어뵈저게. 도토리묵거써 그자이. 우미 썰엉 오복간장에 마늘 헤놓고 양념 헤놓고 짝어 먹곡 무쳐 먹고 그자 집의서 그자 {우미} 콩그르 놔근에 그자 휘거치 그자 {우미} 행 먹는 거 그치룩행 먹어났주.

우미와 관련하여 조사한 어휘는 아래와 같다.

우뭇가사리	어 휘
종류	우미, 천초, 천추, 굿우미, 청우미, 돌우미, 섭우미, 광추우미, 강추, 종지우미, 조각우미, 만괵우미, 일번추, 이반추, 이번추, 두불우미, 삼반추, 세불우미, 적
도구	방멩이, 마께, 망사리, 조락
행위	즈물다, 즈문허다, 우미 뜯다, 우미 메다, 널다, 물리다, 빨다, 발레다, 거르다, 얼루다, 메다, 마중허다
상태와 색깔	까실까실허다, 비스듬허다, 멘지락허다, 존즌허다, 튼튼허다, 푸리다, 발강허다
음식	우미, 우미묵

6. 기타 해초류

6.1. 감태, 감태왓

‘감태’는 갈조류(褐藻類)의 해초(海艸). 원기둥 모양의 줄기는 1~2미터이며, 갈색이다. 전복의 먹이로 중요하며 깊은 바다에서 난다. 한국의 남해안·제주도,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우도에서는 채취해서 거름으로 쓰기도 하였다. ‘감태왓’은 감태가 많이 나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 ⇒ 성산포 메역은 맛 없어. {감태} 모양으로 빠드락해가지고. 메역은 온평리 메역이 취고야.
- ⇒ 흔 팔월돌 나민 이제 바당성기라고. 성기 그 옛날말론 퀴. 퀴엔 헛지. 그거 이제 빨강헌 거 건 바당에만 {감태왓디} 잇는 거.

6.2. 푸레, 개푸레, 춤푸레

‘푸레’는 파렛과의 해조류를 말한다. 표준어 ‘파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개푸레’는 파렛과의 해조류로, 잎의 넓고 바닷가 조간대 바위에 붙어서 산다. 식용하지 않고, 거름으로 사용한다. ‘춤푸레’는 먹을 수 없는 ‘개푸레’에 비유하여 ‘먹을 수 있는 파래’를 의미한다.



[사진 13] 개푸레

- ⇒ 하우목동 {푸레} 나나신디 이젠 {춤푸레} 안 나.
- ⇒ 이젠 {개푸레} 하지마는 {춤푸레} 것도 농약 탓인가 이제 {춤푸레} 안 나. 그 {춤푸레} 헤다가 뉘 장국에 해서 늘 먹었잖아게.
- ⇒ {춤푸레} 옛날 먹어나신디 그 돌에 부떠근에 그런 건 가시리광 7치부텅 메어나신디 이젠 그거 안 나고.

6.2.1. 푸레국, 푸레밥, 개푸레밥

‘푸레국’은 파래를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하고, ‘푸레밥’은 파래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개푸레밥’은 개파래를 바랜 후 그것을 잘게 썰어 넣어서 지은 밥이다.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섞어서 밥을 지어서 푹푹하게 해서 먹었다.

- ⇒ {푸레국}, 가시리국, 메역세국, 메역국 다 헤먹는 거주.
- ⇒ 근덕에 막 굶어서이 배고파서 막 {푸레밥도} 었어서 막 굶은 사름들 많이 잇고.
- ⇒ 툄밥은 먹어지는데 {개푸레밥은} 못 먹겠더라고. {개푸레밥은이} 쌀에 봉은 못먹어. 밀가루에 허터가지고. 밀7르에 허터서 밥을 허니까이 아이 못 먹겠더라. 거는 죽어도 못 먹겠더라.

6.3. 페, 넙페

‘페’는 황갈색의 해조류. 바닷가 조간대 바위에 붙어산다. 표준어 ‘패’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구황식물이다. ‘넙페’는 넓은미역식과의 해초(海艸). 가지 끝 부분은 공기주머니처럼 부풀어 있고 황갈색인데 건조하면 검은색으로 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표준어 ‘넙패’를 말한다.

- ⇒ 이디 밧데 가서 물룣 헤단도 썩아서 먹는 사름덜토 잇더라이. 물룣 헤다 {페} 놓고 해서 거 먹는 방법이 잇더라.
- ⇒ 먹는 건 벨 풀 었어. 여기 먹는 거 옛날7치 춤푸레 잇어서민 가시리 춤포레 {넙페}.
- ⇒ {넙페} 썩아근에 문대겨방 뉘장국 끌리민 그렇게 맛시잖아. 옛날 콤대산이 싱글 댁에 콤대산이 매당은에 썰어놓곡 헤영 넙페국 끌리민 얼마나 맛시나. 고기국보다 더 맛시. 이젠 {넙페도} 잘 안 나고.

6.3.1. 폐밥

‘폐밥’은 폐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구황음식의 한 가지다.

⇒ 폐 헤단에 이젠 삶안에 놓난 ~~꽃~~밥까지 발강헌 게 거칠긴 해도 먹기는 좋안게. 폐로 헨에 {폐밥}.

6.3.2. 넙페국

‘넙페국’은 ‘넙패를 넣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 넙페 삶아근에 문대겨 방 똥장국 끌리민 그렇게 맛시잖아. 옛날 콤대산이 싱글 댕에 콤대산이 매당은에 썰어 놓국 헤 영 {넙페국} 끌리민 얼마나 맛 시냐. 고기국보다 더 맛 셔.



[사진 14] 넙패

6.4. 막작패

바닷가 조간대 바위에 붙어사는 흑갈색 바닷말이다. 꽃상추와 같이 잎이 뭉쳐 포기를 이룬 식물이다. 패의 일종이다.



[사진 15] 막작패

6.5. 고장풀

‘고장풀’은 해초의 한 가지. 우도에서 1980년대 이후에 수요에 따라 캐기 시작했다고 한다. ‘벚붉은잎’을 말한다.

⇒ 우미 많이 나는 딘 {고장풀이} 나근에 저 하동사름덜은 {고장풀을} 막 ~~주물~~앙 ~~풀레~~ 가곡. 우리 동넨 우미 안 나부단 {고장풀이} 엇어. 우미에 쪼간부터온 거 그거.



[사진 16] 고장풀

6.6. 곤포

‘곤포’는 다시마의 다른 말이다.

⇒ 감태 닳은 거 {곤포엔} 흰 거 육지서 먹어신디이. 게난 그것이 난 옛날에 간보난 감태. {곤포} 난 거 뵈에 이제 감태만 나서라 감태만 나서라 허난 감태광 {곤포가} 저 좀 들린 거.

6.7. 도박

‘도박’은 붉은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을 말한다. 붉은 자줏빛의 가죽 조각 같고 마르면 자줏빛이 되는데, 풀이나 접착제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 {도박은} 먹지 아녀주. 건 풀. 도박풀이 젤 좋아.

6.7.1. 멩지도박

‘멩지도박’은 도박의 한 종류다. 표준어 ‘명주도박’에 대응하는 말이다. 도박 곁이 매끈매끈하다.



[사진 17] 멩지도박

⇒도박 {멩지도박}. 그냥 뭐헌 도박 두 가지.

6.7.2. 도박풀

‘도박풀’은 ‘도박을 끓여서 만든 풀’을 말한다.

⇒도박은 먹지 아녀주. 건 풀. {도박풀이} 젤 좋아.

6.8. 득고달

‘득고달’은 해초의 일종이다. ‘갈래곰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 {득고달은} 우리 바당도 잘 안나. 태풍이 나불어나민나주.

6.9. 밀대, 보릿대

‘밀대, 보릿대’는 봄에 톳 나는 계절에 나는 바다풀의 한 가지다. 노르스름하고 마디가 있는 것이 ‘보릿대’나 ‘밀대’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식용한다.

⇒ {보릿대에} {밀대에} 뭐 서실이어 바당에 꼭 차신디. {보릿대에} 헛 것이 내내 {밀대} 그거주게. 것도 바다에 나는 거 데쳐근에 멜첫국물에 옛날엔 무청 먹어난.

6.10. 서슬, 서실

‘서슬, 서실’은 바닷가에 사는 녹조류 해초다. 이용필(2008)의 《제주의 바닷말》에는 식물명이 ‘서실’로 올라 있다.

- ⇒ 보릿대에 밀대에 뒤 {서실이여 바당에} 짝 차신디. 보릿대에 헨 것이 내내 밀대 그거주게. 것도 바다에 나는 거 데쳐근에 멜쳐국물에 옛날엔 무청 먹어난.
- ⇒ {서실} 그자 먹는 사름덜은 중간중간 뜯어당 것도 봄에벳기 안 나. 톨힐 때.

6.11. 지꺼리, 찌끄리

‘지꺼리, 지끄리’는 바다 풀의 일종으로, 바위에 붙어 산다. 넓패와 모양이 비슷하나 작다고 한다.



[사진 18] 지꺼리

- ⇒ {지꺼린} 갓으로 메는 거고. 도박 주무는 거고.

6.11.1. 지꺼리풀

‘지꺼리풀’은 바닷풀의 일종인 지꺼리를 삶아서 만든 풀을 말한다.

- ⇒ 가시리풀도 좋고이, 도박풀도 좋고이, {지꺼리풀도} 좋고이.

6.12. 지충

‘지충’은 툇이 자라는 조간대 바위에 붙어사는 해초다. 이용필(2009)의 《제주의 바닷말》에는 식물명이 ‘지충이’로 올라있다.



[사진 19] 지충

6.13. 진도발이

‘진도발이’는 표준어 ‘진두발’에 해당한다. 모양이 미역과 비슷하고 바닷가 근처의 바위에서 자란다.

- ⇒ 메역뎡은거. 굿티나는거도박도잇고{진도발이}도잇고.

6.14. 가시리

‘가시리’는 표준어 ‘풀가사리’에 대응하는 우도 어촌 생활어다.

- ⇒ 먹는 건 뭐 벨 풀 엇어. 여기먹는 거 옛날 ㄱ치 **츰푸레** 잇어시민 {가시리} **츰포레** 넵페.
- ⇒ {가시리국} **웬장국** 배추 헤놓고 헤영 끌리민 고기국보다 맛좋다. **웬장**에 {가시리} 메여봐근에 배추 뜯어방 국 끌리민 두 사발씩 먹나.

6.14.1. 주네가시리

가사리의 일종. 모양이 길쭉길쭉하다. 국을 끓여 먹는다.

- ⇒ 그냥 {주네가시린} 그자 소람소람헌 거. 국 끓려 먹는 거.

6.14.2. 마카시리

‘마카시리’는 가시리의 일종이다. 풀이 많이 난다고 한다. 비교적 장마에 많이 나는 해조류의 한 가지다.

- ⇒ {마카시리엔} 현 건 막 풀 잘나는 거. 우미 닳은 **독발** 닳은 거.
- ⇒ {마카시리엔} 현 건 또 좀 종류가 **따른** 거. 게메 가시린디 우미 ㄱ치 생긴 거 그것덜은 요즘 메여근에 받아가는 생이라. 그냥 **불통가시리엔** 현건 메여당 국도 끌령 먹고.

6.14.3. 불통가시리

‘불통가시리’는 가시리의 일종이다. 식용한다.

- ⇒ 마카시리엔 현 건 또 좀 종류가 **따른** 거. 게메 가시린디 우미 ㄱ치 생긴 거 그것덜은 요즘 메여근에 받아가는 생이라. 그냥 {불통가시리엔} 현 건 메여당 국도 끌령 먹고.

6.14.4. 가시리풀

‘가시리풀’은 풀가사리로 만든 풀을 말한다.

- ⇒ {가시리풀도} **종고이**, **도박풀도** **종고이**, **지꺼리풀도** **종고이**.

6.14.5. 가시리국

‘가시리국’은 풀가시리를 된장 따위를 풀어서 끓인 국을 말한다.

⇒ {가시리국} 된장국 배추 해 넣고 해영 끌리민 고기국보다 맛 좋다. 된장에 가시리 메여 뇌근에 배추 뜯어넣 국 끌리민 두 사발씩 먹나.

6.15. 헵넵이

‘헵넵이’는 바닷가 조간대 바위에 붙어사는 붉은색 해초다. 우뚝가사리 모양이나 육질이 우뚝가사리보다 부드럽다. 4~5월 우뚝가사리 채취할 때 나온다. 이용필(2008)의 《제주의 바닷말》에는 ‘엇가지풀’로 올라 있다.



[사진 20] 헵넵이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이 보고서는 제주 동부 우도의 해초류 관련 어휘를 조사해 정리한 것이다. 우도 어촌 생활어 해초 관련 어휘 조사는 2011년 4월 4일, 7월 12일, 8월 2일, 8월 15일, 10월 3일 등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주 제보자 김춘산과 정금주 등 4명의 제보자에게서 1년 동안의 우도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봐왔던 해초류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특히 조사 항목 가운데 미역과 툫, 모자반, 우뚝가사리는 우도 사람들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해초류 일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접했던 바다식물이어서 어휘 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조사는 민족지적 방식으로 구술 채록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후에는 구술 자료에서 어휘와 용례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보고서는 1장 연구 개요, 2장 연구 추진 과정, 3장 해초류 관련 구술 발화, 4장 조사된 어휘, 5장 마무리 순으로 짜여졌다. 구술 발화는 주 제보자인 김춘산과 정금주에게서 해초류를 포함한 어촌 생활과 관련한 자료를 채록하였다.

조사된 어휘는 미역, 모자반, 듬북, 툫, 우뚝가사리, 기타 해초류 등 6개 주제로 종류, 부분명칭, 행위와 방법, 상태와 색깔, 음식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우도 어촌 생활어 가운데 해초류 관련 어휘는 총 205개이다. 이 가운데 기초어휘와 중복된 어휘들도 있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 어휘는 167개나 되었다. 새로 조사된 어휘 가운데는 사전이나 각종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 자료도 많아 국어학 연구는 물론 해양식물 연구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해초류 관련 어휘를 보면, 첫째, 해초류 종류와 관련하여 ‘츄메역, 물메역, 조각메역, 만괵메역, 녀메역, 메역귀, 돌가리, 츄뭉, 쥐뭉, 노랑쟁이, 듬북, 쥐뭉북, 감실듬북, 봉당톨, 꺾우미, 청우미, 돌우미, 섯우미, 조각우미, 만괵우미, 광추우미, 종지우미, 츄우미, 청우미, 물이슬, 멩지도박, 서슬, 지꺼리 등의 어휘가 새롭게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츄메역’은 먹을 수 있는 참미역을 가리키고, ‘물메역’은 바닷가 바위가 아니라 물이 깊은 곳에 자라는 미역을 일컫는 말이다. ‘조각메역’과 ‘조각우미’는 가장 먼저 수확하는 미역과 우뚝가사리를 일컫는 말이고, ‘청우미’는 색깔이 바래서 푸른 빛을 감도는 우뚝가사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 어휘 가운데는 실물은 물론 표준어 이름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게 많아 이에 대한 해양식물학자 등과 함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분 명칭과 관련하여서도 재미있는 표현이 조사되었다. 미역의 끝을 ‘메역 꼰렁이’라고 하고, 해초류의 줄기는 ‘물가리’, 뿌리 아래의 부분은 ‘덩치기’라고 하였다. 듬북 따위의 해초류의 단단한 부분을 ‘팍’이라고 표현하였고, 모자반의 공기주머니를 ‘부끌레기’라고 하였다. 또 툇이나 지층이 등에 기생해 사는 ‘바둑두둑’을 ‘물이슬’이라고 하였다.

셋째, 넓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갈콩이’, ‘바작’(발채), 바다에서 듬북 등을 벨 때 사용하는 긴 낫인 ‘줄아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중게호미’, 잠녀들이 사용하는 물안경을 보관하는 ‘눈도갑’ 등도 새롭게 조사되었다.

넷째, 해초류 채취 행위와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어휘들이 조사되었다. 잠녀들이 바다에 가서 미역이나 툇 등의 채취를 시작하는 것을 ‘허채하다, 즈문하다’라고 하고, 미역을 채취하는 것을 ‘메역 무레질’,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것을 ‘우미 무레질’이라고 하였다.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물질을 ‘시간무레질’이라 하였다. 잠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미역이나 모자반, 듬북 등을 채취할 때는 ‘즈물다’라는 표현을 썼고, 조간대 바위에서 우뭇가사리를 채취할 때는 ‘우미 툷다, 우미 메다’라고 하였다. 또 물이 썩면 드러나는 툇을 ‘중게호미’로 벨 때는 ‘톨 비다’라고 표현한다. 그런가하면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옮기는 사람을 마중꾼이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마중허다’라고 말했다.

다섯째, 해초류의 상태와 관련해서도 ‘민지락허다, 빠드락허다, 몽텅몽텅허다, 쫄럭쫄럭허다, 갈탁허다, 먼지락허다, 밍끌밍끌허다, 사끌사끌허다, 몽클몽클허다, 몽갈몽갈허다, 튼튼허다’와 같은 고갱이 같은 어휘들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다섯째 해초류 음식 이름도 새롭게 조사되었다. 모자반을 양념에 무쳐낸 음식을 ‘몸즈밤’이라 하였고, 돼지고기 삶은 국물에 모자반을 넣어서 끓인 음식을 ‘뚝국물’ 또는 ‘몸국’, 멸치나 자리돔젓의 젓국을 넣어서 끓인 음식은 ‘츨렛국’이라고 불렀다. 이밖에도 구황음식으로 툇을 넣어서 지은 ‘툇밥’, ‘폐’를 넣어서 지은 ‘폐밥’, ‘개푼레’를 넣어서 지은 ‘개푼레밥’, 넓패를 넣어서 끓인 ‘넙페국’도 조사되었다.

여섯째, 미역을 말릴 때 여러 개를 포개서 널어 말리는 것을 ‘냥’이라 하고, 말린 미역 20~30 냥을 묶은 것을 ‘단’이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해초류를 끓여서 만든 풀 이름도 조사되었다. 도박으로 만든 풀을 ‘도박풀’, 풀가사리 풀은 ‘가사리풀’, ‘지꺼리’라는 해초를 끓여서 만든 풀은 ‘지꺼리풀’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번 조사에서는 미등재 어휘 등 가치 있는 제주 특유의 어휘가 상당히 집적되었다. 이는 국어사뿐만 아니라 제주어를 풍부하게 해주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누대로 이어져야 할 언어자산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조사 어휘들에 대한 대응 표준어를 찾을 수 없는 어형이 많고, 뜻을 풀이를 유쾌하게 하지 못한 어휘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위의 예를 보듯이 아직도 어촌 지역에는 고갱이 같은 어휘들이 발굴되지 않은 채 사장되고 있다. 게다가 새롭게 조사된 어휘들은 사전이나 도감 등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에 대해서 온전히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는 국어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해양식물, 해양생태 등을 전공한 연구자들과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언어들이 더 이상 죽기 전에 다각적으로 자료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 《어구》,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순자, 《잠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2009.
강정희·김순자 외,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10.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76.
박용후,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백문하, 《제주도 해산 어류도감》, 신아문화사, 1994.
북제주군, 《북제주군 지명사전》, 2005.
성산고등학교, 《수산일반향토교육자료》, 1983.
우도지편찬위원회, 《우도지》, 1996.
제주도, 《증보 개정 제주어사전》, 2009.
제주도, 《제주의 민속Ⅱ》, 1996.
제주도교육청, 《제주바다물고기》, 1995.
현평효,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1962.

부 부

1 해호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범용정보	종사정보	뜻풀이	기타정보	용례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명칭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감태	감간				감태왓	명	명	감태가 많이 나는 바다 밭.		흔 풀줄을 나린 이제 바닷성기라고. 성기 그 옛날엔 쉼, 쉼엔 쉼지. 그거 이제 빨강한 거 건바당에만 {감태왓} 있는 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감태	감칭				감태	명	명	<감태>표준>이		성산포 매역은 맛 없어. {감태} 모양으로 빼드려 해가지고. 매역은 은병리 매역이 체고야.	김훈신				0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고장풀	망칭				고장풀	명	명	해조의 한 가지로, 표본어 범용어에 해당하는 단. 제주도 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수도에 따라 캐기 시작함.		우미 많이 나는 딴 {고장풀이} 나근에 저 하동 시 들방은 {고장풀을} 막 조들양 풀레 가곡. 우리 들방 우미 약 나부단 {고장풀이} 있어. 우미에 조각부터 온 거 그거.	윤은옥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근포	망칭				근포	명	명	<근포>표준>		감태 담은 거 {근포에} 흰 거 용지서 먹어신디이 게만 그것이 난 옛날에 감태만 나서라 허단 거 뵈에 이제 감태만 나서라 감태만 나서라 허단 감태왕 {근포가} 저 졸들린 거.	윤은옥				0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넙패	망칭				넙패	명	명	넙음이역취과의 해초(海草). 가지 끝 부분은 공기주머니처럼 부풀어 있고 황갈색인데 건조하면 갈색으로 된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먹는 건 뭐 뱌 풀 있어. 여기 먹는 거 역박가지 줄 무래 있어신디 가지라 총포레 {넙패}://{넙패} 풀아근에 문대겨 용 환장국 콜리민 그렇게 되시잖아. 옛날 폼대신이 신글 땀에 폼대신이에 손에 뿜어 놓구 해영 {넙패국} 콜리민 열마나 맛 시나. 고기국보다 더 맛 서. 이전 {넙패도} 잘 안나고.	김훈신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넙패국	음식				넙패국	명	명	넙패를 넣어서 끓인 국.		넙패 솟(아근)에 문대겨 북 뉘장국 콜리민 그렇게 맛시잖아. 옛날 폼대신이 신글 땀에 폼대신이에 손에 뿜어 놓구 해영 {넙패국} 콜리민 열마나 맛 시나. 고기국보다 더 맛 서.	김훈신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도박	망칭				도박	명	명	붉은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 붉은 자줏빛의 가죽 조각 같고 마르면 자줏빛이 되는데, 풀이나 장작재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도박은} 먹지 아니추. 건 풀. 도박풀이 쉼 좋아.	김훈신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엿기도박	종류				엿기도박	명	명	<엿기도박>표준>		도박 {엿기도박}. 그냥 워힌 도박 두 가지.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도박	풀				도박	명	명	도박으로 만든 풀.		도박은 먹지 아니추. 건 풀. {도박풀이} 쉼 좋아.	김훈신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뚝/고갈	망칭				뚝/고갈	명	명	도감에는 '갈래곰보'라고 되어 있다. 달린 게 판조라고 한다.		{뚝고들은} 우리 바당도 잘 안 나. 머퐁이나 불어 나민 나추.	김훈신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도/작패	망칭				도/작패	명	명	바닷가 조각대 바위에 붙어사는 흑갈색 바닷말이다. 꽃상추와 같이 많이 옮겨 포기를 이룬 식물이야. 꽤 의 일종이다.		바닷가 조각대 바위에 붙어사는 흑갈색 바닷말이다. 꽃상추와 같이 많이 옮겨 포기를 이룬 식물이야. 꽤 의 일종이다.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기타	말대	망칭				말대	명	명	바닷가 조각대 바위에 붙어사는 해조류의 한 가지. 모양이 열대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 다.		바닷가 조각대 바위에 붙어사는 해조류의 한 가지. 모양이 열대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 다.	정금주				*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범용정보	종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명칭정보2	명칭정보3	표준국어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부러대	명칭				부러대	명	명	바닷가 조건대 바위에 붙어사는 해조류의 한 가지. 모양이 부러대외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뜻을 수확할 때 나온다.	{부러대}에, 밑대에 뭐 서성이며 바닷에 꼭 자신 가지. 모양이 부러대외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도 부러대라는 거 데저근에 팔장 국물에 엷발만 무정 먹어남.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서슬	명칭				서슬	명	명	바닷가에 사는 녹조류 해조다. 뜻을 채취하는 시기에 나온다. 식용한다.		이용필(2008)의 <제주도의 바닷말>에는 식물명이 '서슬'로 올라 있음.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서실	명칭				서실	명	명	바닷가에 사는 녹조류 해조다. 뜻을 채취하는 시기에 나온다. 식용한다.		이용필(2009)의 <제주의 바닷말>에는 식물명이 '서실'로 올라 있음.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지꺼리 불	명칭				지꺼리, 지꺼리	명	명	바닷가 조건대 바위에 붙어사는 바다말의 한 가지다. 넓퍼와 모양이 비슷하나 작다.	{지꺼리} 것으로 매는 거고. 도박 주무는 거고.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지꺼리 불	불				지꺼리 불	명	명	바닷말의 일종인 지꺼리로 만든 불.	가사리 불도 좋고이, 도박 불도 좋고이, {지꺼리 불}도 좋고이.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지총	명칭				지총	명	명	뜻이 자라는 조건대 바위에 붙어사는 해조다.		이용필(2009)의 <제주의 바닷말>에는 식물명이 '지총'이로 올라 있음.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건도밭이	명칭				건도밭이	명	명	=진두밭, <표준>	매역 달은 거, 구의 나는 거 도박도 있고 {진도밭 이}도 있고.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패	명칭				패	명	명	휴갈색의 해조류 바닷가 조건대 바위에 붙어 자란다. 우황식물이다.	이디 바드 가서 물복 해단도 썰어서 먹는 새들일 투 잇더라이, 물복 해다 {패} 놓고 해서 거 먹는 방법이 잇더라.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주배가사리	명칭				주배가사리	명	명	가사리의 일종.	그냥 {주배가사리} 그자 소랑소랑현 거, 국 끓려 먹는 거.		윤준욱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불가사리	상태				소랑소랑하다	명	명	모양이 기름하다.	그냥 주배가사리 그자 {소랑소랑한} 거, 국 끓려 먹는 거.		윤준욱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불가사리	음식				가사리국	명	명	불가사리를 된장 따위에 붙여서 끓인 국.	{가사리국} 된장국 배추 해 놓고 해영 끓린민고 기구보다 맛 좋다. 된장에 가사리에 보르에 배추 들어올 국 끓린민 두 사발씩 먹나.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불가사리	증류				불가사리	명	명	=불가사리.	먹는 건 뒤 벨 풀 있어. 여기 먹는 거 옛날 거지 총 무에 잇어시민 {가사리} 증포래 남매, {가사리 국} 된장국 배추 해 놓고 해영 끓린민고 기구보다 맛 좋다. 된장에 {가사리} 메어 되근에 배추 들어 올 국 끓린민 두 사발씩 먹나.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기타	불가사리	증류				마카사리	명	명	비교적 장마에 많이 나는 해조류의 하나인 가사리의 일종.	가사리도 있고이, {마카사리엔} 현 건 또 증류 육가 또/른 거, 게메 가사리디 우미 거지 생긴 거 그어덜은 오름 매여근에 받아가는 생이랑, 그냥 불중가사리엔 현 건 매여당 국도 끓여먹고.		정금주					*

1 해 초 류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례	뜻풀이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정보2	명칭정보3	명칭정보4	명칭정보5	명칭정보6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등류	등류	등류	등류	등류	이제 바탕에 이제 상수물 웨가민 {등류물레}가 텅가, 바탕 가운데로이, 덩어리, {등류물레} 덩어리는 게가면 막 히어가지고이, 그 등류물 막 덩어리는 게야, 막 덩어리와, 갯민 막 해녀 증수들이 앙 리 어릴 때에는이, 등류 띠오라기민, 자기가 나가 마, 나가 으너 쫓지, 해염저강, 그 물레한 허거는, {등류물레,}	등류이 덩어리져서 띠오르는 모양을 나타내서 같은 말.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상태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해가지고} 노랑쟁이제 갯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앙고러와, 막 앙광민광하고, 감채들 북은 중 사골사골하고이, 쥐등북은 맨지락하고, 그 물건 자체가 온나.	=미끌미끌하다.<표준>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상태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해가지고 노랑쟁이제 갯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앙고러와, 막 앙광민광하고, 감채들 북은 중 사골사골하고이, 쥐등북은 맨지락하고, 그 물건 자체가 온나.	=미끌미끌하다.<표준>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상태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해가지고 노랑쟁이제 갯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앙고러와, 막 {민광민광하고}, 감채들 북은 중 사골사골하고이, 쥐등북은 맨지락하고, 그 물건 자체가 온나.	=미끌미끌하다.<표준>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상태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해가지고 노랑쟁이제 갯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앙고러와, 막 앙광민광하고, 감채들 북은 중 {사골사골하고이}, 쥐등북은 맨지락하고, 그 물건 자체가 온나.	표면이 느낌이 조그름은 거친 듯하다.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상태					노랑쟁이는 미끌미끌해가지고 노랑쟁이제 갯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번함없이 잘 나, 그거는 노랑쟁이는 앙고러와, 막 앙광민광하고, 감채들 북은 중 사골사골하고이, 쥐등북은 {맨지락하고}, 그 물건 자체가 온나.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럽다.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종류					{쥐등북}, 감채등북 해가지고 옛날엔 등북을 쫓 물이가지고 비포 없을 때니까 모리듯데 그거 등 북 안 들이든 모리가 안 튀거는.	등류의 한 종류.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등류	종류					노랑쟁이 온나고 {감채등북} 온나고 쥐등북 온나 고, 그 등류이 그 이름이 그개 옛날 함양일이 온 도르니까 옛날 함양일이 그 해녀들이 수물이 서 거 걸을 우리 해를 때에는 이간 {감채등북}, 오거는 쥐등북, 요건 노랑쟁이 요건 온, 그물개 하면서 해왔지.	등류의 한 종류.		김순산										*

1 해호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리명	범용정보	종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상태					문지락하다		형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상태					좀진좀진하다		형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상태					좀/잘다		동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색깔					검시름		형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색깔					노랑하다		형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배지근하다		형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맛있다		형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젓국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0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재료					젓국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재료					뚜국물		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대우치다		동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무지다		동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0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끓이다		동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끓다		동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0
이촌생활어	해조류	모자반	음식					끓다		동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시지	명칭정보 시지	0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범	범용정보	종사정보	뜻풀이	음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음식					출렛국	출렛국	명	뽕치겉이나 자리돔것 국물로 간을 한 국물에 모자반이나 미역 따위를 넣고 끓인 국.	뽕치겉이나 자리겉 국물이나 뽕 "아" 응국 출렛과 끓여 먹어서키게. {출렛국} 먹어서키어. {뽕치겉} 바로 찌꺼기가거든//옛날은 매역에 지리국물이나 뽕치국물 놔놓긴 제기국 7지 갖섯어. 무수보고 뽕치엔 헛거든이. 매역에 뽕치터보르에 출렛국 끓리민 경 맛스면 잘 먹었지.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음식					뽕국	뽕국	명	돼지고기 삶은 물에 모자반 등을 넣어서 끓인 국.	뽕치 이세는 다 잠아다 주고 잔지도 될 때에 지지 만, 그때는 다 집에서 잠으면서 할 때에는 뽕국 {응국} //잔치집의 강 {응국} 먹자게. {응국} 먹 으레 가지.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음식					뽕조/방	뽕조방	명	모자반을 태져낸 후 갖은 양념을 해서 무간 나물.	다른 건 기자 {응주반에} 해근에 응 응류완당 뽕 이드에 태져근에 저 초 응저근에 저름 볼국 정을 볼국 행 무저근에 {응주방}.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음식					뽕국물	뽕국물	명	돼지고기 삶은 물에 모자반 등을 넣어서 끓인 국. 돼지고기 국물을 이용한 국이어서 불어간 이름이다.	뽕치 근때는 이세는 다 잠아다 주고 이제 잔지도 될 때에 지지만, 그때는 다 집에서 잠으면서 할 때에는 {뽕국물} 응국/제야지 솟아낸 국물엔 응 응 끓인 건 {뽕국물}.	김춘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종류					취음/취음	취음	명	모자반의 일종.	{취음고} 응하국 존나. {취음}, 응술 증진증 진하국 부를레기가 잇는다 그거는 대우저서 반잔 해먹는 거. 그런 것에 나는 단 나고 안 나는 단 안나. 그런 바다 음이 아니고 물 싸면은 물 싸는 다 그거 나는 응. 취음이라고 해가지고이. 응이 틀이 {취음}.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종류					츄음/츄음	츄음	명	모자반의 일종.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다.	{츄음} 그 그자 응이고이://{츄음응} 그자 바 당에 막 많이 나던 것://{츄음응} 내나 것도 당저 도 되긴 하지만은 그 끌어먹고 그간. 풍국물해도 끌어먹고 찌국에도 끌어먹고.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종류					노랑쟁이	노랑쟁이	명	괭성이 모자반, 거름용 해초의 일종.	{노랑쟁이} 존나고 김셀들복 존나고 취음복 존나고. 그 들복이 그 이름이 그게 옛날 할양일이 워 된 모르니까 옛날 할양일이 그 해너서 주불아 서 거 걸름 우리 해를 막에는 이긴 김셀들복, 오 가는 취음복, 요건 {노랑쟁이} 요건 응. 그렇게 하면서 해왔지.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모자반	행위					뽕/뽕/다	뽕	동	=말리다.<표준>03(1)	뽕/{응뽕주방} 불아먹는 것도 잇고.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공간					뽕탁	뽕탁	명	해나가 물에서 나와 불을 피워 쪄는 곳.	{뽕탁은} 저 돌로 해근에 병하게 다왕. 부름 으지 뽕 뽕신 워져근에 이젠 뽕하게 다와근에 {뽕 탁}.	정금주					*

1 해 초 류 조사 어휘 (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올림말	범용정모	조사정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모	명칭정모	명칭정모	명칭정모	표준국어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단위							미역을 말리기 위하여 여러 개를 이으며 포개 단 하나.	그 상인은 어디로 가느냐 허민 여수로 가. 여수로, 여수로 풀래 가. 한 남에 열마씩이. 한 남에 열마씩 해서 가지고 상인에게 팔아//이 남에 열개씩 있으면서 부찌지. 계은 한 남에 열 개 단을 어가주게. 그렇게 혼남. 혼남은 너몇개도 들어 가는 거 있고 서너개도 들어가 는 거 있고//세은 남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때에는 딱딱 딱딱 제여보. 딱 딱딱 세여근에 무개근에 딱 사. 꼭 단 상인 오면은 한 켜미에 딱 딱딱 딱딱 세 주민 친 남이민 열 개민 친 남. 딱 개씩 세 놓은 거 열 개민 친 남 그렇게//매역이 죽은 것은 쉼새 개 네 개민 혼 남에 들어가고. 짝은 것은 너몇개 들어가고 장하여//머기는 남으로 매역 한 남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는 남으로 하기 때문에 매역귀를 부떠야 큰이 나가고.	김혼신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단위							서은 남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때에는 딱딱 딱딱 제여보. 딱 딱딱 세여근에 무개근에 딱 사. 꼭 단 상인 오면은 한 켜미에 딱 딱딱 딱딱 세 주민 친 남이민 열 개민 친 남. 딱 개씩 세 놓은 거 열 개민 친 남 그렇게//매역이 죽은 것은 쉼새 개 스무 남이민 스무 남 단 켜근에 열마?			김혼신, 정금주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단위							마른 미역 따위를 세어서 단을 만들다. 미역 한 단은 말려서 정만해 놓은 30개를 말한다.	어수 가진 거기 서용된 {단치는} 서용된 말여근 해 {단쳐근해} 거기서 풀야.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단위							단위로 썰어서 다루는 물건을 세는 단위.	서은 남이 혼 단이거든. 그런데 사갈 적 때에는 딱딱 딱딱 제여보. 딱 딱딱 세여근에 무개근에 딱 사. 꼭 단 상인 오면은 한 켜미에 딱 딱딱 딱딱 세 주민 친 남이민 열 개민 친 남. 딱 개씩 세 놓은 거 열 개민 친 남 그렇게.			김혼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봉기구의 하나. 바닷물 내어 걸물과 티끌을 걸러는 데 사용한다.	옛날에는 농사를 딱 곤다면은 배로 갈롱이, 헤기 지고 {홍신이나} 발동기나 막 남매역 건진다고 막 아단이 데 타지시.			김혼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	옛날에는 농사를 딱 곤다면은 배로 갈롱이, 헤기 지고 {홍신이나} 발동기나 막 남매역 건진다고 막 아단이 데 타지시.			김혼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갈롱이나 곡식 따위를 끌어모으는데 쓰는 기계. 한 쪽 끝이 양그리진 대쪽이나 철사를 부챗살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옛날에는 농사를 딱 곤다면은 배로 {갈롱이} 헤기 지고 {홍신이나} 발동기나 막 남매역 건진다고 막 아단이 데 타지시//남매역은 자 팔바당에 남짓 한 것 같아 이 다시마, 다시마 구라, 남매역, 남매역, 옛날은 다 주물아나고. 서용내린 디 오실 바디. 그 옛날은 막 {갈롱이로} 끌어와나고. 상근은 갈 매역 강 주물아오곡 그 쪽은 용근열은 뜻 가.	김혼신, 윤호남												*	

1 해 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범	범용분류	종사장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티 정보 시기	명티 정보 영역	표준국어 표준어 시기	표준국어 표준어 영역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갈퀴리	명	명	갈퀴리나 곡식 따위를 굶어모으는 데 쓰는 기구. 한쪽 끝이 우그러진 대쪽이나 철사를 두 겹씩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법맥역 바탕에 바탕에 배가 희명하여, 맥역 건조하고, 해너로 해너는 가서 주물지, 배를 막 그 (갈퀴리) 가지고 건지시, 그거 (갈퀴리) 꽃어 가면서 (갈퀴리에) 갈아정 올라오게.	김춘신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기		명	명	왕겘이나 종이 따위에 글자나 그림, 색깔 따위를 넣어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특정한 단계를 나타내는 데 쓰는 물건.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맥역을 많이 뜯게 되고 나 만하고 어린 시절은 맥역을 뜯으니까 시간을 막 뜯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분, 시간을 막 뒤서 그 시간 내인 고통을 꼭 부는 거야. (기)를 들뜨면서 나만 하던 그때 나오지.	김춘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소라고동		고동		명	명	=소라, <표준>>02.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맥역을 많이 뜯게 되고 나 만하고 어린 시절은 맥역을 뜯으니까 시간을 막 뜯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분, 시간을 막 뒤서 그 시간 내인 고통을 꼭 부는 거야. (기)를 들뜨면서 나만 하던 그때 나오지.	김춘신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바작		명	명	바작,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라리 모양의 물건.	그게 마중될 다 가지, 남편 이신 새를 달고 뭐 없는, 난막 가서 하던 다 뺏기고 (바작으로) 저 올리고 다 하지.	김춘신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중계호미		명	명	해너들이 물 속에서 미역, 톳 등의 해초를 빼어 내는 낚.	{중계호미라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태웁만 매영 가만 때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면 매역은 주 무는 거야.	김춘신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망사리		명	명	해너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릇. 망사리.	중계호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태웁만 매영 가만 때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면 매역은 주 무는 거야.	김춘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태막		명	명	밖의 새 울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너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	중계호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태웁만 매영 가만 때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져가면 매역은 주 무는 거야.	김춘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도구				복/태막		명	명	해너들이 작업할 때 부력을 이용하여 그 위에 가슴을 얹고 헤엄치는 데 쓰는 막으로 만든 도구.	옛날은 {복/태막에} 산디씩 고통 망사리 우렁 강 하영 하영 주게.	평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명칭		미역		매역		명	명	=미역, <표준>>02	그백엔 우리가 {매역을} 총매역 주물민 시간 당 무리질을 했지, 시간 무리질.	김춘신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방법				시간 무리질		명	명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물질.	그백엔 우리가 매역을 총매역 주물민 시간 당 무리질을 했지, {시간 무리질}.	김춘신						*	

1 해호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범용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명칭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쿠다리	미역의 대가리.	명	명	미역의 대가리.	미역 그 줄거리 이신 높은 우으로 바귀. 또 (쿠다리) 먹이 이치북 돌돌말린 거 이신 거는 이제 곧으로 바귀. 난 기차 하트받시난 마중해선 돌아도 조물만.(쿠다리) 신 것 7관 총매역 하귀 그 넘적현 것 7관 넘매역, 넘적현엔 말로 넘매역.	정음주, 음훈음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물거리	미역 따위의 줄기.	명	명	미역 따위의 줄기.	물매역은 귀가 잇귀, 또 물매역 건 거는 쿠다리가 총매역하귀. 영현 (물거리) 하귀 하영 그런 비어남뵈야 필요어신 거.	정음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매역귀	미역의 대가리.	명	명	미역의 대가리.	(매역귀) 전부 바탕에 놔두고, 매역 요귀 요귀 쿠다리만 이거 똑으로 조물야.	김춘산						0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영치기	나무나 미역 줄기 따위의 밑 부분.	명	명	나무나 미역 줄기 따위의 밑 부분.	매역귀 밑매가 {영치기}.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매역 이파리	미역의 잎사귀.	명	명	미역의 잎사귀.	이파리 그사 (매역 이파리)엔 하귀, 매역 광, 게 연 연 꼴쟁이, 꼴쟁이는 그 중 끊어놓 날아야 뒤 지.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매역 광	미역의 가운데에 있는 짙긴 줄기.	명	명	미역의 가운데에 있는 짙긴 줄기.	이파리 그사 매역 이파리엔 하귀, (매역 광), 게 연 연 꼴쟁이, 꼴쟁이는 그 중 끊어놓 날아야 뒤 지.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매역 광썰이	미역의 큰 부분.	명	명	미역의 큰 부분.	(매역광썰이) 끈지 아너부난 매역 횡영해변 매역 못 썰어개.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박편명칭				귀	미역의 대가리.	명	명	미역의 대가리.	넘매역은 귀가 없거든, 가운디 끝만 잇어 이 놓을 것은 가운디 끝이 잇고, 경 아너는 것은 끝이 없이 전부 다 매역만 땀지락하어.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관/피다	=관피다.<표준>	명	명	=관피다.<표준>	아이고, 매역에도 횡영회득하민 두루 물관부난 (근피어작개), 툇도 잘 올라야, (근피어)에 앙 땀다 / 아이고, 매역 올히 값 가켜. (근피어 지), 경 하귀.	김춘산, 음훈음						0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만지락하다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럽다.	명	명	거칠지 아니하고 부드럽다.	미역도 영 지른 알라래 가민 물매역 중 총 썰 매역이 (만지락하귀), 영현 잇몸산 그런 단 허민 경 물매역하영 막 빼드락하영 물관도 새카랑하고 시락하귀, 물 우의 난 물매역이 더 졸주, 물말 지 쓴디 그 총영이 진디 것 보단.	정음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빼드락하다	뺏긔하다는 의미의 제주어.	명	명	뺏긔하다는 의미의 제주어.	미역도 영 지른 알라래 가민 물매역 중 총 썰 매역이 만지락하귀, 영현 잇몸산 그런 단 허민 경 물매역하영 막 빼드락하영 물관도 새카랑하고 시락하귀, 물 우의 난 물매역이 더 졸주, 물말 지 쓴디 그 총영이 진디 것 보단.	정음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남작하다	=남작하다.<표준>02	명	명	=남작하다.<표준>02	쿠다리 신 것 7관 총매역 하귀 그 넘적현 것 7관 넘매역, (남작하영) 말로 넘매역.	음훈음						*

1 해호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뜻풀이	조사 장르	범용 장르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 정보 시지	명칭 정보 시지	표준국어 시지 등급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미역 그 줄거리 이신 놈은 우은로 바귀, 또 쿠디 미역의 대가리의 모습이 독특한 모습을 나타 낼 때 사용하는 말.	미역의 대가리의 모습이 독특한 모습을 나타 낼 때 사용하는 말.	명	명		미역 그 줄거리 이신 놈은 우은로 바귀, 또 쿠디 (울락쨌러하국), 영한 올가리 하국 하영 그런 바 어남뵈야 필요어신 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줄락쨌러하 다	줄락쨌러하라는 의미다.	명	명		줄락쨌러하 다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베드락하 다	베드락하라는 의미의 제주어.	명	명		베드락하 다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상태					갈락하 다	물기를 머금어 축 늘 어지다. 미역의 축축 늘 어진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명	명		갈락하 다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음식					미역제	미역을 간장 파 따위의 양념에 무쳐낸 음식. (미역제) 어영 먹고.	명	명		미역제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음식					미역국	미역을 넣어서 끓인 국.	명	명		미역국		김춘산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의복	명칭				고무옷	물이 스며들지 않게 고무로 만든 옷.	명	명		고무옷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의복	명칭				물수건	해너들이 물질할 때 쓰는 옷. 무명으로 만든 다.	명	명		물수건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의복	명칭				물수건	해너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수건.	명	명		물수건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의복	명칭				두대기	해너들이 물질할 때 추위를 막기 위하여 등 뒤로 둘러쓰는 포대기.	명	명		두대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조류	미역	의복	명칭				눈	=물안경 <되잔>	명	명		눈		정금주				0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용리명	별명	종자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정보2	명칭정보3	표준국어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외박	명칭				후은노	명	명	해녀가 물질을 때에 쓰는, 작은 알이 돌인 물안경.	그때는 수도 고무장갑도 없고, 그냥 물속에서 이디는 물적성도 없고, 물수건 광복 해근에 막 걸러내곤 찜노 써근에 들어가, 옛날에는 요만한노(참은노).	정음주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조각매역		명	명	재질이 되기 전에 따서 말린 미역.	표준에는 조각(무늬)의 잘못이라고만 되어 있음.	정음주						0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만곡매역		명	명	마지막에 채취하여 말린 미역.			정음주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남매역		명	명	=다시마.<표준>	{남매역} 남매가 이만해, 기락이가 두 발씩 힘겨, 옛날은 그거 막 여수 가서 팔아오고, 그렇게 어린 우리가 남매역을 그거 수물었거든.	김춘산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총매역		명	명	잠미역, 남매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부르는 이름.	그밖에 우린가 매역을 {총매역} 주물민 시간 당 무리질을 했지, 시간무리질/그냥 매역?만 {총매역} 하구.	김춘산, 윤준욱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총매역		명	명	깊은 물 속에 나는 미역.	미역도 영 지른 알리엔 갠민 {총매역} 중 총매매역이 먼저하구. 영원 것들신 그런 단 하민경 총매역하영 막 배드하영 올라도 새가랑하고 사랑경주, 올 우의 난 총매역이 더 졸주, 올말 지는 디 총매역이 진디 것 보단.	정음주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육지매역		명	명	양식미역을 말하는 것이다.	옛날은 남매역엔 하연 부편 막 풀아나신디, 이런 그를 아너고 {육지매역들만} 이런 총매역을 지디시마 나가든.	윤준욱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종류				총매역		명	명	양식 미역의 다른 이름이다. 줄을 매서 카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은 남매역엔 하연 부편 막 풀아나신디, 이런 그를 아너고 육지매역들만 이런 {총매역들} 지디시마 나가든. /총매역도 막 하영 부편에 풀아나신디 이런 그것도 {총매역} 나부난 이런 그것도 필요었고.	윤준욱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행위				조(물)다		명	명	해녀들이 바다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다.	{남매역} 남매가 이만해, 기락이가 두 발씩 힘겨, 옛날은 그거 막 여수 가서 팔아오고, 그렇게 어린 우리가 남매역을 그거 {조물었거든.}	김춘산						*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행위				갯지다		명	명	갯밭에는 농사를 막 건너면은 배로 갈줄이 헤기치고 풍서이나 밭동기나 막 남매역 {건진디}고 막 아담이 대 타지디.	옛날에는 농사를 막 건너면은 배로 갈줄이 헤기치고 풍서이나 밭동기나 막 남매역 {건진디}고 막 아담이 대 타지디.	김춘산					0	
이른생물어	해초류	미역	행위				갯다		명	명	차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힘을 가하다.	남매역, 바담에 바담에 배가 힘영여, 매역 건진디고, 해너로 해너는 가서 주물지, 배론 막, 그걸 무민로 가지고 건지디, 그거 갈구리 {갯어} 갠민 거 갈구리 갈야영 올라오거든게.	김춘산						0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범	범용분류	조사분류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명칭 시지	표준국어 표준어 시지 표준어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무래질	명	명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거나 해초를 캐는 일.	그밖엔 우리가 매역을 추매역 주물민 시간 당 (무래질) 뿐지. 시간 무래질/해제하민 계은 내닝 오분작, 오분작 하국 오분작 곳나민 고통하주어 틈해 (무래질) 안 혀어.	김순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무래질하다	명	명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거나 해초를 캐다.	저 뵈드러는 아인 그날 바닷에 추르종일 간 (무래질) 오란 그 애기 었지.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나다	동	동	밖으로 나오거나 나간다.	젊은 사람들은 막 시간을 오래 살아서 막 매역을 많이 뜯게 돼고 나 만하고 어린 시절엔은 매역을 막 뜯으니까 시간을 막 뜯 거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삼십 분이면 삼십분, 시간을 막 뒤서 그 시간 개인 고통을 싸 부는 거야. 기를 뜯드면서 (다라) 하민 그때 나오지.	김순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부찌다	동	동	미역을 말리기 위하여 여러 개를 포개어 이더 더 날다.	그 매역을 해서 다 주물아서 (부찌민) 상인이 나 영/승락으로 상월 노 웨민 상월 모듬물제부터 매 역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리 7살하기 전까지 그 매역을 {조/물양} 막 남으로 부평.	김순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뜯다	동	동	=뜯다.<표준>	누개 가서 각으로 매역을 이제 캐는 거 보고 (뜯으는) 거엔 헛어.	김순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미중	명	명	물집하는 해녀들의 해산물을 물으로 나름.	그개 (마중덤) 다 가지, 녀려 이신 시를덤이고 뭐 얻는, 으막, 가서 하민 다 행기고 바작으로 저 올 리고 다 하지.	김순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뜯다	동	동	=뜯다.<표준>>1	막 손 실랑가지고 막 불추면서 매역을 (뜯어).	김순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뜯추다	동	동	뜯을 쫓다	막 손 실랑가지고 막 (뜯추면서) 매역을 날어.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미중질	명	명	물집하는 해녀들의 해산물을 물으로 나르는 행위.	중개중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터웁막,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지가민 매역은 주 무는 거야. {마중질하고} 주물아근에 갖에 오민 은 막 행기국 퍼근에 집의 저 올리는 것은 남자들 이 하잖아.	김순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저 물리다	구	구	물건을 짚어서 등에 얹다.	중개중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터웁막,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지가민 매역은 주 무는 거야. 마중질하고 주물아근에 갖에 오민 은 막 행기국 퍼근에 집의 {저 올리는} 것은 남자들 이 하잖아.	김순산					*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법	범용정모	종사정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1 명칭 시지	명칭정보2 명칭 시지	표준국어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행기다	동	동	=당기다.<표준>01[2][1]	조개포미하고 그자 망사리 해근에 태웁만 메영 가민 뉘는 거주. 여기 호미만 가지기만 메웁은 주 무는 거야. 마중질하고 주물아근에 갖에 오민은 막 {행기국} 피근에 집의 저 올리는 것은 남자를 이 하잖아.	김혼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미역	행위					어새허다	동	동	일 기간 체취를 금했다가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잡기 시작하다.	{해제하민} 게는 내방 오분작 허국, 오분작 건너 민 고동허주. 여름에 무래질 인 허여/지 민 동네 매역 아너는 동네 사름덜이 여기 비양동 {해제하민} 날은 여기 오는 거라.	김혼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기타					적	명	명	해초류 뿌리 등에 붙은 돌덩이 같은 단단한 고체.	아멩헤도 조각 것이 {적도} 엇고 우미가 금주게 붙레는 디. 쉼 내용에 한 건 막 {적이} 부뉘 양양 이문 막 두드러.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도구					방명어, 마개	명	명	=방명어. 우뫄가사리에 붙은 적을 떼어내는 데 사용하는 방명이다.	아멩헤도 조각 것이 적도 엇고 우미가 금주게 붙레는 디. 쉼 내용에 한 건 막 적이 부뉘 {방명어} 막 두드러.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도구					조락	명	명	작은 바구니.	우미 주물레 가민 망사리가 죽은민 {조락}, 죽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주물고, 망사리가 죽은민 그것에 주물국 그거.	김혼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도구					망사리	명	명	해녀가 꺾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 로 된 그릇.	우미 주물레 가민 망사리가 죽은민 조락, 죽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주물고, {망사리} 주뉘은민 그것에 주물국 그거.	김혼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명칭				우뫄가사리	천초, 천추	명	명	우뫄가사릿값의 해초. 높이는 10~30cm이고 줄기에 잔가지가 많이 나 나뭇가지 모양이며 몸뚱은 주로 검붉다. 긴 쇠갈퀴 따위로 따서 그야 우뫄을 만드는데 바다 속 무래나 등에 붙어산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우미 주물레 가민 망사리가 죽은민 조락, 죽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주물고, 망사리가 죽은민 그것에 주물국 그거. 표본에는 천초만 있음.	김혼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명칭				우뫄가사리	우미	명	명	우뫄가사릿값의 해초. 높이는 10~31cm이고 줄기에 잔가지가 많이 나 나뭇가지 모양이며 몸뚱은 주로 검붉다. 긴 쇠갈퀴 따위로 따서 그야 우뫄을 만드는데 바다 속 무래나 등에 붙어산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우미} 주물레 가민 망사리가 죽은민 조락, 죽은 조락 그거 창 가근에 그것에 주물고, 망사리가 죽은민 그것에 주물국 그거.	김혼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뫄가 사리	명칭					곳/우미	명	명	바닷가 근처의 바위에서 자라는 우뫄가사리.	별은 으뜸물이년에 {고우미법} 열 기엔 해라게.	김혼산					*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리명	법음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상태				올리명 가설개설하다	평	평	살거나 물체의 개죽이 아주 보드랍지 못하고 깔깔하거나 몹시 깔깔하다.	강추는 쫄 {가설개설하고} 돌우미 비스듬한 건데 그런 것지 하지는 아녀. 청우미는 맛이 없어, 황청에서도 청우미 안 받아. //청우미, 후술 {가설개설하고} 푸리고이, 개삼가설 푸리고 그췌 우미는 별장하고 쫄 맨지투하곡 쟁한다.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상태				비스듬하다	평	평	비스듬하다는 의미다.	강추는 쫄 개삼개설하고 돌우미 {비스듬한} 건데 그런 것지 하지는 아녀. 청우미는 맛이 없어, 황청에서도 청우미 안 받아. 간 잇고이, 발란에 우미 살아모니까 맛 잇던 비우무었다.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상태				맨지락하다	평	평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	청우미 후술 개삼개설하고 푸리고이 개삼개설 푸리고 그췌 우미는 발강하고 쫄 {맨지락하곡} 쟁한다.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상태				쫄/흔/하다	평	평	=자질하다.<표준>	돌우미는 {존존한} 거 것에 물싸는 다 그거 돌우미 거.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상태				툽툽하다	평	평	단단하게 굳다는 의미다. 우뚝가사리를 삶아서 간져서 굳었을 때 표현하는 말이다.	우미 주물양. 이제 우름에 먹을 거 짐에 오랑 지 우 풀면서 날거는. 풀면서 날면은 매질 날면은 허 양개 팔래지면 그개 살아가지고 풀 갈라서 허쫄 밤개 노던 그것이 {툽툽해지거든}.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색깔				푸리다	평	평	=푸르다.<표준>	청우민 후술 개삼개설하고 {푸리고이} 개삼개설 푸리고 그췌 우미는 발강하고 쫄 맨지락하곡 쟁한다.		김춘산				0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색깔				발강하다	평	평	=발빨다.<표준>	청우민 후술 개삼개설하고 푸리고이 개삼개설 푸리고 그췌 우미는 {발강하고} 쫄 맨지락하곡 쟁한다.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음식	과정			별루 다	평	평	=열리다.	우미 송양개 {열루민개} 반찬도 해영 먹곡 그냥 그췌 풍긋르 7 뜰 거나 보근에 탕도 먹고.		정금주				*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음식				우미	평	평	=우무.<표준> 이. 또는 우무로 만든 음식.	우미 주물양. 이제 우름에 먹을 거 짐에 오랑 지 쫄 풀면서 날거는. 풀면서 날면은 매질 날면은 허 양개 팔래지면 그개 살아가지고 풀 갈라서 허쫄 밤개 노던 그것이 {툽툽해지거든. 툽 열러지면 그거 반찬도 해 먹고 {우무} 췌도 췌도 먹고 췌물 거주. 그걸 우미투민도 하곡 {우미앤도} 하곡 쟁한다. /우미록 그췌 벨 거 인 먹어췌지게. 도투리민. /우미록 그췌이. 우미 췌영 오복간장에 마늘 해 놓 거제 {우미} 풍긋르 남근에 그췌 췌거지 그췌 {우미} 췌물 먹는 거 그지록 췌먹어보우.		김춘산		0		
이초생물어	해초류	우뚝가 소리	음식				우미목	평	평	=우무.<표준> 이.	우미 주물양. 이제 우름에 먹을 거 짐에 오랑 지 쫄 풀면서 날거는. 풀면서 날면은 매질 날면은 허 양개 팔래지면 그개 살아가지고 풀 갈라서 허쫄 밤개 노던 그것이 {툽툽해지거든. 툽 열러지면 그거 반찬도 해 먹고 {우무} 췌도 췌도 먹고 췌물 거주. 그걸 {우미투민도} 하곡 우미앤도 하곡 쟁한다.		김춘산				*

1 해 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법	범용정보	조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명칭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조각우미				조각우미	명	가장 먼저 채취하는 우뚝가사리.	처음에 조/무는 우민 {조각우미}, 두 번째 하는 건 만곽우미/조각우미 섞어민 먼저 한 건 찰 지을 찰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반추 두볼우미. 또 새 변형 건 새볼우미.	정음주, 영훈 울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만곽우미				만곽우미	명	늦은 우뚝가사리.	처음에 조/무는 우민 조각우미. 두 번째 하는 건 {만곽우미}.	정음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일반추				일반추	명	가장 먼저 채취하는 우뚝가사리.	{일반추} 해남 우미가 이젠 일추 들어질 거 아니냐 없으마는 귀하는 거야. 좀 키웠음 이반추. 이반추 들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조각우미} 섞어민 먼저 한 건 찰 지을 찰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반추} 두볼우미. 또 새 변형 건 새볼우미.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이반추, 이반추				이반추, 이반추	명	우뚝가사리 가운데 두번째로 채취하는 우뚝가사리.	일반추 해남 우미가 이젠 일추 들어질 거 아니냐 없으마는 귀하는 거야. 좀 키웠음 {이반추} {이반추} 들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조각우미} 섞어민 먼저 한 건 찰 지을 찰 건 조각우미. 그 다음엔 {이반추} 두볼우미. 또 새 변형 건 새볼우미.	김훈산, 영훈 울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삼반추				삼반추	명	세번째로 채취하는 우뚝가사리.	일반추 해남 우미가 이젠 일추 들어질 거 아니냐 없으마는 귀하는 거야. 좀 키웠음 이반추. 이반추 들어나면은 {삼반추는} 마지막.	김훈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홍우미				홍우미	명	우뚝가사리의 일종. 잎이 뾰뾰하고 풀을 해도 앙이 많이 없다.	{홍우미는} 홍색 지 뾰뾰하고 앙이 그런 니온 뾰뾰한 앙 반어간.	정음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홍우미				홍우미	명	우뚝가사리 일종이다.	그 {홍우미} 그것도 풀 안 나는 것일 막 할망들 매우 서정애 풀아먹고 {홍우미} 뾰싹나게 풀우미 많은 거개, 경 막 매여당은에게 서고양덜 경 풀양.	정음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청우미				청우미	명	푸른빛이 감도는 우뚝가사리.	{청우미} 풀이 잘 안 나. 그런 잘 받도 아녀/강추는 좀 까살까살고 {청우미} 비스들린 건디 그런 그자 하지는 아녀. {청우미는} 맛이 없어. 한천에서도 {청우민} 안 받아. 건 맛이 잇고이. 반래에 우미 섞아보니까 맛 잇어. 비양부랑 다/{청우미는} 파랑하어근에 바탕에서 세근 가라.	김훈산, 정금 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청우미				청우미	명	우뚝가사리의 일종. 바닷가 바위 위에 자라나는 지질한 우뚝가사리.	우미는 내 가지 종류여. 강추, 청우미, {청우미}, 그자 우미/강추는 좀 까살까살고 {청우미} 비스들린 건디 그런 그자 하지는 아녀. 청우미는 맛 이 없어. 한천에서도 청우민 안 받아. 건 맛이 잇고이. 반래에 우미 섞아보니까 맛 잇어. 비양부랑 다/{청우미는} 존흔한 거 갖에 올빠는 디. 그자 볼우미 거/{청우미} 팔래영 씹아 보민 것이 앙 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어편 일인지 그 받아가질 아녀.	김훈산, 정금 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종류	강추				강추	명	우뚝가사리의 일종. 잎이 까끌까끌하다.	우미는 내 가지 종류여. {강추}, 청우미, {청우미}, 그자 우미/강추는 좀 까살까살고 {청우미} 비스들린 건디 그런 그자 하지는 아녀. 청우미는 맛이 없어. 한천에서도 청우민 안 받아. 건 맛이 잇고이. 반래에 우미 섞아보니까 맛 잇어. 비양부랑 다.	김훈산							*

1 해 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법	범용정보	표시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 시지	명칭정보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총류				김우미	평	평	우뚝가사리의 일종. 깊숙한 바다 속에서 자리 는 질이 좋은 우뚝가사리.	조꾸우미, {섬우민} 은자 한 건 칠 처음 한 건 조 각우미, 그 다음엔 이번촌 두뚝우미. 또 세 번 한 건 세뚝우미.		음촌약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총류				두뚝우미	평	평	두번째로 수확하는 우뚝가사리.	조꾸우미, 섬우민 은자 한 건 칠 처음 한 건 조꾸 우미, 그 다음엔 이번촌 두뚝우미. 또 세 번 한 건 세뚝우미.		음촌약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총류				세뚝우미	평	평	세번째로 채취하는 우뚝가사리.	조꾸우미, 섬우민 은자 한 건 칠 처음 한 건 조꾸 우미, 그 다음엔 이번촌 두뚝우미. 또 세 번 한 (세뚝우미).		음촌약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조/물다	동	동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우뚝가사리를 따 위를 채취하다.	우미 {조물래} 가민 망사리가 죽으면 조락, 죽은 조락 그거 참 가민에 그것에 조물고 망사리 거들 은진 그것에 조물락 거거//바탕에 드는 건 우미 {주무는} 거면 하고.		김촌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우미 물다	구	구	바닷가 근처 바위 위에 난 우뚝가사리를 손으 로 뜯다.	시월 말일부터 고동 잠기 시작하면 이월 말까지, 이제 고난은 이제 {우미 물기} 시작하면 매달 이제 하다가 우리 동네는 일이 만하기 때문에 만 해야 이십일, 경 이너면 삼오일쯤껏 우미 작업 을 아녀.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우미 매다	구	구	우뚝가사리를 손으로 매다.	고운로 강 하는 건 {우미 매래} 가개. 그자 물에 드는 건 주무는 거.		정금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매다	동	동	{손으로} 뜯다.	우미 곳으로 물창 가는 건 {매는} 거면 하고, 바 탕에 드는 건 우미 주무는 거면 하고.		김촌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조/문해다	동	동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우뚝가사리를 따 위를 채취하다.	=조/물다.		김촌산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물다	동	동	=물다.<표준>01	우미도 남자들이 다. 마중해어가지고 {남주개}. {남양} 물리는 뚱는 거난 그건.		김촌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물린다	동	동	=물린다.<표준>03	우미도 남자들이 다 {마중해어가지고} 남주개. 남양 {물리은} 뚱는 거난 그건.		김촌산				0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미중해다	동	동	물길하는 해녀들의 해산물을 물으로 나르다.	우미도 남자들이 다 {마중해어가지고} 남주개. 남양 물리는 뚱는 거난 그건/응은 나지 아녀, 우 리 남양베기, 옛날에는 그날 동네로도 조물고, 또 경 아녀면 맨 그자 제지름 거드메 기둥 터럭 행 강 은메 막 당양 물러 오양 뒤에서 {마중해국} 강 하 영도 하국.		김촌산, 정금 주			*	
어촌생활어	해초류	우뚝가 사리	행위				물다	동	동	=물다.<표준>02	우미 조/물양, 이제 응름에 먹을 거 짐에 오랑 지 우 {물/민서} 남거든, {물/민서} 남민은 매칠 뚱 민은 허영케 물러지면 그거 삶아가지고 물 걸러 서 하후랑 재 노면 그것어 뜬해지거든.		김촌산				0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명	범용정명	종사정명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2	명칭정보 정명 시지	명칭정보 정명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이른생황어	해초류	우뚝가 서리	행위					벌레다		동	=바래다.<표준>>1	우미 조/물양. 이제 요름에 먹을 거 짐에 오랑 지 구 뽕/면서 날거든. 뽕/면서 날면은 매실 날면은 허영개 {바래지면} 그개 살아가지고 뽕 {갈라서} 허복받 재 노면 그것어 든든해지거든.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우뚝가 서리	행위				거르다.	결르다		동	=거르다.<표준>>1	우미 조/물양. 이제 요름에 먹을 거 짐에 오랑 지 구 뽕/면서 날거든. 뽕/면서 날면은 매실 날면은 허영개 바래지면 그개 살아가지고 뽕 {갈라서} 허복받 재 노면 그것어 든든해지거든.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뽕	도구				바지개	바작		명	발채.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뽕허젠 하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 에 {바작으로} 저 냇거든. 이전 {바작이} 엮고 지 개가 엮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 든 허곡. 그개에 해서 담야 놓민 이제 저 내 시름 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시름 지어내는 시름.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뽕	도구				낫	호미		명	=낫.<표준>>1.	뽕허젠 하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 에 바작으로 저 냇거든. 이전 바작이 엮고 지게가 엮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든 허곡. 그개에 해서 담야 놓민 이제 저 내 시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시름 지어내는 시름.	김춘산					0	
이른생황어	해초류	뽕	도구					지게		명	=지게.<표준>>1	뽕허젠 하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 에} 바작으로 저 냇거든. 이전 바작이 엮고 지게가 엮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든 허곡. 그개에 해서 담야 놓민 이제 저 내 시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시름 지어내는 시름.	김춘산					0	
이른생황어	해초류	뽕	도구					마다리		명	=자루.<표준>>1	뽕허젠 하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 에 바작으로 저 냇거든. 이전 바작이 엮고 지게가 엮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든 허곡. 그개에 해서 담야 놓민 이제 저 내 시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시름 지어내는 시름.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뽕	도구					찰리		명	=자루.<표준>>2	뽕허젠 하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에 바작으로 저 냇거든. 이전 바작이 엮고 지게가 엮 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든 허곡. 그개에 해서 담야 놓민 이제 저 내 시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시름 지어내는 시름.	김춘산					0	
이른생황어	해초류	뽕	명칭				뽕	뽕		명	갈조류 모지반과의 해조. 몸은 상우상의 뿌리 로 지렁이되며,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다. 늦은 여름 발아하여 겨울에 자라기 시작하여 이듬 해 봄이 되면 30~100cm까지 자라서 여름에 말라 죽는다. 바닷가 바위돌에 붙어 자라는 데 채취하여 잎을 식용한다.	뽕허젠 하민 호미, 마다리. 옛날엔 바작, 지게 에 바작으로 저 냇거든. 이전 바작이 엮고 지게가 엮기 때문에 찰리, 찰리엔도 허곡, 마다리에든 허곡. 그개에 해서 담야 놓민 이제 저 내 시름은 저 내고. 비는 사람 담는 시름 지어내는 시름.	김춘산						*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리명	법음정모	조사 정모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 정모 시지	명칭 정모 시지	표준국어 사전 등록여부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부근명 칭					올푸글레기	명	꽃이나 지층 따위의 해초에 달리는 공기 주머니.		=올이슬. 이영필(2008)의 <해초의 비단말>에는 식물명이 '비단말'이도 올라 있음.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부근명 칭					올리슬	명	꽃이나 지층 따위의 해초에 달리는 공기 주머니.			=올무르레기. 이영필(2008)의 <해초의 비단말>에는 식물명이 '비단말'이도 올라 있음.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상태					올물몽글하다	형	길이가 짧으면서 움푹하다.		봉당물 (올물몽글한) 거.		정금주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새갈					올똥희죽하다	형	=희죽희죽하다.<표준>		아이고, 매역에도 {희죽희죽하민} 두른 올라꾸난 근피어지게. 풀도 잘 올라야, 근피어근에 안 된다.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음식	명칭				올방국	명	꽃나물에 식초와 잔물을 넣어서 만든 국.		방국어엔 하영 그거 (올방국).		정금주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음식	명칭				올노/올	명	꽃을 대채낸 후 민장 따위로 간을 하여 무쳐 낸 나물.		올은 그 어린 때논게 기자 조금씩 올리게 해당 올 밭밭 곽영 살짝 대칭 파랑하게 해근에 무침 먹으 또 나뉘는 세민, 솥알, 풀, 속아근에 기자, 돼장, 풀아 풀국 식초, 꿀국 해근에 세민 들리게 무침도 먹 국 어름에 냉국 하영도 먹국 {올노물}.	정금주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음식	명칭				올밥	명	꽃조류인 꽃을 넣어서 지은 밥.		옛날 우리 어무니네가 부재로 시니가 그런 풀국 레반을 못 먹어지고 우리 어머니가 강사를 얻 다 하니가 우리 아지랑보고 {올밥을} 해서 숙의 담아놓라고 그러더라고.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음식	명칭				올포/레밥	명	꽃이나 파래를 넣고 지은 밥을 한꺼번에 이르 다 {올푸레밥을} 먹어도 우리는 진정이 잘 서니 까 안 먹어갠거든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음식	상태				올강올강하다	형	살피서 통통한 사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올반은 {올강올강하민} 풀, 부, 밭, 힘, 기는 올강올 강 먹기가 좋고, 그 푸레 개푸레 농 밭하민, 풀그 밭풀그 먹기가 힘들어.	윤춘옥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종류	명칭				올당물	명	길이가 짧막막한 꽃.		존 것고라 {올당물}, 영 줄은 거, 큰 건 그냥 풀 {올당물} 올물몽글한 거.	정금주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행위					지어내다	동	올긴 따위를 지게 따위로 저 내르다.		이제 저내는 새름은 저내고, 비는 새람 담는 새름 [지어내는] 새름.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행위					비다	동	=배다.<표준>02[1].		이제 저내는 새름은 저내고, 비는 새람 담는 새름 [지어내는] 새름.	김춘산					*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행위					담다	동	=담다.<표준>01[1].		이제 저내는 새름은 저내고, {비는} 새람 담는 새름 지어내는 새름.	김춘산					0	
이른생황어	해초류	꽃	행위					올/리다	동	=올리다.<표준>03		아이고, 매역에도 희죽희죽하민 두루 올라꾸난 근피어지게, 풀도 잘 {올/리러야}, 근/피어근에 표준에는 올리다로 되어 있음.	김춘산					0	

1 해초류 조사어휘(김순자)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2	상세분류1	상세분류2	원포제어 표준어	올림말	별칭	종자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명칭정보	명칭정보2	명칭정보3	명칭정보4	표준국어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래	명칭				파래	파래	명	파래의 해조류. 길이는 18cm 정도이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을 이루고 밑줄은 광택이 있는 푸른빛이다. 김과 같이 넓적하고 얇은 것, 가늘고 긴 것, 파위가 있다. 양기와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는 바다에서 자라는데 한국의 남해안, 일본, 동중국해 등지에 분포한다.	파래의 해조류. 길이는 18cm 정도이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을 이루고 밑줄은 광택이 있는 푸른빛이다. 김과 같이 넓적하고 얇은 것, 가늘고 긴 것, 파위가 있다. 양기와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 자라는데 한국의 남해안, 일본, 동중국해 등지에 분포한다.	용운옥						*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래	음식	명칭			포/래국	포/래국	명	포/래를 넣어서 끓인 국.	(포/래국), 가시리국, 매역세국, 매역국 다 해먹는 가주.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래	음식	명칭			포/래밥	포/래밥	명	파래를 넣어서 지은 밥.	근덕에 막 굶어서이 배고파서 막 {포/래밥도} 있어서 막 굶은 사름들 많이 있고.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래	음식	명칭			개포/래밥	개포/래밥	명	파래를 넣어서 지은 밥.	불밥은 먹어지는데 {개포/래밥은} 못 먹겠다란 얘 허터가지고, 일크르에 허터서, 밥을 허니꺼이 아이 못 먹겠다란, 가는, 죽어도 못 먹겠다란.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래	음식	상태			쥬그라쥬그라	쥬그라쥬그라	부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는 모습과 소리를 나타내는 말.	불밥은 음력중갈야영 불 밥 찬 가는 음력중갈야영 먹기가 좋고, 그 푸레 개푸레 불 밥하민 {쥬그라 쥬그라} 먹기가 힘들어.	용운옥									*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래	종류				개포/래	개포/래	명	파래과의 해조류. 잎의 넓고 바위가 조건때 바위에 붙어 산다. 식용하지 않고, 가름으로 사용한다.	이쥬 {개푸레} 하지마는 쥬푸레 것도 놓악 뒷안 개이제 쥬푸레 안 나, 그 쥬푸레 헤다가 쥬정국에 헤서 늘 먹어잡아게 {쥬푸레} 옛날 먹어나스디 그 돌에 부딪근에 그런 간가시리쥬 가지 부팅에 언나스디 아쥬 그거 안 나고, 쥬 조주가 나빠져가 난. 우리 아이 먹엔 막 그거 느양될 매양들 먹어 나스디.	김춘산													*
이초생물어	해초류	파	음식	명칭			파밥	파밥	명	파를 넣어서 지은 밥. 구황 음식의 하나다.	파 해단에 이쥬 쥬양에 놓나 푸막 가지 뭉강한게 가쥬긴 해도 먹기는 풀안개. 페로 현에 {파밥}.	정금주									*				

찾 아 보 기

ㄱ

가시리100, 151
 가시리국49, 50, 152
 가시리풀51, 151
 근피다122
 근편다59
 굿우미44, 139
 갈쿠리29
 갈콩이114
 갑실듬북25, 131
 갑썰듬북26, 130
 강추47, 140
 개꼭레109, 147
 개꼭레밥61, 147
 검시룽128
 고동31, 89, 115
 고무옷77, 117
 고에기131
 고장풀148
 공쟁잇대42, 76, 131
 광추우미93, 140
 귀다리113
 까실까실허다144
 꼴랭이35, 74
 꿩미118
 꿩다121

ㄴ

나다120
 낭31, 32, 33, 34, 71, 118

ㄷ

넙메역29, 36, 112
 넙페49, 147
 넙페국49, 50, 148
 노랑쟁이26, 125, 128
 노젓는노래63, 64

단 치다118
 단33, 118
 덩치기113
 테우치다127
 도박 멩지도박101
 도박149
 도박풀51
 득고달149
 득고들51
 돌메역72, 111
 돌우미47, 48, 94, 140
 돛국물129
 돛국물28, 85, 124
 두불우미141
 듬북26, 41, 75, 84, 130
 듬북놀76, 134
 듬북몰레42, 134
 멩기다121
 뚜데기78, 117

ㄹ

마다리57, 136
 마중73

마중질120
 마중질허다120
 마카시리101, 151
 만곽메역92
 만곽우미141
 먼지락허다127
 물가리73, 113
 물류다126
 몸25, 26, 84, 85, 87, 124, 125
 몸국25, 129
 몸국25, 28, 124, 129
 몸즈밤86, 129
 땅사리43, 116, 142
 메역 팡114
 메역29, 32, 34, 69, 71, 78, 111
 메역국50, 123
 메역귀33, 35, 113
 메역플랭이36
 메역팡35
 메역무침37
 메역세49
 메역세국50
 메역이33
 메역체123
 멘지락허다133, 145
 멜젓27
 멩지도박149
 몽클몽클허다137
 무레질24, 55, 78, 119
 무레질허다119
 물메역112
 물속곳77, 116
 물수건117
 물이슬135
 물적삼77, 117
 물푸글레기135
 몽갈몽갈허다138
 몽텅몽텅허다123
 민지락허다122

밀대110, 149

ㅂ

바작57, 115, 135
 발강허다145
 발동기114
 발레다144
 보릿대149
 봉당톨88, 135
 부글레기26, 87, 124, 126
 부찌다121
 불추다122
 불턱78, 129
 불통가시리101, 151
 빨다126
 빼드락허다122

ㅅ

사끝사끝허다133
 삼반추44, 142
 서슬150
 서실150
 섭우미140
 세불우미142
 시간무레질119

ㅇ

얼루다144
 왕부글레기124, 126
 우미 도박 메역52
 우미45, 67, 90, 139
 우미목46, 47, 146
 유네스코16
 이반추44
 일반추44

일번추44, 141

ㅈ

즈문허다119, 143
 즈물다119, 133, 143
 증게호미34, 77, 116
 잠수복24
 조각메역113
 조각우미91, 141
 조락43, 142
 조문74
 죽은눈77
 종지우미94, 141
 주네가시리151
 주뭉125
 줄메역112
 줄아시75, 132
 쥐듬북25, 26, 130, 131
 쥐뭉25, 26, 125
 지계57
 지꺼리150
 지꺼리풀51
 지층150
 진도밭이150
 쫓럭쫓럭허다123
 찌끄리150

ㅊ

찰리136
 출렛국25, 28, 37, 129
 춤메역29, 30, 112
 춤뭉27, 84, 85, 125, 127
 춤꼭레49, 147
 천추25, 139
 청우미47, 94, 140

청우민48

ㅋ

크테왁116

ㅌ

뜯다120
 테왁34, 116
 툄27, 54, 55, 59, 87, 88, 110, 134
 툄냉국138
 툄밥60, 138
 툄늑물54
 툄늑물138
 툄꼭레밥59, 138
 툄튼허다145

ㅍ

푼레국50, 147
 푼레밥60, 96, 147
 폐147
 폐기42, 132
 폐밥96, 148
 풍선114

ㅎ

해녀노래63
 허채허다119
 헝넵이152
 호르레기31
 희뜩희뜩허다137

-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김순자(제주대학교)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11월 20일
발행일 2011년 11월 22일
인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